



9-10

1994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4. 9-10호

(루게 563~564)



◆◆◆◆◆◆◆◆◆◆ 차 례 ◆◆◆◆◆◆◆◆◆◆

모든 작가들은 시대의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여 주체혁명위업완성에 적극 이바지하자	4
나에게는 조국이 있다 (외 2 편).....	7
민족의 아버지	9
단결의 중심 친애하는 지도자	18
인민의 아버지 김정일	18
사색속에 계시다	19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의 승리.....	19
기슭 (외 1 편).....	20
금방석우에 앉은 옥동자	21
짧은 이야기	23
사랑의 손길	24
나의 발걸음	25
글을 신념과 량심을 가지고 쓰도록	26
명언	27
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28
도시사람들	28

조국과 속삭이는 말	29
이 들길로 영원히 오시리	31
풍년가을	31
이 가을은	32
력사의 집	33
당기를 바라보며	35
명제해설	36
고요한 저녁에	37
대안의 새벽	42
총대로 새긴 진리	43
풍년든 연백벌에 서보시라	51
영원히 빛내갈 우리의 한마음	52
어머님의 그 말씀속에	52
《화선사람》	53
더욱 부강할 내 조국의 크나큰 공지를.....	64
두번다시 피어나 향기풍긴 목란꽃	65
꽃을 피웁니다	66
불멸의 위업에 대한 시대의 찬가.....	67
계기의 바늘은 가리킨다 (외 1 편).....	71
하늘에 대한 생각.....	72
시간이여, 날 따라오라!	74
처녀는 짠다.....	75
명가사에 대한 소감	76
시대에 대한 시인의 뜨거운 정서적체험과 시적운틀.....	79

모든 작가들은 시대의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여 주체혁명위업완성에 적극 이바지하자

오늘 모든 작가들은 사회주의위업이 엄혹한 시련과 중첩되는 고난을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으며 조국통일의 앞길에 새 국면이 열리고있는 역사적인 시기에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결하였다.

우리 나라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우러러모신 탁월하고 결출한 영웅, 인민의 아버지를 잃은 우리 작가들의 비통함은 그 무엇으로써도 다 말할수 없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록하신 영생불멸의 혁명업적은 영원히 우리 작가들의 심장속에 남아있어 지금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을 되새겨본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수령님은 일찌기 그 누구도 지닌적 이없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심오한 혁명리론과 위대한 혁명실천으로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시고 빛내이신 로동계급의 가장 위대한 수령이시며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장구한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찬란히 수놓아오신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걸어오신 80여성상의 불멸의 로정은 조국과 혁명에 대한 더없이 숭고한 책임감과 혁명적원칙성으로 수놓아져있는 가장 빛나는 인생행로였다.

풍파많은 복잡다단한 세기에 결출한 혁명가의 풍모를 온몸에 체현하시고 불길만리 혈로를 헤쳐오신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민족적영웅의 빛나는 위대한 생애였다.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생애가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여오신 로동계급의 가장 위대한 수령의 한생이었다는것을 사상에술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계속 빛나게 형상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탁월한 수령, 천제적인간에게는 위대한 투쟁행로

가 있으며 영웅서사시적공적이 있다.

우리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헤아릴수 없는 시련이 앞에 가로놓여있었어도 오직 우리 인민을 위한 숭고한 혁명위업에 전생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인민을 믿고 한생을 인민들속에서 살아오시였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인민대중이다.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을 위하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찬 일은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근로인민에 대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지니신 인민의 수령이시다.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언제나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사업이 진리와 정의의를 위한 사업으로만이 아니라 인민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육친의 배려로 될 때에 그것은 력사에 불멸의 기록으로 빛나게 되고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는 은덕으로 피어나게 된다. 락원의 이 강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수천수만리 현지지도의 자욱이 빛나게 새겨져있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 위대한 사상이 우리 작가들의 영원한 형상원천으로 되고있다. 언제나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하여온 우리 작가들은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형상창조에서 절대적 충성심을 안고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바쳐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또한 참다운 민족적단합과 통일위업실현을 위하여 한평생 쉬임없이 투쟁하여오시였다.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을 나라의 통일을 위한 근본문제로 보시고 불철주야로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지칠줄 모르는 로고에 의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밝은 전망이 펼쳐지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작가들의 심장을 끓이며 시대의 명작창작으로 끊임없이 정력적으로 고무추동하고있다. 당의 영원한 동행자인 우리 작가들은 충성의 붓을 높이 들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은 진정 우리 겨레를 민족대단결의 길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위인이시였으며 세기의 영웅이시였다는것을 시대적각광속에 정중하게 형상하여야한다.

모든 작가들은 총서 《불멸의 력사》중 항일혁명투쟁편을 끝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해방후편을 사상예술적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창작완성함으로써 위대한 령도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크나큰 기쁨을 드려야 한다.

지금 우리는 피어린 길을 헤쳐온 조선혁명에서 다시 없을 최대의 손실을 당하였지만 절대로 비판하거나 주저앉고있지 않으며 용기를 힘껏 가다듬어 필승의 신심에 넘쳐 힘차게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고있다. 험산준령과 눈보라 혈전만리를 헤치며 자랑찬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서계신다.

문무충효를 다 겸비하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인민들과 함께 모든 작가들의 커다란 영예이며 자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며 그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가야 합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탁월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일심단결하며 혼연일체가 되는 것,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생전의 가장 큰 뜻이다.

이것은 언제나 당과 수령을 받들어 충성의 한길을 걸어온 주체형의 혁명가들과 우리 인민들, 모든

작가들에게 남기신 위대한 유훈이다.

우리 작가들은 이 위대한 유훈을 좌우명으로 새기고 창작활동의 전기간 언제나 이것을 구현하여야가야 한다.

력사의 새 시대는 위대한 령도자에 의하여 전진하고 빛나게 된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온갖 로고를 바치시며 인민의 토양에 씨를 뿌리신 주체사상을 무성한 숲으로 가꾸시여 풍만한 열매를 거둘수 있게 하신것이야말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쌓아올리신 세계사적공적으로 된다.

날바다의 배가 등대불에 의해서만 온갖 풍랑과 암초를 이겨내며 목적지를 향해 곧바로 항행할수있듯이 시련과 역경을 동반하는 혁명투쟁도 옳은 지도사상에 의해서만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된다. 인민들에게 있어서는 사상과 철학도 위대하고 령도적 자질과 능력도 탁월하며 인품도 거룩한 그런 령도자를 시대의 진두에 높이 모시는것보다 더 큰 행은 없다.

인류는 력사가 21세기로 넘어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이르러 그런 령도자의 위대성을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거룩하신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위대한 령도자로 모시여 미래를 확신하면서 높은 리상을 가지고 살며 혁명하는것은 우리 인민들과 작가들에게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여 빛나는 조선이 있고 작가들의 크나큰 행복이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령도자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살려는 확고한 의지, 바로 이 신념, 이 의지가 우리 작가들의 가슴속에 든든히 뿌리내리고있다.

세상에 태양과 그 행성들의 궤도를 변화시킬 힘이 없는것처럼 위대한 령도자와 우리 작가들을 갈라놓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이 땅에서 흘러가는 한초한초는 과연 무엇으로 이어지고있으며 모든 령역에서 것처럼 세인을 놀래우는 혁신과 기적은 무엇으로 엮여지는가.

위대한 령도자를 떠나서는, 령도자를 받드는 우리 인민들과 작가들의 충성의 열정을 떠나서는 결코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수 없다.

오늘 우리 작가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이 열백번 바뀌고 지구가 깨어져나간다 해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삶의

전부이라는 드림없는 신념이 확고히 자리잡고있다.

작가의 심장은 오직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불타야 하며 그 심장에는 충성의 일편단심이 억세게 간직되어있어야 한다. 작가들은 지금 창작중에 있는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시대의 명작으로 내놓아야 한다.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를 깊이있게 파악한 작가만이 력사에 남을 수령형상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모든 작가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최대의 창작적힘을 기울이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일편단심은 주체형의 혁명가들과 우리 인민들, 모든 작가들의 기본품성으로 되고있다. 자나깨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생각하며 순간순간을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충성과 효성으로 이어나가는것을 어길수없는 삶의 요구로 여기는것이 우리 인민들과 작가들의 진실한 모습이다.

실로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리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잡다단하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헤쳐온 우리의 혁명투쟁력사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현명한 령도로 하여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새 시대, 위대한 주체시대를 개척하여온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이였다.

이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충정으로 만났을 헤치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온 우리의 자랑스런 력사이기도 하였다.

오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자기들의 운명과 미래를 맡기고 투쟁하여나가는 우리 인민들과 작가들처럼 궁지높고 행복한 인민들과 작가들은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변함없이 충성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작가들의 기상은 백두의 소나무와 같이 푸르고 억세며 의지는 바위와 같이 굳세고 열정은 불처럼 뜨겁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만 계시면 언제나 백전백승한다는 진리를 심장깊이 체득한 우리 작가들, 이 세상 모든것이 다 변한다 해도 당과 함께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할 우리 작가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이 진리, 이 신념만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주체문학건설에서 더 힘찬 걸음으

로 걸어갈것이다.

문학은 시대와 더불어 변화발전하는 우리 인민의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를 혁명적미학관의 견지에서 새롭게 탐구하고 형상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은 로동계급의 수령과 당에 대한 형상과 함께 주체형의 공산주의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인민대중을 자주위업수행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올해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방침관철에 떨쳐나선 근로자들과 일군들의 자랑스런 투쟁모습을 빛나게 형상하여야 한다.

특히 전력공업과 금속공업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것이 올해 중심과업의 하나이다.

당에 끝없이 충직하여온 우리 작가들은 전력공업부문과 금속공업부문에서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생산능력을 더 조성하여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로동계급과 일군들의 빛나는 형상창조에 모든힘을 다하여야 한다.

비료는 곧 쌀이다. 비료가 많아야 농업제일주의가 성과적으로 관철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비료부문 혁신자들의 성격창조를 훌륭히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세멘트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지도일군들의 과감한 투쟁정신과 자랑스런 위훈도 훌륭히 형상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믿고 따르는 작가들의 마음은 영원히 변함을 모르는 확고부동한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받드는데서는 진심이 중요하다. 진실성은 언제 어떤 환경속에서도 가식과 변심이 없이 친애하는 그이를 따르는 혁명적량심이다. 참된 작가에게 있어서 량심은 속일수도 없고 저버릴수도 없는 마음이다.

지금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한 작품을 훌륭히 창작하는 것과 함께 당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며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더 잘 창조함으로써 인민대중을 자주위업수행으로 힘차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나에게는 조국이 있다 외 2 편

홍민식

누구에게나 있는것이
어머니라면
누구에게나 있는것 또한
조국이던가

피의 좌절을 겪고있기에
행상인처럼 지식을 싸들고
방랑아처럼 과학자들이 정든 땅을 떠나가는
이 세계...

준엄한 이 세계에
지켜가는 조선과학자의 이 준엄
내 누리는 이 행복에 겨울수록
가득히 어려오는
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영상이여

세상만난 다 헤치시며
조국의 운명
사회주의운명을 떠메시고
나의 작은 운명까지 안고 걸으시는 그 자욱자욱
내 가슴 젖어 더듬어보나니

잊은적 없었노라
소작농의 아들이던 나를 손잡아
나라의 과학자로 키워주시고
세상광풍 다 막아
걸음걸음 삶을 빛내주신 그 사랑

가슴에 뜨겁노라
류례를 모르는 조선지식인대회에서
내 그이 우러러 흘리던 눈물
수도 멀리 선거장을 찾으시여
이름없는 과학자

나에게 친히 찬성투표해주신 그 크나큰 한표가

아, 내 생의 그 어느 토막을 더듬어도
그 어느 시절을 생각해도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나를 이끌어 기울이신 그 로고 뜨거웁나니

얼마나 힘겨우셨으랴
한몸으로 헤치신 그 세상만난
내 맞고 지새는 탐구의 낮과 밤을 다 모아
그 하나라도 덜수 있다면
그 한순간이라도 대신할수 있다면...

그래서 목메여 더 못잊고
그래서 못잊어 더 위하고싶은
이 한몸 바쳐도 아쉬움 모를 그 품
아, 그 품은 친애하는 그이의 품

그 품이 있기에
위대한 그 품이 있기에
내가 있고
나의 집, 나의 과학, 나의 미래 그 모든것이
다 있는
나의 조국이 있나니

내 가슴 헤쳐 온 세상에 자랑하노라
방랑아처럼 과학자들이 세계를 헤매이고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 해도
조선의 과학자, 나에게는
안아지켜주는 품
떨어져선 못살 사회주의조국이 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품이 있다

나는 미래를 보았다

갈으면서도
다른것이 시간인가
영광의 단상위에
백발의 과학자들이 오르고
홍안의 청년과학자가 오르고...

아직은 입언저리에
숨털도 가시지 못한 꽃시절

아직은 공로메달도 없어못본
애젊은 그 가슴에 박사메달이 빛난다

장하다 그대, 부럽다 그대
향도의 해빛아래
한생으로도 오르기 험치 않은
탐구의 령마루를
생의 첫걸음에 뛰어오른 피더운 젊음아

스물한살, 홍안의 그 나이앞에
그 세굽을 살고도 남은
내 한생이
이 백발이 부끄럽구나

너무도 뒤진탓에
너무도 큰 슬픔을 안았던 조국을 알기에
생의 하루우에
세월의 10년을 걸머지고 달려온 그대여

오래살아 먼길 가고
짧게 살아 적은 일 하던가
아, 조국앞에 참된 삶
그 위훈은 생의 길고 짧음에 있는게 아니구나

남은 생 짧다고 한탄않노라

남은 생 세월에 맡기지 않노라
피뿜는 그 가슴에서
내 다시 시작할 한생을 찾았나니

그대 내짚은 큰 걸음따라
내가 간다
우리가 간다
조국이 간다 미래를 당겨

같으면서도
다른것이 시간인가
아, 향도의 해빛아래
세월의 고삐를 한손에 거머쥔 그대
빛뿌리는 그 가슴에서
나는 조국의 비약을 보았다
나는 휘황한 조국의 미래를 보았다

그이께서 부르신다

내 나서 먼길 걸으며
늘 들어온 말이건만
친애하는 그이 오늘 또다시 가르쳐주시는
자력갱생, 이 말이
왜 이리도 가슴에 뜨거운것인가

잊지 못하노라
엄혹했던 전후의 그날
자력갱생의 불길로 난국을 헤치던 그때
내 편안히
대학에서 공부하던 그 송구스러움...

벽돌 한장이 귀하고
로력 한사람이 그리웁던 그 나날
나를 대학창가에 앉혀주며
당이 바란것 무엇이고
내 가슴에 불탄것 무엇이었던가

자력갱생, 그것으로 시작되고
그것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우리 혁명이기에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자기의 힘을 키워야 하고
자기의 지혜를 키워야 하지 않았더나

내 그날에 키운 힘과 지혜가 없었다면
물레방아 고달프던
문맹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했으리
자력갱생의 그 참뜻
그 생활력이 그렇게는 위력하지 못했으리

그 힘과 지혜가 없었다면
위용찬 오늘
저 락원의 창가, 강철의 지붕
풍요한 들판을 어이 바라볼수 있고
오늘의 사회주의를 어이 지켜낼수 있으랴

하거니, 그날에 안겨준 과학기술은
만난을 뚫고 헤치는
오늘의 자력갱생의 무기
그날에 과학자로 자라난 나는
오늘의 자력갱생의 척후병

내 오늘 승리의 이 언덕에서
자력갱생, 이 말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받아외우며
친애하는 그이 우러러
맹세의 눈물로 목메이나니

가는 길 천리면 천리를
가는 길 만리면 만리를
과학기술의 나래높이
자력갱생의 돌파구를 열어가리라
그날의 송구스러움
열배백배 오늘의 열정으로 불태우며...

아, 친애하는 그이께서 부르신다
가자, 자력갱생의 대진군으로 지축을 울리며
가자, 새로운 승리에로
조국이며, 더 밝은 미래에로

민족의 아버지

강학래

1

아침부터 내리던 함박눈이 넓은 정원안을 온통 은세계로 만들어놓았다. 돌층계우에도 잔디밭에도 하얀눈이 두텁게 쌓이고 전나무와 잣나무, 소나무우에도 흰눈이 무겁게 실려 나무아지들이 금시 부러질것처럼 땅우에 내리드리워있었다.

눈이 온 뒤여서 날씨는 푸근하였지만 이따금 바람결에 눈가루가 푸실푸실 부서져내리는 정원길을 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깊은 생각에 잠기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계시었다.

방금전에 오성국박사로부터 동명왕릉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수령님이시었다.

지금 수령님께서서는 역사학자들의 그 견해를 종합 추리해보고계시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고주몽전설자체가 허황하여 그를 실재한 인물로 믿기 어렵다고 하는가 하면 무덤자체를 놓고도 시조왕의 무덤으로서는 규모가 작고 벽화가 없어 믿기 어려울뿐더러 고구려의 첫수도에서 활동하다가 죽은 왕의 무덤이 어떻게 평양에 와서 묻힐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동명왕과 동명왕릉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있단 말이지...

그런가 하면 오성국박사를 비롯한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들과 견해를 달리하면서 고주몽전설자체가 신비화된 감은 있지만 그와 연관된 모든 인물들, 례하면 그의 어머니 류화라든가 그의 아들 유류 그리고 그의 건국사업을 뒤받침해준 충신들이 실재한 인물들이기때문에 그도 실재한 인물로 보아야 하며 동명왕릉도 그 구조로 보아 돌각담무덤과 봉토무덤이 배합된 무덤형식이 생겨나던 때의 무덤이므로 5세기초에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할 때 이장한 무덤으로 보는것이 옳을것 같다는 견해를 내놓았다는거지...)

서로의 엇갈리는 견해를 놓고 수령님께서서는 마음 쓰시고계시었다. 나무옆을 스쳐지나시는

수령님의 어깨우에 눈가루가 떨어져내리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시었다.

부관은 마음을 조이며 초조히 뒤따르기만 하였다. 오성국박사 역시 긴장한 얼굴로 수령님의 사색에 방해될세라 말소리를 죽여가며 조용히 뒤따르고있었다.

사색과 침묵, 그것만이 온 정원안을 짙 메운듯싶

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걸음을 멈추고 사려깊은 눈길을 들어 멀리 대성산쪽을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저으시었다.

(동명왕릉문제는 무덤의 주인공을 찾는 문제만이 아니라 사대주의자들과 민족허무주의자들에 의하여 심히 외곡되고 무시당해온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는가 바로잡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렇듯 심중한 민족의 중대사를 일부 역사학자들이 옛기록에만 의존하면서 아무런 주저도 없이 그렇게도 쉽사리 부정해버릴수 있단 말인가.)

수령님께서서는 이것이 섭섭하고 리해되지 않으셨다.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데 대하여 강조한지가 오랫동안 학자들의 머리가 아직도 이렇게 굳어져있었다.

수령님의 마음속에 이 문제가 자리잡은것은 해방 직후부터였다. 그러나 그때 새 조국 건설사업으로 하여 그 무덤의 허실을 밝혀놓지 못하였다. 그후에도 전쟁을 겪고 복구건설을 진행하고 내외의 복잡한 사업으로 하여 오늘까지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며칠전 동명왕릉에 나가보고 이문제를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보게 되셨다.

왕릉관리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있는데다가 오래전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곳 고등중학교의 한 녀교원이 학생들을 데리고 동명왕릉에 가서 역사이야기를 한것이 문제로 되어 호된 비판까지 받았다고 하니 사대주의자들이 뿌려놓은 여독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고있는것인가. 왕릉에 찾아가 조상의 역사를 알게 한것이 봉건이고 복고주의라면 앞으로 학교들에서 조선 역사를 가르쳐주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래 무심히 스쳐지날 문제인가, 동명왕릉에 대한 견해와 립장을 시급히 바로잡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화가 미칠수 있으며 그 녀선생이 데리고 간 학생들에게도 인식을 잘못 줄수 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제는 발굴사업을 진행하는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것만이 동명왕릉의 허실을 밝힐수 있는 길이다.)

수령님께서서는 오성국박사를 돌아보며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었다.

《오선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일부 역사학자들이 생각하고있는것처럼 그것이 동명왕의 무덤이 아니라고 략인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우

리는 어디까지나 주체적 립장과 관점에서 이 문제를 대할 때라야만이 진실을 밝혀낼수 있다고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도 오선생을 비롯한 여러 력사 학자들이 주장한것처럼 동명왕릉은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길 때 이장한 무덤이라고 보고싶습니다. 고구려사람들은 시조왕을 신격화하였습니다.

〈삼국사기〉에 실린 고주몽전설이 그걸 잘 말해주고있습니다. 그런만큼 고구려사람들이 신격화한 자기네 시조왕의 무덤을 훼손하고 올수 없습니다.

선생도 잘 아시겠지만 고려시기 왕건(고려건국시조)의 무덤도 원나라침략자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종 19년 7월에 최우의 제의에 의하여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후 그해 12월에 왕건태조의 무덤도 옮겨갔다가 놈들을 몰아낸 다음 개경으로 옮겨온 실례도 있지 않습니까!》

수령님께서는 생각해볼 여유를 주려는듯 천천히 걸음을 옮기더니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전에 조선시보영화를 보니 제일귀국공민들이 조국으로 돌아올 때 자기 조상들의 유골함을 안고 청진부두에 내리질 않겠습니까. 나는 그걸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역만리에서, 더구나 바다를 건너오면서까지 자기 조상의 유골을 버리지 않고 오는데 하물며 강대한 나라를 세운 시조왕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조상들의 유골을 안고 다니는것은 조선민족이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오는 미풍양속입니다. 그런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선민족이기때문에 력사유적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민족전통과 결부시켜 주체적관점에서 고찰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 말이 납득됩니까?》

수많은 력사학자들이 무심히 스쳐버린 하나의 력사적인 사료와 작은 영화화면을 보시고도 심원한 예지로 력사유적해명의 실머리를 찾아주시는 수령님의 고견에 성국은 경탄을 금치 못하며 대답올렸다.

《납득됩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그 무덤이 동명왕의 이장무덤일것이라는 생각이 커집니다.》

수령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기쁩니다. 얼마전에 내가 동명왕릉에 가보았는데 왕릉이 묘한곳에 자리잡았더라 말입니다. 동쪽으로는 제령산줄기가 뻗어내리고 남쪽과 서쪽으로는 마장산줄기가 뻗어내려서 묘자리가 오묘한 감을 주는데다가 멋진 사냥터를 끼고있질 않겠습니까. 산악지대와 락랑준평원지대가 합쳐진 그런 구릉지대에는 우리 나라에 흔한 사슴과 메돼지, 메토끼들이 육식거리 모를지기 고구려시기 년례행사로 진행된 체천일(하늘에 제 지내는 날)이던 술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곳에서 사냥경기를 크게 벌려놓고 북과 징을 울리며 많은 짐승

을 잡아 동명왕릉에 제사를 지냈을겁니다. 나는 이런 모든 사실로 미루어보아 동명왕릉문제는 사대주의자들과 민족허무주의자들이 써놓은 기록에만 매달려 그것을 절대시하는것은 옳은 방법론이라고 볼수 없다는 결론을 찾게 되였습니다.》

성국은 수십차례 동명왕릉에 다녀왔지만 전혀 생각 못한 동명왕릉의 지대적특성까지 민족의 전통적인 풍속과 결부시켜보시는 수령님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였다.

《수령님, 우리 력사학자들이 제구실을 톡톡히 못한것 같습니다.》

성국은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리였다.

《그래서 나도 일부 력사학자들이 기록에만 의거하면서 외곡된 과거력사를 아무 꺼리낌없이 인정해버리는것이 섭섭하기도 하고 가슴아프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시대에 와서까지 외곡된 력사를 바로잡지 못하면 바로잡을 사람이 없을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후손들이 자기 조상도 잘 모르고 력사와 문화를 톡톡히 알지 못하고 살게 아납니까? 이게 그래 단순한 문제입니까? 선생이 학생들을 데리고 왕릉에 가서 력사이야기를 들려준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있으니 이이상 더 큰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하루빨리 동명왕릉문제를 해명할 결심을 하게 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현지에 나가서 발굴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저도 고고학자로서 그렇게 해보고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수령님께서는 저으기 만족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좋습니다. 박사선생이 그런 생각이라면 대학에 돌아가서 력사학자들과 토론하여 강력한 발굴대를 무어가지고 현지에 나가도록 합시다. 그고장에서 오래 산 로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국은 몸가짐을 바로하고 힘차게 대답올렸다.

《알았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대로 그 무덤의 허실을 꼭 밝혀놓겠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성국을 바라보며 그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였다.

2

이른아침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닭울음소리에 깨어난 성국은 서둘러 옷매무시를 하고 천막을 나서기바쁘게 룡산리로 내려가는 길목에 들어섰다. 마을은 짙은 안개속에 묻혀있었다. 오늘은 다른 일들을 뒤로 미루고서라도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심려하고계시던 녀교원문제가 어떻게 되였는가를 알아보고 그 집로

인을 비롯한 마을의 늙은이들을 만나 동명왕릉문제를 의논해보리라 마음먹었던것이다.

성국은 지난밤에도 거의 뜬눈으로 새우다싶이 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해 종합대학의 이름있는 학자들과 수백명의 성원으로 무어진 발굴대를 이끌고 이곳으로 달려온지도 여러날이 지났으나 아직 아무런 실마리도 쥐지 못했으니 그럴수밖에 없는 일이였다. 날이 갈수록 자신이 지고 나온 책임이 무거워지고 자기 힘으로 과연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무거운 임무를 감당해낼수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밤새껏 잠 못이루었던것이다.

아침해가 솟아오를무렵 성국은 박로인네 집에 이르렀다. 마침 로인이 집에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동명왕릉을 발굴하러 나온 사람입니다. 오성국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렇게까? 나오셨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루추한방이지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울바자를 손질하던 로인이 성국을 반갑게 맞아주며 방안으로 청하였다.

《여기도 좋습니다. 몇가지 물어볼게 있어 찾아왔는데 방해되지 않겠습니까?》

《공연한 말씀들! 저기 마루에라도 앉으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성국은 박로인과 나란히 마루에 앉았다. 80객이 다 된 로인이지만 이 한대 상하지 않고 허리도 구불지 않은 정정한 로인이였다. 게다가 말하는 품이 어지간히 식자도 있는 로인같았다.

성국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어 로인에게 권하며 말머리를 떼었다.

《손녀는 집에 있습니까?》

《웬걸요. 이른 조반을 해먹고 학교에 나갔습지요. 학교일에 어찌나 극성인지...》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수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넘려해주신 덕분에 일이 다 제대로 수습되었습지요. 참말이지 수령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로인은 손녀이야기가 나오자 몹시 흥분한듯 두 눈을 습벅이였다.

성국은 그의 심정이 심분 리해되었다.

《손녀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겁니다.》

《그야 더 이를 말이웬까! 그애가 왕릉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온 일때문에 비판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눈앞이 다 캄캄했체다. 내가 왜 그애한테 동명왕릉유물을 보여주면서...》

《가만, 로인님께 동명왕릉유물이 있었던 말씀입니까?》

성국은 유물이란 말에 귀가 번쩍 띄여 다급히 그의 말허리를 끊어버리였다.

《그렇수다. 〈릉사〉라는 글자가 찍힌 유물이었습지요.》

《네? 〈릉사〉요? 그건 왕릉절간이란 뜻입니다.》

《저도 그렇게 짐작했습지요. 아마 옛날에 이 근방에 왕릉절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성국은 로인의 무릎가에 바투 다가앉았다.

《그 유물을 지금도 가지고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라도 자식들이 그 룡이 고주몽의 무덤이 틀림없다는것을 알게하려고 그 유물을 꺼내보여주면서 고주몽전설과 고구려력사이야기를 해주었습지요. 그래서 손녀애도 자연 동명왕릉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학생들을 데리고 왕릉에 찾아간 모양인데 그만 복고주의감투를 쓰고 비판받는다는게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조상들의 역사를 알게 해주자던 노릇이 그렇게 번져지자 나는 후회막급이였체다. 공연히 그애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력사이야기를 해주어 이런 화를 당하는구나싶어 온밤 잠을 못이루다가 화김에 그 유물을 울밖에 던져버리고말았습지요.》

성국은 로인의 가슴속에 깊숙이 묻혀있는 민족정신과 애국심에 감동을 금치 못하다가 유물을 던져버렸다는 바람에 너무도 아쉬하여 부르짖듯 말하였다.

《그런 귀중한 유물을 던져버렸단 말입니까? 로인님은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걸 어디다 던졌는지 향방만이라도 대주십시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만두시오! 그애 비판했던 간부들이 와서 사죄할 때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같이 조상을 높이모시고 위하는 위인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분들이 돌아간후 그 유물을 찾아보았는데 오래전일이라 끝내 찾질 못했체다.》

성국은 그 유물을 찾아야만 하였다. 그가 다시금 줄라서야 로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종수다. 그럼 저와 함께 찾아봅시다.》

로인은 울타리밖에 나와서 던진 방향을 손을 들어 가리켰다.

성국은 박로인과 함께 유물을 찾아보았으나 어디에도 없었다. 삽을 가지고 땅을 파헤치며 중낮이 되도록 찾아보았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덧 해는 서산에 떨어지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였다. 눈앞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역사질을 하였으나 소득이 없었다.

성국은 아쉬한 마음으로 마을을 떠나 천막으로 돌아왔다.

다음날도 발굴대원들까지 데리고 내려가 찾아보았으나 허사였다. 하는수 없이 로인을 데리고 왕릉 근처에 올라가 유물을 주는 장소를 알아가지고 그

일대에 대한 시굴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어느날밤, 성국의 천막으로 박로인과 손녀 박정순교원이 손전지를 들고 찾아왔다. 뜻밖에도 박로인의 손에 《릉사》유물이 들려있었다.

성국은 그걸 받아들고 너무 기뻐 환성을 올리었다.

《이 유물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박로인은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내가 성이 독같이 났던 모양이웨다. 글썄 그 유물이 길건너편 개울창에 처박혀있질 않겠소이까. 내가 망녕이 들어도 더럽게는 들었지, 민족의 넋이 깃들어있는 유물을 헌신짝 꿰개치듯했으니...》

《어쨌든 찾았으니 됐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수고랄거야 뭐, 제가 던졌으니 그런 수고를 해도 삽지요.》

박로인은 물속에 정갱이를 묻고 날이 어두워질때까지 감탕을 뒤져나가던 일을 이야기하고나서 마침 학교에서 돌아온 손녀가 손전지를 켜들고 나와 비쳐주었기에 유물을 찾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성국은 손전지를 들고선 정순교원의 얼굴에 곱게 패인 보조개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귀중한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성국은 너무나도 기뻐 춤이라도 출듯하였다. 그 웃음이 어찌도 밝고 기쁨에 넘친 웃음이었는지 정순교원은 의아한 눈길로 성국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것이 그렇게 귀중한 보물입니까?》

《아, 귀중한 보물이구말구요. 이곳에 왕릉절간이 있었다는것을 실물로 증명해준단 말입니다. 이제 두고보십시오. 지금 시굴작업을 하고있는 곳에서 절간터가 나오지 않나!》

《절간터가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구보면 정말 신기한 보물이웨다.》

박로인도 기쁨에 넘쳐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들 세사람은 손에서 손으로 돌려가며 유물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았다.

3

성국은 흥분된 심정을 안고 어버이수령님께 올릴 동명왕릉 발굴보고서를 쓰려고 책상앞에 마주앉아 있었다.

발굴사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2년간 학자집단과 발굴대원들이 마을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애쓴 보람이 있어 동명왕릉과 그 주변에서 실로 많은 유적유물들을 찾아냈다.

삽질과 불도젤로 8미터 깊이까지의 시굴과정을 통하여 왕릉앞 210미터 지점에서 돌을 8각으로 쌓은 건축터가 나오고 그것을 기준점으로 하여 룡사

유적의 전모를 드러낸데다가 깨어진 기와장과 질그릇조각들에서 《중승》, 《정릉》, 《릉사》와 같은 술한 글자들이 나온것을 보면 그 절간 이름이 《정릉사》이며 그것이 동명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세운 절간임에 틀림없었다. 게다가 왕릉주변의 흙을 채로 치는 과정에 왕관에 달려있던 장식용 순금, 동보요가 백여개나 발굴되고 머리핀, 관못 같은 유물들이 수없이 나왔으니 누가 감히 이 무덤을 동명왕의 무덤이 아니라고 부정해나서겠는가!

(쓰자! 빨리 발굴보고서를 써서 올리면 어버이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가슴은 이렇게 높뛰면서도 성국은 선뜻 펜을 들지 못하였다. 한것은 왕릉묘실안에서 끝내 벽화를 찾아내지 못했기때문에 간혹 머리를 흔들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때문이었다.

그러나 벽화를 찾기 위해 애써온 지난날들을 돌이켜본 성국은 자기들로서는 할바를 다했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 꺼리낌없이 펜을 들고 《동명왕릉 발굴보고서》라고 큼직하게 표제를 썼다. 그리고는 그밑에 《동명왕릉의 위치와 자연환경》이라고 분제목목을 써나가고있었다.

이럴 때 전화종소리가 울려왔다. 시계를 보니 12시가 가까와오고있었다. 한밤중에 누가 찾아가싶어 펜을 놓고 전화기앞으로 다가가 송수화기를 들었다. 교환수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신다는것이였다. 성국은 두손으로 송수화기를 받쳐들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어버이수령님, 안녕하십니까. 오성국이 전화를 받습니다.》

《수고합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자지 않고있었구만.》

성국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올리었다,

《저는 동명왕릉 발굴보고서를 쓰느라고 자지 않고있습니다.》

《발굴보고서라... 그러니까 벽화도 찾아냈단 말이지요?》

《벽화말입니까?》

성국은 어떻게 말씀드렸으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였다. 그러다가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릴 심산으로 동명왕릉엔 본래부터 벽화가 없었거나 마멸된게 분명한것 같다고 이야기하고나서 이미 발굴된 유적유물만 가지고도 동명왕릉이 옳다는것을 얼마든지 증명할수 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생각에 잠기신듯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니 그를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도 증명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이 동명왕의 무덤이 옳다는것이 증명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벽화가 있을것입니다. 다른 무덤들에서도 벽화가 나왔는데 고구려시조왕의 무덤에 벽화가 없다는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의 풍화작용으로 마멸되었다고해도 그 흔적이 다 지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해하지 말고 그곳 학자선생들과 잘 의논해보고 꼭 벽화를 찾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벽화가 없는 무덤이라고 머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한사람이라도 남아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유적유물가운데서도 기본책을 이루는것이 벽화라는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계시는 수령님이시였다.

성국은 수령님의 그 말씀에 자책감을 금하지 못하였다.

《수령님!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학자들의 지혜를 합쳐서 벽화를 꼭 찾아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찾지 못하면 내가 나가보겠습니다.》

성국은 수령님께서 몸소 나와보시겠다는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조용히 송수화기를 놓은 그는 지체없이 그밤으로 협의회를 열었다. 발굴대의 지휘성원들과 학자들에게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전달하고난 성국은 벽화를 찾아낼 방도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논의는 끝없이 진지하게 벌어졌다. 마을에서 해를 치는 닭울음소리가 두번째 울리고있었으나 협의회는 끝날줄 모르고있었다.

4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동명왕릉앞에 와서 멎어섰다. 수령님께서 《동명왕릉 발굴보고서》를 보시고나서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다가 방금 전에 올라온 개건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친히 현지에 나오신것이다.

차에서 내리신 수령님께서서는 희색 봄외투자락을 날리며 허리에 두손을 얹으시고 동명왕릉과 새로 발굴된 《정릉사》유지를 바라보시였다. 수행원들이 수령님의 뒤에 다가섰다.

박로인과 정순교원 그리고 학생들앞에 서있던 성국을 비롯한 학자들이 급히 달려나가 아버지수령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그이께서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였다.

《그동안 여러 력사학자선생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력사학계에 동명왕릉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많은 유적유물과 함께 벽화까지 나오게 되니 모두들 감탄만 앞세우고있습니다.》

학자들을 대표하여 성국이 대답올리였다.

《그렇습니다. 무덤의 허실을 밝히는데서 벽화가 중요하기때문에 내가 그것을 꼭 찾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현대 없었던 벽화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자못 궁금한듯 성국에게 물으시였다.

다.

《수령님의 교시를 받은 날밤 우리는 모임을 가지고 토론을 거듭하던 끝에 묘실로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말끝지를 땀 성국은 묘실의 내부구조를 세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벽면은 2단의 석재로 되어있고 세번째 단부터는 경사각이 심해지면서 천정부분을 이루고있단 말이지요?》

수령님의 물으심이였다.

《그렇습니다. 묘실에 쓴 석재는 석회암이 기본이고 힘을 많이 받는 푸짱돌과 입구의 이마돌만은 화강암석재를 썼습니다. 그런 각이한 크기를 가진 석재들을 가공하여 정밀하게 쌓았는데 천정 구석쪽 석재짤과 벽체새짤을 메운 석회가 세월이 흘러서인지 밖으로 녹아내리면서 회땀을 한것처럼 붙어있질 않았습니까.》

《회땀을 한것 같더라 말이지요?》

수령님께서서는 회땀이라는 말에 몹시 흥미를 가지고 다급히 물으시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보니 그속에서 뽕꽃모양의 벽화가 나타나질 않았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그 말이 수긍되는듯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만경대에서 물동기와 독에 회땀을 해서 쓰느걸 자주 봤습니다. 어느해 가을에 김치독을 땔 때였습니다. 이미 뺏던자리의 회땀덕지를 뜯을 때 보니 그속에 새겨져있는 독문양이 생생하게 나타나더라 말입니다. 그것을 만져보기까지 한 일이 생각납니다. 아마 그 회땀속에 있던 벽화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원색 그대로 남아있었을것입니다.》

《예, 원색그대로였습니다. 그것을 찾아낸 순간 우리는 소리치며 일싸안고 돌아갔습니다.》

성국은 그때의 환희가 되살아나 젖어오른 두눈을 습쩍이였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동명왕릉 발굴보고서》에 첨부된 원색벽화사진을 보고 환성을 질렀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여러 력사학자선생들이 지혜를 합쳐 발굴사업을 잘해준 덕에 동명왕릉이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성국을 비롯한 력사학자들은 눈굽이 뜨거워졌다.

자신께서 이룩한 모든 공적을 학자들에게 돌려주시는 그 숭고한 뜻이 가슴벅차게 안겨왔기때문이었다.

이윽고 수령님께서서는 《정릉사》쪽으로 눈길을 돌리더니 성국에게 물으시였다.

《저기 돌로 표식되어있는 구역이 〈정릉사〉부지겠구만! 저기에 저렇게 웅장한 건물터가 파묻혀있을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정순선생의 할아버지가 〈릉

사) 유물을 가지고있었기에 〈정릉사〉터를 찾아 낼수 있었습니다.》

성국은 유물을 가지고 자녀교양을 해온 박로인의 애국적소행을 죄다 말씀드리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저으기 흥분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것보시오! 인민들의 가슴속에 민족의 넋이 맥맥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발굴과정을 통해 인민의 가슴속에 넘쳐있는 민족애를 톡톡히 알게 되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시고 확신을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랬을겁니다. 선생을 이곳에 보낼 때 나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번 발굴사업에서의 성과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이 있었기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령님께서 불도젤을 비롯한 기계화수단들까지 보내주시여 발굴대원들이 손로동을 하던 수고를 덜고 8미터 깊이까지 파묻힌 저 유지를 짧은 시일안에 드러낼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니 나도 기쁩니다. 8미터 깊이까지 파묻혀있던 저 유지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수령님께서서는 다시 《정릉사》건물터로 눈길을 돌리며 물으시였다.

《발굴보고서에도 썼지만 저 부지의 총면적은 2만 9천 6백여평방입니다. 그중 확정된 건물터는 18개, 회랑터는 10개나 됩니다. 이 건물터의 중심에 탑을 세우고 세개의 금당을 배치한걸 보면 절간구조가 기원 497년에 평양에 지은 〈금강사〉와 꼭 같습니다.》

묵묵히 듣고계시던 수령님께서 자못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정릉사〉 부지의 총면적이 거의 3만평방이면 대단합니다. 옛날에 〈정릉사〉 가운데 8각탑을 세우고 그걸 중심으로 동쪽에는 동금당, 서쪽에는 서금당, 북쪽에는 중금당을 배치하는 원칙에서 지었으면 이 절간이 고구려의 고유한 1탑3금당식 건물입니다. 내 기억엔 〈금강사〉와만 같은것이 아니라 6세기경에 지은 신라의 〈황룡사〉와 일본의 〈아스카사〉도 〈정릉사〉 처럼 1탑3금당식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조선학자들과 일본학자들도 자기네가 고구려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며 《정릉사》유지끝쪽에 가시여 동명왕릉과 건물터의 위치를 가늠해보시는것이였다.

《〈정릉사〉의 건물터를 보면 중심축이 왕릉의 중심축과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지은것 같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뒤따라온 수원들을 돌아보며 누구

에게라 없이 물으시였다.

건설위원회 한 일군이 대답올렸다.

《저의 소견에는 〈정릉사〉를 왕릉의 중심축과 일직선상에 놓으면 왕릉의 앞을 가리우기때문에 옛날사람들이 그걸 고려해서 한쪽으로 치우쳐 건설한것 같습니다.》

《하긴 그래! 이 구역에서는 왕릉이 기본이지 절간이 기본이 아니니까 절간을 한쪽으로 치우쳐지은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정릉사〉를 재건할 때 지금 발굴된 자리에 그대로 복구하겠는지 연구해보시오. 그리고 〈정릉사〉를 복구해놓은 다음 거기에 유물진렬관을 하나 잘 꾸려놓읍시다. 동명왕릉을 참관하러 온 사람들이 왕릉을 돌아보고 진렬관에 가서 우리 나라 고분들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비롯한 고구려시기의 유적유물들을 실물로 볼수 있게 말입니다. 동명왕릉에 왔다가 그저 무덤이나 한바퀴 돌아보고 가서는 고구려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질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반드시 류의해야 하겠습니까.》

성국은 예지로 빛나는 수령님의 안광을 바라보며 아직은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곳에 미구에 일어 서게 될 불교사원의 위치와 규모를 따져보며 그 리용문제까지 하나하나 일깨워주시는 세심한 가르치심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성국이 아버지수령님을 따라 동명왕릉 제당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좌측건물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빛을 흐리며 물으시였다.

《이건 무슨 건물입니까?》

《시조왕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리조시기에 지은 제당입니다.》

성국의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께서서는 그 건물의 기와며 추녀와 기둥, 벽체들을 다시한번 찬찬히 살피시더니 불쾌한 어조로 지적하시였다.

《제당이 초라합니다. 대고구려시조왕의 제사를 지내던 곳인데 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제당을 리조시기에 지었다고 하는데 그때 봉건관료배들이 사대주의를 하여 그랬는지 돈이 없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의없이 지었습니다.

제당을 좀더 앞으로 내다 다시 짓고 그자리에 개건안에 제기한것처럼 룡문을 세우되 더 크게, 웅장하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웅엄한 맛이 날것입니다.

건설건재대학에서 룡문과 제당을 다시 지을 안을 만들어 제기하도록 하시오. 단청도 옛날맛이나게 잘 입혀서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건설위원회일군이 대답올렸다.

성국은 자기가 주관하다싶이하여 올린 개건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신다는것을 대뜸 알수 있었다.

자기는 역사주의원칙에 의거하여 원상대로 개건하는데만 주의를 돌렸는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는것 같았다. 뭐나 다 크게 웅장하게, 숭엄하게 개건하여 사람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감을 안겨주기 위해 마음쓰시는 수령님이시였다. 룡문 하나만 크게 세워도 대단하다고 생각한 자기의 견해가 얼마나 옹졸했는가를 새삼스럽게 돌이켜보며 그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동명왕룡앞에 이르시여 한동안 말씀이 없이 기단돌과 봉분이며 상돌을 이윽히 바라보시다가 룡앞에 세운 돌양앞으로 다가가며 물으시였다.

《개건안을 보니 거기에도 돌양을 그대로 세웠던데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왜 동명왕룡앞에 돌양을 돌씩이나 세웠는지 리해되지 않습니다. 박사선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국은 수령님께 돌양을 그대로 둔 까닭을 설명해드리였다.

《저는 조상들의 유물을 그대로 두는것이 역사주의원칙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이께서는 가볍게 웃으며 일깨워주시였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보기엔 리조때 이 무덤을 개축하면서 개성에 있는 공민왕룡에 가보고 그 본을 따서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공민왕룡에 돌양을 세운것은 그래도 리해됩니다. 공민왕은 원나라에 가서 살다가 왕이 죽은후 고려로 돌아와서 왕노릇을 한 사람이였습니다. 몽골사람들이 양을 많이 기르고 양고기를 좋아하기때문에 묘앞에 돌양을 만들어세우는 풍습이 있었는데 고려말기에 그 영향을 받아 공민왕룡앞에 돌양을 세웠을것입니다.

그러나 고구려사람들은 양을 기르지 않았고 양고기를 잘 먹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러니 동명왕룡앞에 돌양을 세우는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역사주의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말을 조각하여 세우는것이 역사주의원칙에 맞을것 같습니다.

옛날 고구려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말타기와 활쏘기를 즐겨하였고 싸움도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강대한 나라로 되었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 공도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서 〈주몽〉이라고 하였습니다. 박사선생, 내 말이 옳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동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국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수령님께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것보시오. 그런데 돌양을 세웠으니 동명왕이 얼마나 노여웠겠습니까? 저 양을 치우고 돌말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돌말은 고구려를 상징하는것만큼 좀 크게 만들어세워야 하겠습니까. 가만, 저건 또 무엇입니까?》

수령님께서서는 봉분 한쪽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

는 돌조각을 가리키며 느닷없이 물으시였다.

《그건 돌범입니다.》

성국의 대답에 수령님께서서는 어이없으신듯 웃으시였다.

《그게 어디 범입니까? 저건 삶이나 고양이보다 못합니다. 저 돌범은 범이라고 보아도 다 죽어가는 범 같습니다. 아마 리조봉건통치배들이 술을 마시고 기생놀이나 하다보니 돌범을 너절하게 만들어 세운것 같습니다. 저 돌범도 없애버리고 고구려의 기상을 상징할수 있게 몸통도 크고 꼬리도 길게 잘 만들어세워야겠습니까. 금시 무얼 덮칠것처럼 아가리를 쥔 벌린 사나운 돌범을 기단돌높이만큼 만들어세우되 한쪽에는 수범을 세우고 다른쪽에는 암범을 세우는것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사선생 생각은?…》

《그렇게 하는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고구려의 웅맹과 슬기를 상징하는데는 큰 범이 잘 어울릴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그런 생각까진 못했습니다.》

성국은 오래동안 역사를 연구해오면서도 전혀 가려보지 못한것들을 한순간에 헤아려보시고 역사주의원칙에 맞게 통이 크게 새로운 안을 내놓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수령님께서서는 또다시 걸음을 옮겨 돌조각상을 가리키며 물으시였다.

《박사선생, 묘앞에 서있는 이 조각상은 누구를 형상한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묘를 지키는 문무관들의 조각상 같습니다.》

《문무관들의 조각상이라…》

그이께서는 성국의 말을 길게 곱씹으시며 손가락으로 무관의 어깨를 다독이시였다.

《박사선생, 이 무관과 문관의 모자와 옷차림에 고구려맛이 납니까?》

그 역시 전혀 뜻밖의 질문이였다. 자세히 보니 물으실만한 질문이였다. 문무관의 옷은 리조옷같고 모자는 몽골모자같았다.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했더니 수령님께서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쓰고있는 모자와 옷차림은 고부려식이 아닙니다. 게다가 너절하게 작게 형상해놓으니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왕룡앞에 세우는 돌사람도 품위가 있게 고구려맛이 나게 만들어세워야 합니다. 그리자면 고구려사람들의 키와 얼굴형태, 복장, 무기, 갑옷같은것을 벽화로 잘 고증해서 형상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동명왕룡에 다른 나라의 력사학자들도 많이 와볼수 있는데 그들은 돌조각을 보고 고구려시기의 특성에 맞게 형상하였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인차 판단할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이 석상들을 누구를 형상해서 세우겠는가 하는것입니다

다. 누군지 모르는 석상을 세우는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박사선생,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것이 좋을것 같습니까?》

성국은 그 역시 전혀 뜻밖의 물으심이어서 아무 대답도 올리지 못하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문득 떠오르는것이 있는듯 웃으시며 말씀을 예들려 물으시었다.

《오래동안 역사를 연구해온 선생이니 잘 아실것입니다. 동명왕이 고구려를 세울 때 그를 적극 도와나선 개국공신들이 생각나십니까?》

《네, 생각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고증해서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그제야 어버이수령님의 의도를 알아차린 성국은 《그게 좋겠습니다. 오이, 마리, 부분노, 부위염같은 사람들이 개국공신들이었습니다.》 하고 자기가 아는 이름들을 려거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매우 만족해하시었다.

《웁습니다. 동명왕과 함께 그의 충신들을 내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왕릉앞에 변함없는 충신의 모습으로 서있게 해야 합니다. 한쪽 반렬에는 무관들을 세우고 다른쪽 반렬에는 문관들을 세우고 그옆에 각기 그들이 타는 돌말까지 척 세워놓으면 무덤속의 주인공도 못내 기뻐할겁니다.》

성국을 비롯한 력사학자들과 수원들모두가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보았다. 그도 그럴것이 수백년전에 력사의 갈피속에 깊이 묻혀버린 동명왕의 충신들까지 찾아내시여 그들의 삶을 빛내여주시는 위인의 그 웅심깊은 도량에 탄복해마지 않았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심각한, 그러면서도 근엄하신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셨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동명왕릉을 발굴하고 개건하는 사업은 사대주의자들과 민족허무주의자들에 의하여 잃어버렸던 우리 나라의 유구한 역사를 되찾고 빛내이는 중요한 사업이기때문에 아무리 품이 많이 먹고 돈이 많이 들어도 아깝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동명왕릉은 불품이 없고 한심합니다.

우리는 룡문이나 하나 번듯하게 세워놓는것을 가지고서는 만족할수 없습니다. 돌조각상을 하나세워도 거기에 고구려의 시대상이 풍기게, 조선민족의 얼이 비끼게 세워야 합니다. 고구려가 어떤 나라입니까! 동방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사대주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나라를 세운 고구려시조왕릉을 발굴한 이상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하여 조선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세계만방에 똑똑히 보여주자는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성국은 오늘에야 비로소 수령님의 그 심원한 사상과 의도를 다소나마 깨달은듯싶어 마음속으로 부르짖고있었다.

(아, 우리 수령님은 누구보다 내 나라, 내 민족의

력을 사랑하시기에 한때는 심히 외곡되고 말살된 지난날의 력사를 되찾지 못한것을 그리도 가슴아파하셨고 오늘은 되찾은 그 력사를 세계만방에 빛내이시기 위해 이리도 마음쓰시며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것이 아니라! 이런 위인의 품에 안겼기에 저 무덤속의 동명왕도 전설속의 인물이 아니라 이 나라에 실재한 인물로 찬연히 빛발을 받아안게 된것이 아니겠는가! 아,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오늘의 우리 인민뿐만아니라 대대로 이 강토에 살며 이 나라 력사를 빛내여온 아득히 먼 옛날 조상들까지 한품에 안고계시는 조선민족의 어버이이시구나!)

성국이 이렇게 감동을 금치 못해하고있을 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내 오늘 동명왕릉개건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왔는데 나오길 잘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사선생도 다시 만나보고 많은 문제들을 바로잡았으니 말입니다. 앞으로 동명왕릉을 고구려시조왕릉답게 웅장하게 잘 꾸려봅시다. 이제 <정릉사> 까지 지어놓으면 왕릉이 더 멋있고 숭엄해보일것입니다. 박사선생을 비롯한 여러 학자선생들이 동명왕릉과 관련된 귀중한 력사유적유물들을 발굴해주었기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자기 력사와 문화를 똑똑히 알고 살아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매우 큼니다. 이 왕릉을 더는 부정할수 없게 과학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확증해준 여러분에게 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사선생, 감사합니다.》

성국은 너무도 과분하신 치하에 몸둘바를 몰라하였었다.

《저는 그런 감사를 받을 사람이 못됩니다. 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구실을 못하는 력사학자들의 견해를 놓고 것처럼 마음쓰실 때에야 정신을 차린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묘실의 벽화도 체험으로 찾아내지 못하고 수령님의 가르침을 받고서야 찾게 되었으니 실로 자책되는바가 큼니다.》

《이러지 마시오. 나야 뭐 도와준게 있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학생들이 서있는쪽을 돌아보시면서 《박정순교원이 어데 있습니까?》 하고 물으시었다.

학생들의 뒤에 서있던 정순교원이 달려나와 어버이수령님께

《제가 이곳 고등중학교 교원 박정순입니다.》 하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그를 뜨겁게 포옹해주시었다.

《네가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내 일찌기 동명왕릉문제를 해명해놓지 못해 너에게 그런 일이 생기게 했구나!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너의 할아버지가 <릉사> 유물까지 던져버 렸겠느냐?》

박정순은 솟구쳐오르는 뜨거운 눈물로 볼을 적시며 말씀올렸다.

《아버이수령님! 저는 수령님께서 보살펴주신덕분에 이렇게 새 힘과 용기에 넘쳐 후대교육사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고있습니다.》

박로인이 앞으로 나서며 말씀올렸다.

《아버이수령님! 것처럼 귀중한 〈릉사〉 유물을 던져버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왜 그것을 던져버렸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로인님께서 그것을 고이 간수하고있었기때문에 민족의 자랑찬 역사를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수령님께서 박로인의 손을 잡으며 계속하시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민처럼 훌륭한 인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민들은 모두가 충신들입니다. 로인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대했던 천년대국을 일떠세운 민족의 녀이 로인님의 가슴속에 맥맥히 살아 자식들에게 이어지고 또한 정순선생은 그것을 학생들의 가슴속에 심어주고있습니다. 얼마나 장한 일을 해왔습니까.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심을 바칠줄 아는 이런 인민들을 만날 때가 제일 기쁩니다.》

수령님께서 결에 서있는 정순교원도 함께 꺼안아주시며 말씀을 이으셨다.

《지금 정순이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고있지만 나는 그 얼굴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민족의 전통과 애국의 피줄기가 끝없이 이어질 앞날을 환히 보고있습니다.》

성국은 수령님 말씀 한마디한마디에서 크나큰 충격을 받고있었다.

(아, 얼마나 다심하신 위대한 민족의 아버지이신가! 단군을 원조로 하는 조선민족의 혈통을 후손만대에 이어가시려고 누구보다 마음쓰시며 잃었던 민족의 역사를 기어이 되찾아 빛내여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이시야말로 온 겨레의 칭송을 받으셔야 할 위인이시구나!)

성국이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수령님께서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시어 정순교원의 얼굴에 묻은 눈물자국을 훔쳐주려 하시었다. 그러자 정순교원은 얼른 자기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수령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대견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었다.

《오늘 이렇게 동명왕릉을 찾는데 공로가 있는 여러분들을 다 만나보고 개건안까지 세워놓고보니 정말 생각되는게 많습니다. 무엇보다 기쁜것은 역사의 위조자들에 의하여 잃었던 민족의 역사를 되찾은것입니다. 이 역사를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해 우리 다같이 주체의 역사관에 기초하여 동명왕릉을 고구려시조왕릉답게 훌륭히 개건합시다!》

성국은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고 우렁우렁하진 음성으로 동명왕릉의 개건을 장엄히 선포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을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러보았다.

성국의 눈앞에는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미구하여 웅장하게, 숭엄하게 일떠서게 될 동명왕릉이 환히 그려졌다. 그러자 그토록 거창한 대력사유적을 발굴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이 왕릉을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력사박물관으로 개건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길이 전할 기념비를 세워놓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웠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어려움도 잊고 수령님앞으로 다가서며 청을 드렸다.

《아버이수령님, 한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걸 꼭 풀어주시시오.》

《무슨 소원인데...》

수령님께서 너그럽게 응해주시자 성국은 다시 허리를 약간 굽히며

《머지 않아 동명왕릉이 우리 시대의 대력사박물관으로 개건되겠는데 수령님께서 동명왕릉개건기념비문을 친필로 써주셨으면 하는것이 우리 력사학자들과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고 심중의 말을 아뢰었다.

《동명왕릉개건기념비문이라-》

수령님께서는 말꼬리를 길게 끌며 선뜻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박로인이 한걸음 나서며 말씀올렸다.

《수령님, 그 소원을 꼭 풀어주셔야 합니다.수령님이 아니시였다면 이 왕릉이 어찌 세상에 빛을 뿌릴수 있었겠습니까! 수령님을 우리 배달민족의 아버지로 높이 모시고싶은 우리 마을 로인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니 꼭 써주셔야 합니다.》

수령님께서는 웃으실뿐 여전히 대답을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자 정순선생이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수령님을 우러러보며 응석을 부리듯 아뢰었다.

《할아버지도 말씀했지만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없었더라면 동명왕릉문제는 영원히 역사의 수수께끼로 남아 우리 후대들이 자기 조상도 똑똑히 모르고 살아가게 되었을것입니다. 이걸 생각해서라도 꼭 친필비문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 후손들의 요구이자 우리 민족사의 요구입니다.》

수령님께서는 그제야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고

《후손들의 요구이자 민족사의 요구란 말이 지...》 하며 수원들을 돌아보시었다. 수원들모두의 얼굴에도 그 요구를 풀어주셨으면 하는 기색이 완연하여 하는수 없이 통쾌한 음성으로 응낙하시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쓰도록 합시다!》

일행은 환성을 울리며 수령님께 박수갈채를 보내었고 왕릉주변의 나무숲도 기쁨에 겨워 싸- 설레이는듯싶었다.

하늘의 해도 차마 서산마루를 넘어가기 아쉬운듯 환히 웃으시며 차있는 곳으로 천천히 내려가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앞길에 노을빛을 한껏 뿌려주고있었다.

단결의 중심 친애하는 지도자

랄라이나리부 노엘 하르베이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고
변함없이 자기의 사상을 고수하는
공고한 인민의 제도
이 세상 또 어디에 있으랴

거듭되는 위협에도 굴함이 없이
오직 인민의 복리 위해 싸우시는
정력적인 인민의 지도자
이 세상 또 어디에 찾아볼수 있으랴

세계엔 나라와 권위있는 령도자 많아도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어라

조선의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

가장 위대한 주체사상과
현명한 령도
수령과 인민의 통일단결

이것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중심으로 뭉친
조선의 위대한 모습이나니
그이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노라

(필자는 마다가스까르 음악가임)

인민의 어버이 김정일

레누 라로이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당신은 자주성의 기치를
높이 드신
인류의 구원자
대중의 친근한 벗

당신의 끊임없는 노력은
대중을 고무하고
현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에로
인민을 불러일으키나니
당신께서는
대중을 자주적인 존재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만드시였어라

지평선우에
떠오른 새벽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엄혹한 시련을 맞받아
사대주의를 물리치시고
자주적진로를
밝혀주시였어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당신께서는
사회주의위업을
한몸에 맡아안으시고
인민들의 행복을
꽃피우시기 위해
로고를 아끼지 않으시여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당신께
경의를 표하노라

(필자는 인도 델리종합대학 박사임)

사색속에 계시다

전동우

방금 일을 보시다가
잠시 눈을 붙으신듯
잠간 피로를 푸시려고
눈만 감고 누우신듯
눈을 감고 무엇인가
못다 하신 사색을
이어가고계시는듯...
혼탁한 동서방
헤매는 이 세계에
새로운 조언을
주시려는가,
통일된 련방국가
그날에 계시여
호남벌 아득한
들길을 가시는가,
한평생을 바치시여
주시고 주시고도
모자라시는 마음
인민들에게
보다 큰 락이 되고
기쁨이 되는
무엇인가 더 값높고
더 확고한
해답을 찾으시는가,
아아, **김일성** 동지께선

피로가 깊으신가봐
깨실듯이 깨실듯이
깨실줄을 모르네
문밖에선 구름처럼
수백만 제자들이
가르치심 받으려고
찾아들고있는데...
...아서라, 잠간만
문고리를 놓으라
좀더 몇분만
쉬시게 하라
몇분만 더
위대한 사색을
이어가시게 하라
이제 몇분뒤에는
또다시 귀익은
그이의 음성을,
진리를 밝히는
친근한 육성을,
태양처럼 소박한
그 웃음소리를
온 세계가
듣게 되리니!...

-위대한 수령님의 령전에서-

가사

김정일장군님은 우리의 승리

류동호

혁명의 길 꼭절 많아도 우리 갈길은
장군님만 믿고 따르는 한길뿐이다
그 신념을 안고서 붉은기 날린다
아 **김정일**장군님은 우리의 승리

사회주의 우리의 길에 시련 많아도
장군님만 받들어살면 두렵없어라

신심안고 가는 길 필승의 길이다
아 **김정일**장군님은 우리의 승리

모진 폭풍 밀려온대도 세상 변해도
장군님만 끝까지 따라 우린 가리라
사회주의한길로 조선은 나간다
아 **김정일**장군님은 우리의 승리

기슭 외 1편

김흥권

명절이면 인사를 드리자고
수없이 찾아오는 동포들을 안아들이고
흘러드는 벗들을 맞아들이는
조국땅 한 언저리 정다운 기슭

물결도 자랑스레 철썩이는
예가 아니더냐 지나간 세월
한겨레 한피줄이 기약없이 흘러지던
생리벌의 울음터 수난의 기슭이

저기 날으는 갈매기의 흰 깃은
이 마음 이끌어가는 회고의 돛인듯
즐겁던 내 발길은 어느덧 밟고있구나
서러운 눈물에 젖어들던 그 자옥들을

기슭이여 파도 철썩이는 기슭이여
얼마나 슬펐더냐 무거웠더냐
너를 멀리 떠나가는 그 발걸음들은
못놓고 적시던 그 웃고름들은

보여오는구나 사랑하는 딸을 두고
이역으로 끌려가던 아버지
잠자는 제 동생을 남의 등에 지워놓고
팔려가며 잡아뜯던 그 풀뿌리...

누가 돌아왔느냐 이 기슭에 다시
누가 돌아오지 못하였느냐 이 기슭에 다시
백발이 되어 흠속에 묻히면서도
머리맡에 베고눕던 아 조국의 기슭

묻지 말자 묻지 말자
돌아올 기슭이 없을 때는 지척도 만리

만쪽의 큰 돛도 소용이 없어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저주하던 삶

빙하천리 심해천리 길은 막혀도
돌아올 기슭이 있을 때는 생이 즐거워
고달픈 얼굴에도 웃음은 피고
넋은 자유로이 나래치지 않았더냐

장고를 치고
가야금을 뜯으며 노래를 불렀더라
그네를 매고 보선발로 하늘높이 날아올랐더라
사슬을 끝면서도 철창속에 진달래를 피웠더라

-돌아갈 기슭이 있다!
돌아갈 조국이 있다!
안고 자고
안고 깨는 민족의 궁지여

밭로는 밟을수 없어 가슴에 쓸어안는 기슭
기슭이여 기슭이여 이 땅에 들어서면
크나큰 심장이 있어 우리의 피줄기를 이어주고
거룩한 진리가 있어 넋을 깨우쳐주고
슬기론 담력이 있어
땃땃이 가슴 펴고 세상을 굽어보게 하나니

말하고싶다 말하고싶다
땅은 끝나고 끝나지 않는 기슭
한번 들어서면
크나큰 사랑의 세계
김정일 동지의 품에 안길수 있는
위대한 사회주의조국의 기슭은
영원히 영원히 흥성이리라

얼굴

어머니 나를 불안고
고향의 시내물에 세수를 시켜주던 때부터
수염거친 이날까지
언제 한번 가리운적 있었던가
추우나 더우나
한평생 내놓고 살아온것 얼굴이더라
그것으로 천만사람 마주하고
그것으로 천만가지 말을 하며

하지만 내 미쳐 몰랐더라
검댕이 안묻고 허물이 없어도
어머니조국에 한번 근심을 끼치면
내놓고 다니기 그렇게도 힘든것 얼굴인줄을,
오, 얼굴은
물로만 씻으면 되는것이 아님을
그때 어머니는 알았던가

금방석우에 앉은 옥동자

예로부터 위인이 탄생하거나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에는 여러가지 기상천외한 일들이 먼저 생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지동이 일거나 하늘엔 상서로운 별이 비치고 꽃 나무에 꽃이 일찍 피어나는 등 이상한 조화는 다 나라에 대통운이 틀 조짐을 미리 예고해주는것이라고 하였다.

간악한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망국노의 신세가 된지 몇해가 지난 임자년(1912)의 초봄, 나라안에서는 여러가지 신기한 현상이 생겼다고 한다. 그 가운데는 평양 만경대에서 있는 기이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이해 4월초, 어느날 길가던 로인이 만경대에 들러 샘물터에서 한 녀인에게 물을 청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 녀인은 바가지에 샘물을 정히 떠서 로인에게 두손으로 받쳐주었다.

그것을 받아 시원스레 마신 로인은 바가지를 돌려주며 하는 말이

《내 풍수로 한생을 살아오면서 안다녀본곳이 없는데 보던중 만경대처럼 땅생김새와 나무와 풀이 조화되어 한눈에 일만경치를 볼수 있는 그러한 고장은 처음이요, 만경대는 좌청룡우백호 배산림수한 곳이니 그야말로 명당자리요, 그런데 물맛 또한 이처럼 달고 바람도 고르로우니 필시 여기가 귀인이 내릴 땅이 분명하오.》라고 하였다.

풍수설에서 주산의 왼쪽으로 뻗어나간 산줄기는 좌청룡이라 하고 오른쪽으로 뻗어나간 산줄기를 우백호라 하며 《배산림수》란 말그대로 산을 등지고 물을 마주했다는 뜻이다. 그러니 《좌청룡우백호 배산림수》한곳이란 바로 여기 만경대와 같이 세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있고 앞이 확 트인 고장을 말하는데 이런곳을 명인이 나는 고장으로 일러왔다.

이 말은 그 녀인에 의하여 온 동리에 짙 퍼지었다.

그러던 어느날, 산당집 김보현할아버님께서는 간밤에 꾸신 꿈이 하도 신기하여 식구들에게 꿈이야기를 하시었다. 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던 할아버님께서 흥에 겨워 이야기를 시작하니 식구들은 의아하게 여기면서 귀를 기울이시었다.

할아버님께서는 옛날부터 은은 달에 비기고 금은 해에 비기면서 은금을 보배로 여겨왔는데 지난밤 꿈에 금방석의 옥동자를 보았으니 이 산당집에 해가 뜰 징조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허두를 떼시었다.

금방석이란 말에 식구들은 놀람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겼다.

할아버님께서는 꿈이야기를 하시었다.

...꿈에 할아버님께서는 무저놓은 나무단을 저내려오시려고 어뜩새벽에 만경봉으로 오르시었다.

못별들도 자취를 감추어 날은 퍼그나 어두웠으나 늘썰 다니던 길이어서 할아버님께서는 헛갈리지 않고 오솔길을 따라 한걸음 두걸음 뚫아오르시었다.

할아버님께서 산중턱에 이르시었을 때였다.

갑자기 앞이 환해져서 살펴보니 만경봉우에서 무엇인지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할아버님께서는 웬 영문인지 알수 없어 봉우리를 향해 걸음을 다그치시었다.

봉우리에 올라서보니 만경봉의 넓다란 공지에 대엿자쪽의 둥그런 방석이 놓여있었는데 거기서 눈부신 빛이 뿜어나와 주변을 환하게 비치고있었다.

너무도 신기하여 자세히 살피던 할아버님은 깜짝 놀라셨다. 그것은 금방석이였는데 그우에 림름하게 생긴 옥동자가 점잖게 앉아서 만경대를 굽어보는것이였다.

할아버님께서는 옥동자의 모습이 하도 신기하여 불시에 안아보고싶은 충동이 일어나 두팔을 벌리며 달려나가시었다.

그런데 그만 나무가지에 지게다리가 걸리었다.

할아버님께서는 안간힘을 쓰며 당기셨는데 나무가지가 꺾어지는바람에 무릎방아를 찢게 되시었다.

그러나 옥동자를 잃을가봐 아픔도 잊고 벌떡 일어나보시니 꿈이었던것이다...

다음날 이 꿈이야기를 전해듣고 마을사람들은 그 꿈이 정말 신통하다고 하면서 이제나저제나 산당집에서 울려나울 고고성을 기다렸다.

며칠후 온 동리에 때이르게 살구꽃이 활짝 피어났다. 사람들은 피어나는 꽃을 보며 이고장에 귀인이 내리는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바로 그날 우리 인민이 것처럼 일일천추로 갈망하고 고대하던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탄생하시었다. 그날은 1912년 4월 15일 이른새벽이였다.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고향집사립문을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에서 조선군대를 못하고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항일대전을 선포하시었다.

김보현할아버님께서는 장군님께서 백만관동군을 한손아귀에 거머쥐시고 좌궐파락하시어 인민들에게 광복의 희망을 안겨주신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을 때마다 파시 금방석의 옥동자답게 누리를 밝히는 해님이 되었다는 흐뭇한 생각이 들군하시었다.

그래서 할아버님께서는 말손인 **김일성**장군을 만

나보지 못하는것이 무척 안타까우시였다.

할아버님께서는 왜놈들의 학정속에서도 말손이 반드시 나라를 찾고 집으로 돌아오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꾀꾀하게 살아오시였다.

그러던 어느해 정초,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경대를 떠나신지 열여섯해가 지났을 때였다.

립춘이 지나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만경대의 산과 들에 쌓였던 눈이 일시에 녹아내려 눈석이물이 탕수를 이루었다. 며칠이 지나자 꽃나무들에 움이 트기 시작하였다.

《저 참 조화로군...》

《나라에 무슨 큰 경사가 생기려는 조짐이 아닐가?》

《글쎄말이요, 언젠가 때이르게 살구나무에 꽃이 피더니 우리고장에서 **김일성** 장군님이 탄생하시지 않았소.》

만경대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어느날밤 김보현할아버님께서는 또 이상한 꿈을 꾸시였다. 꿈에 할아버님께서는 왜놈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김일성** 장군이 보고싶으시여 백두산을 향해 길을 떠나셨다.

그런데 하도 먼곳이라 아무리 걸고 걸으시여도 길이 죽나지 않았다.

너무 힘이 들어 길가에 앉아 쉬고있는데 하늘에서 《오호흥!-》 하고 말울음소리가 나더니 난데없는 롱마 한필이 날아내려왔다. 그 롱마는 할아버님 앞에 내리더니 허리를 낮추는것이였다.

할아버님은 얼결에 그 롱마에 올라타시였다. 롱마는 눈깜박할사이에 백두산마루에 가서 내렸다.

때는 저녁이라 사위는 어둡이 깃들었는데 어느한 봉우리우에서 눈부신 빛발이 뿜어나왔다.

할아버님은 그리로 급히 달려가보시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거기엔 열자도 실히 넘을 금방석이 놓여있었는데 그것이 빛을 내뿜는것이였다.

더욱 놀라운것은 금방석우에 립립하게 생긴 옥동자가 앉아서 천하를 굽어보는것이였다.

할아버님께서는 처음보는 옥동자이지만 퍼그나 낫이 익어보여 안아주고싶은 생각이 드시였다.

그래 옥동자에게로 달려가려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안개가 자옴이 피어났다. 그 안개는 옥동자를 감싸안아 그의 모습을 전혀 볼수가 없었다.

할아버님께서 안타까와 한참 찾다가 눈을 뜨시니 꿈이였다. 너무도 이상한 꿈이여서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니 모두 범상한 꿈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는게 확실하다고 하였다.

길한 꿈은 분명한것 같은데 어떤것인지 예측할수는 없었다.

(백두산에서 싸우는 말손에게 무슨 경사가 생긴게 아닐가?)

할아버님께서는 생각할수록 무척 궁금하시였다.

그러던 어느날밤 김보현할아버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깜짝 놀라시였다. 장군별옆에 여적 보지 못했던 새별이 떠있는것이였다.

저 새별은 무엇을 뜻할가?

할아버님께서는 말손이 태어나던 날 하늘에서 별비가 내리던 그때의 광경이 떠올랐다.

그날밤 갑자기 하늘에 별비가 쏟아져내렸다.

너무도 희한한 광경에 할아버님은 《별비다!》하고 환성을 올리시였다. 그런데 내리던 별비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하나의 큰별이 하늘공중에 등실 솟아오르는것이였다.

그 별이 바로 저 장군별이요, 그날 **김일성** 장군님께서 탄생하신것이였다.

그렇다면 누리에 광명을 뿌려주는 저 새별은 무슨 별일까? 할아버님과 만경대사람들은 그후에도 오래동안 그 새로 솟은 새별이 어떤 별인지 알지 못하고있었다.

몇달이 지나 백두산에서부터 항간에 전해진 이야기를 통해서 그 새별이 백두광명성이요, 그날 하늘에서 또 한분의 위인이 백두산에 내리셨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백두산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해 1942년은 정초부터 례년에 없이 혹한이 계속되였는데 2월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날씨가 봄날처럼 푸근해지더니 백두산천지에서 얼음터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었다고 하였다.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얼음이 갈라터지면서 내는 그 소리는 매번 음향이 똑같지 않았는데 어떤 때는 꾸릉꾸릉하는 봄날의 우뢰소리같이 들리기도 하였고 광광 광당당하는 여름철의 천둥소리같이 울리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또 어떤 때는 찌렁찌렁하는 무쇠종소리를 내기도 하였고 쿵쿵 쿵하는 지심을 흔드는 발파소리같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그때 백두산 얼음이 갈라터지면서 솟구쳐오르는 물기둥을 타고 천지의 룡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그때의 기상천외한 일들은 모두 하늘이 낸 성인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김보현할아버님께서는 해방후 만경대를 찾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맞이하시려고서야 바로 그때 하늘에서 내린 성인이 다름아닌 자신의 증손자이심을 아시고 몹시 기뻐하시였다고 한다.

할아버님께서는 어리신 지도자동지를 무릎우에 앉히시고 증손자가 들어오니 방안에 해가 뜬것처럼 환해진다고 하시면서 과시 누리를 밝히는 광명성이 틀림없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짧은 이야기

이런 토막이야기가 있다.

1987년 여름 어느날 한 모임에서는 어느한 공장 지배인이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 문제는 심중히 검토되었고 그 지배인에게 엄격한 처벌이 내리었다.

모임은 오전중에 끝나고 참가자들은 각기 자기초소로 돌아갔다.

그런데 유독 그 방직공장의 녀성초급당비서만은 돌아가지 않고 점심식사도 건느면서 해당 기관의 일군들을 찾아가 만났다.

일군들과 마주앉은 그는 오늘 자기네 지배인에게 내린 처분이 천만번 정당하며 자기도 충분히 접수한다고 말하고나서 그렇지만 그 지배인을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청원하였다.

일군들은 모임에서 신중히 심의하고 결정한 문제인데 달리할수 없다고 하면서 동정할것이 따로있지 그런 문제는 들고다니지 말라고 엄하게 충고하였다. 그리고는 당장 돌아가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물러가지 않고 날이 저물 때까지 일군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면서 처벌에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고 법적제재에도 여러가지 형벌이 있는데 지배인에게 철직이라는 마지막 처벌을 적용하지 말고 소생의 길을 열어주면서 처벌을 주는것이 더 교양적이 아니겠는가고 애원하였다.

그날 그 녀성당비서는 저녁 늦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해당 일군들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지배인문제를 한번만 더 심의하여 상급에 보고해줄것을 거듭 간청하였다.

일군들은 그의 청이 하도 절절하여 일정하게 감정을 표시하면서 토의해보겠다고 대답을 주고 돌려보냈다.

녀성당비서는 온밤을 뜬눈으로 새우고 다음날 아침 다시 해당 기관으로 갔다.

이날은 그 기관의 책임일군이 그를 만나주었다.

나이많은 녀성의 몸으로 때식을 건느고 밤을 새우면서 속을 썩이다보니 그의 입술은 터갈라지고

행색은 초췌하였다.

책임일군은 동정이 가서 왜 고생을 사서 하는가고 하였다.

그는 걱정해주는것은 고맙지만 자기네 지배인이 그 지경으로 된것을 보고 차마 발길을 돌릴수 없다고 하면서 속에 품고있던 말을 또 이야기하였다.

그는 자기네 지배인이 일제때에는 소년로동을 하면서 고생을 하였고 해방후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작업반장, 직장장을 거쳐 지배인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나라의 방직공업을 창설하는데 헌신해온 공로자의 한사람이라는것, 수령님께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파악하시고 아껴오신 일군이라는것, 그러한 그가 공장에 내려온 긴급과제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이번에 처음으로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는것, 자기는 오랜 기간 같이 일해오면서 그가 성실하고 량심적인 일군이라는것을 깊이 파악하고 있기때문에 그를 믿고 보증해나서기로 결심하였다는것, 그가 과오를 범하게 된것은 그를 잘 도와주지 못한 자기에게도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겠으니 지배인에게 처벌은 주되 제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과오를 고치도록 해달라고 울면서 애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지배인을 떼졌으면 저를 폐십시오. 상은 행정일군들이 받고 처벌은 당일군들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배인만 제자리에서 일하게 된다면 저는 어떤 처분도 달게 접수하겠습니다.

우리 지배인은 믿을수 있는 사람이니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

그의 말을 다 듣고난 책임일군은 그를 돌려보냈다.

책임일군은 오래도록 망설이다가 일단 청원이 제기된것만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녀성초급당비서가 자기를 찾아오게 된 전말과 그가 한 청원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었다.

보고를 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번 보신적도 없는 그 낯모를 녀성당비서가 못내 대견

스럽게 여겨지시었다.

오랜 세월 같이 생활하면서 깊이 파악한 혁명동지를 끝까지 믿는 당비서, 실지 사업과정에 동지의 귀중함을 심장으로 체득한 당비서, 자기가 맡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아낄 줄 아는 당비서였다.

크게 감동되신 그이께서는 이런 결론을 주시었다.

《…책임책벌을 받은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사실 그가 범한 결함을 놓고보면 그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주어도 할 말이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방직공장초급당비서를 보아서라도 그의 처벌을 낮추어주는것이 좋겠습니다.

방직공장초급당비서가 녀자인데 꽤먹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으나 내려가지 않고 지배인의 결함은 자기의 결함으로 여기고 자기도 함께 책임지는 럽장에 서서 지배인을 한번 더 용서해줄것을 제기하는 그의 행동은 감동적이고 기록합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이 동무처럼 사람을 믿고 아끼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신께서는 많은 일군들가운데서도 이 동무와 같이 사람을 희생적으로 믿는 그런 진짜배기일군을 제일 사랑하신다고 더 없는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이리하여 그 지배인은 자기자리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던 때로부터 얼마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혁명은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일단 얻은 혁명동지는 끝까지 저버리지 말고 생사고락을 같이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우리 시대의 참다운 일군이다라고 하시면서 과오를 범한 자기 지배인을 보증해나선 그 녀성초급당비서의 소행을 실례로 드시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짝막한 토막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얼마나 큰것이 담겨져있는가.

사람들의 생활주변을 살펴보면 같이 과오를 저지르고도 책임문제가 다른편에 돌아가면 수염을 뺄 내리썰고 모르쇠를 하는 일부 일군들, 평소에는 죽자살자하던 사이였지만 누가 큰 실책이라도 범하여 엄중하게 문제가 제기되면 《이제 보니 믿지 못할 사람이었어.》 하고 한순간에 외면해버리는 일부 사람들… 그러루한 류형의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간혹 있는것이 현실이다.

우의 이야기는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런 일군을 가장 경멸하시며 반면에 함께 일하는 혁명동지를 끝까지 믿고 책임지는 그런 일군을 가장 대견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것을 집약적으로 말해주고있는것이다.

그러니 그이의 한없이 고매한 품모의 일단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를 어찌 한갓 토막이야기라고만 할수 있으랴!

사랑의 손길

신형길

문이 열리고
이 세상 밝은 빛 다 모아 넘치는듯한
당중앙의 그이 계신 방에 들어서니
아, 그이께서 마중나오시며 잡아주신다
나의 이 손도

감격과 행복의 샘물이
가슴가득 차오르고
아이처럼 그이 품에 안겨
두손으로 꼭 잡은 그이의 손길

몸소 의료단을 무어주신 그이

나의 이름도 따듯이 불러주시며
인자하신 미소를 담으시고
다정히 이리시는 **김정일**동지

떠나는 길 멀고멀어도
조국은 아들딸들을 잊지 않는다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라고
언제나 몸 주의하라고

그 믿음 그 사랑 안고
사랑의 그 손길 잡고
천리인들 못가랴

만리인들 지치라

력사의 지름길도 밝혀
승리에로 이끄시는 그 손길
준엄한 시각에
전당 전군 전민을 불러
지구도 들어옴길 크나큰 담력으로
조선의 기상을 펼치신 그 손길

그 손길이
나의 손을 굳게 잡아주신다
나의 어깨를 끌어주신다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의 그 손길이

운명을 함께 하자는 약속으로
위대한 심장의 맥박으로
위훈의 숨결을 이어주시는 손길
한생을 놓지 않고 갈
위대한 사랑의 그 손길

아, 대륙 멀리 가고가도
심장으로 잡고 가는 그 손길
한번 잡아 영생의 숨결을 지닌 우리 삶을
영광의 순간에만 살게 하는
친애하는 그이의 사랑의 손길이어

나의 발걸음

류항모

언제 그 언제부터
달라진 걸음일까
평범하게 포전길 밟던 내 발걸음이
그리도 빨라진것은

수령님을 잃은 비통함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내리던
포전머리의 그밤부터일까
수령님 다녀가신 이 포전에
비바람에 한포기라도 넘어지면 어찌라
새끼줄 정히 늘이던 그 새벽부터일까

커다란 슬픔을 딛고 일어나
두렁길에 매혹을 비벼털며
드날리던 나의 발걸음
이랑이랑 이삭을 따는 손길에 불이 일어
하얗 서둘러지는 나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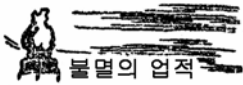
풍년든 가을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아버이수령님 이제라도 오실듯해
서둘러 풍년벌 이랑이랑

이슬방울 먼저 털던 걸음
이제는 습관되어 그런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
배우들 작가들 기자들 보내시여
우리를 고무해주신 그 사랑에 목매여
힘든줄 모르고 뛰는 마음
달려도 달려도 성차지 않아요

수령님 생전에 바라신 뜻
풍년날가리 되어 솟아올라도
아직은 만족을 몰라
이 벌을 안고 달리는 나의 마음

아 나는 살리
이 벌에 찍히는 나의 걸음
그 걸음걸음 더 큰 이삭이 맺혀
래일도 영원히 조국의 기쁨
친애하는 그이의 기쁨 된다면
나는 뛰며 살리 더 뛰며 살리



글을 신념과 량심을 가지고 쓰도록

력사는 이제 곧 21세기로 넘어가게 된다. 세기의 전환적인 계선에 서있는 지금 우리 작가들은 무엇을 생각하고있는가.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끝없이 전도양양한 미래를 가진 우리 문학예술에 대해서이다.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는 투쟁의 길에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게 된것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 창작가들의 가장 큰 자랑이며 행운이다.

오늘 사회주의문학예술혁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는 문학예술에 대한 그이의 령도를 더 잘 받들어나가는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올해 1월말에 하신 말씀은 우리 작가들에게 주신 깊은 충격의 가르치심이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주제설정을 옳바로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창작에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심오한 가르치심을 주신 그이께서는 작가들은 신념과 량심을 가지고 글을 써야 한다는 귀중한 말씀을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은 혁명적 신념과 량심을 가지고 글을 써야 합니다.》

우리 작가들의 량심은 도덕의리적인 사상감정이다. 또한 신념은 혁명적량심에 기초하여 자신이 체득한 사상과 견해에 대한 굳은 믿음과 그것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강한 지향이 결부된 사상의식이라고 할수 있다.

신념과 량심은 일정한 요구실현으로 지향된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신념과 량심은 목적하는 창작사업에 대하여 강한 의욕을 불러일으키며 자기의 온갖 지혜와 힘을 다 바쳐 정력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 작가들에게 자기가 쓰고도 후에 그것이 자기가 쓴 글인지 모르는 작가는 신념과 량심을 가지고 쓰는 작가라고 할수 없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받아안은 순간 창작가들은 깊은 생각에 잠기지 않을수 없었다.

오늘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신념과 량심문제는

주체문학의 운명문제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바로 그때문에 작가들은 항상 우리 사회에 대한 열렬한 옹호의 정신으로 일관되어있어야 한다.

혁명적인 신념과 량심을 지닌 작가만이 사회주의 위업에 이바지하는 작품을 쓸수 있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작품을 진실하게 창작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작가의 량심과 직결되어있는 문제이다. 신념과 량심을 지닌 진실한 작가, 가식과 변심을 모르는 작가만이 진실성이 담보된 훌륭한 작품을 쓸수 있는것이다.

작품은 작가의 사상의식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이 지녀야 할 신념과 량심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작가로 한생을 살려나 순결한 도덕의리적인 감정을 가슴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의 신념화되고 량심화된 충실성의 전통은 오늘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에 대한 매혹으로 승화되어 그 얼마나 빛나게 꽃피어나고있는가.

자나깨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먼저 친애하는 그이를 생각하며 더 좋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순간순간을 충성과 효성으로 이어나가는것을 어길수 없는 삶의 요구로 하는것이 우리 작가들의 진실한 모습이다.

참으로 신념과 량심을 가지고 창작을 하는 작가는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세대와 세대를 넘으며 영원히 살아있는것이다.

작가들의 생각은 더욱더 깊어졌다.

사회주의가 좌절된 일부 나라들의 실태는 작가의 신념과 량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있다. 그들은 자기 수령, 자기 당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창작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일시적인 난관앞에서 주저하고 동요하였으며 나중에는 자기 수령을 배반하는 길로 굴러떨어졌다.

더우기 지금 제국주의와 반동들의 악랄하고도 발악적인 책동이 더욱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의 주체문학앞에는 인민들을 자주위업수행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할 시대적임무가 작가들앞에 절박하게 나서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되새기는 작가들의 마음은 한없는 걱정으로 부풀어올랐다.

지난 시기 신념과 량심을 가지고 충성의 한길을 걸어온 작가들만 보아도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창작한 투사이며 혁명시인인 김혁이 그러했고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창작한 혁명시인 리찬이 그러했다. 열정의 분화구에 올라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창작하여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만방에 터쳐놓은 혁명시인 조기천이 또한 그러했다. 그들은 모두가 불굴의 신념과 의지, 깨끗한 량심을 지닌 투사 작가들이었으니 자기들이 창작한 시대의 명작들과 함께 그들은 오늘도 영생하고있는것이다.

작가들의 마음은 더더욱 감격에 휩싸였다.

작가들의 심정을 헤아리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믿음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며 작가는 자기가 쓴 시를 언제 어디서나 읊을수 있어야 진짜 신념과 량심을 가지고 썼다고 말할수 있으며 또 가사를 한편 써도 자기의 신념과 량심으로 써야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단두대에 올라서서도 이 작품은 내가 로동당시대를 노래하여 쓴 작품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 얼마나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인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받들고 모시는데서는 진심이 중요하다. 진심은 언제 어떤 환경속에서도 가식과 변심이 없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만을 믿고 따르는 혁명적량심이다. 신념과 의리에 기초한 이 혁명적량심은 작가에게 있어서 속일수도 없고 저버릴수도 없는 가장 깨끗한것이어야 한다.

장내는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가들은 단두대에서도 혁명가의 량심을 끝까지 지켜낸 마동희동지의 숭엄한 모범을 따라 시 한편을 써도 혁명적 신념과 량심을 가지고 써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작가들의 머리속에는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그 어려웠던 환경속에서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언정

혁명의 량심을 지켜 굴하지 않고 싸운 마동희동지며 원썩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소리높이 웨친 최희숙동지의 기개가 우렁이 떠올랐다.

이뿐이 아니다.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의 투쟁과 그가 창작한 시가들은 그가 지닌 혁명적수령관이 얼마나 굳센 신념과 깨끗한 량심에 기초하고있는가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있다.

진정 그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차넘쳐있었기에 리인모동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아직 지너본적이 없는 신념과 의지의 화신이 되어 우리 인민들을 한없는 걱정으로 불려 일으키는 헌사와 가사를 창작할수 있었다.

참으로 우리 작가들의 신념과 량심은 바로 혁명적의리에 기초하여 수령만을 따르고 받드는것으로 하여 가장 진실하고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되고있다.

세상에 문학예술이 생겨난이래 하나하나의 새로운 성격형상과 화폭들은 어느것이나 다 작가의 고심어린 탐구와 창조적사색의 결과 이루어진 열매이다. 령도자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간직하고 사색을 량심적으로 하면서 글을 써야 그 작품은 인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다.

지난 시기 우리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라 혁명의 한길을 달려오면서 참다운 작가란 과연 어떤 사람들이며 작가의 일생이란 어떤것으로 되어야 하는가 하는 혁명적인생관을 깊이 체득하였다.

친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는 작가들은 충성으로 불타는 끝없는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기자



《실로 한편의 훌륭한 시나 연극이나 소설이 천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혁명적인 노래는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곳에서도 적의 심장을 꿰뚫을수 있다는것은 항일혁명시기의 문학예술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도달한 진리이다.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는 과정이란 혁명사상에 공명하게 하고 감동시키는 과정이라고도 할수 있을것이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데서 가장 힘있는 수단의 하나로 되는것은 문학과 예술이다.》

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정영호

누를길이 없으라
마냥 솟구치는 눈물
하나하나 설비들을 깎아
새 발전기를 무어갈수록
가슴을 허비며 차오르는 오열

가슴치며
가슴치며 쫓아보는 이들
바로 이들전이였다
새 발전소를 세우자고
쇠물도 비료도 더 많이 생산하자고
낮에 밤을 이어 가르쳐주시던 그날은

바로 이들전이였다
위대한 심장의 고동이 멈춘 그 순간부터
크나큰 믿음을 주시며
휘황한 전망을 펼치시며
그렇듯 간곡한 유혼의 교시를 주신 날은

아, 목이 터지도록 쏟고픈 설분이
흐르는 눈물로
가리워 앞을 가리워
할말을 못찾겠구나
일손마저 헛갈려 향방을 잃겠구나

이들
우리모두 행복한 생활속에
세월의 범상한 날로
시름없이 모르고 맞고 보낸
돌이켜볼수록
한없는 숭엄함과 고결함으로
가슴을 치는 너 하루 또 하루여!

한평생을 인민 위해
세월의 날과 날을 다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
겉쌍이신 파로에도

자신의 한몸을 아니 생각하시고
내 조국의 박동을 더 높뛰게 해주시기 위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마음을 쓰시였구나

어이 눈물을 아니 쏟을수 있으랴
생각할수록
자신이 야속하고 우리모두가 야속해라
통분함이 이 가슴속에서 태질을 해라
우리 수령님 한평생에
기쁨보다 심려를 더 끼쳐드렸구나

견잡을길 없는 눈물이어
너는 슬픔의 분출만이 아니더라
티없는 진정과 깨끗한 의리
눈물은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마음의 정화
천만마디 말보다 굳센
소리없이 다지는 심장의 언약

위대한 수령님 생전에 못다바치여
피롭도록 자리잡은 이 마음의 공간에
넘치도록 바치고픈 충성과 효성
낮에 밤을 이어도 성차지 않아라
몇맥몇천밤을 지낸대도 다할길이 없으라

어버이수령님
생전의 원대한 그 뜻을
하늘땅 끝까지 빛내여가는것이
우리의 의리이며 신념이라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높은 뜻을 끝까지 받들리니

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위대한 헌신을 되새기게 하는
수령님 생애의 그 마지막 하루하루를
백날천날로 가슴에 안고
언제나 그 뜻에 살리라
언제나 그 유혼 빛내가리라

도시사람들

윤영탁

온 농장이 춤을 추는 분배날엔
저 얼굴들을 볼수 없더라
두툼한 분배돈봉투들을 받아안을 땀
저들의 땀이 따로 없더라

아 눈덮인 이 겨울날에도
거름더미요 농쟁기요 활창대요

적재함이 버그러지게 걸어실고
동구길이 미여지게 들어서는 사람들

봄이라 여름이라 수확의 계절이라
때없이 찾아와 농장 일손을 도우며
모내기요 김매기요 가을걷이요
날가리까지 가려주고서야 떠나가더니

누구는 통신대학 등교에
그 어느 작업반은 평양건학에...
온 농장이 한유한 이 농한기에도
저들은 쉬지 않고 마련해 놓았구나

기계화작업반에 늘어갈 세간도
양수기도 모판나래도
농장원들보다 먼저 갖추어 들고
걸음 바빠 찾아오는 도시사람들

언제부터였던가 저들이
우리 농촌과 저리도 친숙해진것은
피눈물 맺히던 소작살이 그 세월엔
도시사람들 보기도 알곶었더라

고등어 몇마리를 들고와서는
양철땀 몇구멍을 메워주고는
올보리쌀쫄은 말박으로 걸어간다고
도시를 눈흘겨 건너다보았더니

해방의 기쁨 넘치던 그날부터는
토지개혁 표말도 함께 박아주고
뜨락또르요 농쟁기요 화학비료요
로가 닳도록 구워내고 버려주는 사람들

오늘은 당일군이요 지배인이요 기술자요
도시에서 한다하는 사람들도
폴물이 들도록 발이랑을 함께 타며
3대혁명의 한길로 우리 걸음 넓혀주나니

아 수령님 생전에 무어주신
내 나라 대가정 농사품을 이해엔 더욱 꽃피워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꼭 관철하자고
거리마다 앞다투며 달려오는 마음들

가을날 분배뭇은 나누지 않아도
농촌제제의 해빛 눈부신 이 땅에서
수령님 바라신 전민소유의 크나큰 살림
우리는 멀지 않아 저들과 함께 받아안으리라

장시

조국과 속삭이는 말

조창제

내가 누구인가
20대에 교복을 입고
대학회장을 단
나는 평범한 대학생

나는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세상을 둘러보며
누구나 다 잘 안다고 말하며 사는
그 사랑의 이야기
내 오늘 말하고싶거니

1

비록 그것이 소박한것일지라도
나에겐 있노라
케도전차에 몸을 싣고
단어외우기에 열중할 때면
정다운 눈길들이 나를 향해 웃음짓는
아침길이

나에겐 있노라
한달에 어김없이 한번씩
깨끗한 내 손에 장학금을 쥐여주는
대학의 창밖은 강의실이,
언제나 날 기다려 아늑한
인민대학습당 열람실
한쪽 구석의 그 한자리가

그렇다
저기 대동강 철교를 건너
기차를 타고 조금 가면
철의 도시 아담한 탑식주택엔
책상유리밑에 내 사진 끼워놓고 기다리는
정깊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고
동평양의 저기 저 공장에선
나를 바래주던 작업반동무들이
내가 쓴 시첩을 돌려보면서
지금도 로동의 구슬땀 흘리고있거니

진정 생활의 이 모든것을
레사롭게 안고사는 여기에
진정한 나의 행복이 있고
서로가 생각하며 생각해주며
정으로만 살줄 아는 이 땅에
남들은 모르는 그런 사랑이 있어라

이런 사랑 지니지 못했다면
그 얼마나 가련하랴
천만 재부우에 누워있어도
진실로 가난한 인생이리

정녕 사람이 부유하면
얼마나 부유하겠는가

남들은 모르는
이런 사랑 지니고 사는 여기에
우리의 부유함이 있고
세상을 굶어보며 사는 자존심이 있어라!

2

쉽지 않아라
사랑한다는것은

내 그 어떤 대가를 바래
이 땅을 사랑하는것이라면
죄를 짓고 사는것이 되리

그렇다면 오, 그렇다면
내 순탄한 길을 걸으며 이것을 알게 됐던가
엄마앞에 투정질 많던 그 시절부터
내 어린 환상의 나라는
그 얼마나 짝없이 우주를 날았던가

탓하지 말아다오
탓하지 말아다오 조국이어!
그대는 내 어린 가슴에
이런 생각의 자유를 빼앗지 않은 유일한 은인
제 민족을 알고
세계를 알고
자기를 다 바치는
아들의 더운 눈물도 받아준 아버지

조용한 열람실 책상앞에 앉아
내 민족이 걸어온 력사의 갈피를
그 얼마나 보물이 일도록 뒤적였던가
남의 나라 왕궁에 제집처럼 뛰어들어
멸시의 칼을 휘두르는 왜적앞에
민족의 피 랑자하던 그 수치의 력사를 두고
내 얼마나 가슴 아파 몸부림쳤던가

그 답답한 가슴 안고
인민대학습당 로대에 나섰을 때
아, 하늘높이 솟아올랐다
주체사상탑의 타오르는 봉화가
가슴에 찌릿이 흘러들었다
오늘 내 민족이 안고사는 이 존엄이
하여 기쁨에 겨워 행복에 겨워
애국의 더운 눈물 떨구었거니

감사하노라 조국이어
그대는 내 맘속의 종아리를 치며
허황한 꿈을 꾸지 않는 아들로 키워주었다
나에게 멀리 보는 밝은 눈을 주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얻었다!

3

옳다
참으로 내 생각이 옳다
나는 사랑할것을 사랑하였다

사랑하는까닭에
너무도 사랑하는까닭에
내 노래 투박해도 걱정하지 않노라
말보다는 후더운 땀으로
바칠 때가 오면 뜨거운 피로
나는 내 조국과 말하고싶노라

그래서 론쟁할 때면 얼굴 붉혀 음성 높아지는
나의 이 드센 승벽도
자주 시원한 국수를 찾는
민족의 이 습성도
영원히 고치지 않으리라
이대로의 나를 조국은 사랑해주기에

하기에 나에겐
불만이란 없노라
시련의 찬바람이
젊은 내 뺨을 후려친대도
나는 결코
머리를 숙이지 않으리라

머리를 높이 들고
걸어도 큰걸음을 옮기리라
조선의 대학생 - 나는
우리 당을 따라 세기를 넘으며
창창한 미래에로 나아가리라

불타라 불타라 심장이
우리의 가슴에 끓는
애국의 이 마음보다
더 큰것 그 어디 있으랴

이 사랑만 있다면
불모래우에도 꽃을 피우고
내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내가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의 대학생이라는
그 말도 뻔뻔이 하며 살수 있거니

바치리라
사랑없인 단 하루도 살수 없는 나의 청춘을
바치리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위대한 이 시대에
그리고 조국의 저 하늘가에
청춘, 그 이름을 불길처럼 새기리라!

이 들길로 영원히 오시리

윤기찬

연백벌 아득한 벼바다
우수수 설레는 소리에도
눈굽 젖어 저 멀리
평양하늘을 바라보는 마음들

우리 수령님
이 들길로 금시 오실것만 같아
오시여 다정히 손잡아주실것만 같아
누구하나 발머리를 떠날줄 모르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마음들

그날에 오셨던 수령님
풍년든 가을날에 또 오시겠다고
뜨거운 약속을 남기신 길
우려려 간절한 연백벌 이 들길

정히 쓸고 또 쓰는 들길우에
마음은 그대로 비단필로 퍼놓고
그이 다너가신 표식비를 쓰다듬으며
들길에 들국화 송이송이 피워가는 마음들

눈시울 적시며 우려른다
벼꽃이 한창 피던 지난해
작황좋은 이 들길에 서시여
그리도 기쁘시여 만족하시여
태양같이 환히 웃으시던
그날의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그 밝은 미소 다시 뵈고싶어

기뻐하신 그 음성 다시 듣고싶어
낮이나 밤이나 못떠나며
철철 무르익은 이삭
차마 따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 가을이 다 가도록
기다려도 기다려도
다시는 다시는 못오시는가
아픈 마음 쓰린 그 마음
하늘땅에 사무치건만

아니다
그이께선 오신다
환히 웃으시던 그날처럼 오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손길따라
높이 더 높이 풍년날가리 쌓아올린
이 들길로 그이는 오신다

가을은 가고
세월은 흘러도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수령님
한생토록 빛내갈 그이의 유혼은
이 땅의 풍년나락이 되어 설레이거니

아, 우리 수령님 이 들길로 오시리
수령님 뜻으로 만풍년 가꾼
이 들길로 영원히 오시리
기다리고 기다리며 모시는 마음
세월도 묻지 못할 이 들길로!

풍년가을

리동후

벌에 언덕에
한껏 떠실렸구나
서느러운 훈풍에 눕실눕실
황금나락 무겁게 설레이는
이 땅의 가을

백학은 이삭의 물결우에 나래를 접고
무슨 생각에 잠겼는가
싱그러운 낱알향기마저
몽클 가슴 젖게 하는

이해의 가을이여

이랑마다 새겨져있는
뜨거운 자욱
포전마다 어려있는 수령님 사랑
못잊어, 가을이 오니 더욱 못잊어
봄에도 오셨던 수령님
풍년가을에 모시고싶은 간절한 소원
이삭마다 무겁게 안고있어라

너의 설레임소리
안타까이 뒤설레는 그 소리에 귀기울이면
이삭들 소슬바람에 소곤소곤
아버이수령님 포전에 모셨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를 못잊어
다정히 속삭이며 전해주누나

령넘어 들지나 멀리
농장마을 찾아오시여
가지가지 농사일
그리도 세심히 의논해주시고
밝은 전망 환히 펼쳐주신 수령님

그 은정 그대로
포기마다 자양으로 솟배여
그 미소 그대로
따사로운 햇빛으로 오탁백과 무르익혀
세상에 처음 보는 대풍을 안아왔거니

찬이슬 어깨에 맞으시며
모판을 돌아보신 농장의 새벽길
무더운 땀별을 한겹 농립모로 가리우시며
산촌의 다락밭, 벌방의 두렁길
자옥자옥 걸고걸으신 길 몇천몇만리

풍년가을 안아오신
아버이 그 영상 어려와
그리움에 목메이는 농장원들
생전에 남기신 수령님의 유훈
대를 이어 이 땅에 꽃피워갈
충효의 한마음

오셨던 그날의 영광을
환희로운 명절로 길이 전하며
풍년계절 안고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버이수령님
영원히 함께 계시거니

주체농법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불멸의 그 자옥우에
세세년년 풍년장훈을 불러
하늘가득 땅가득
영원한 만풍년의 서사시를 새겨가리

인민의 운명 나라의 번영을 담보하는
농사는 천하지대본
수령님 자옥어린 농장마을 분배장에
만풍의 날가리 쌀의 산악을
행복의 기념비로 세워가리

이 가을은

권태여

계절의 단장이 아니다
기쁨의 파도만이 아니다
좌-좌- 밀려오는 이삭의 물결
진정할줄 모르는 이 가을의 목메임이여

독을 터칠듯
엎어질듯
밀려오는 파도 금파도
나더러 묻누나

풍년든 가을날 다시 오시겠다신
아버이 우리 수령님
어이하여 안오시는가고
나더러 조르누나

어쩌면 좋으냐고
어이하면 좋으냐고
발목에 휘감기는 이삭아
네가 나를 울리누나
울어울어 눈물만으론

지울수 없는 슬픔을
한몸에 다 안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천하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뜻 받들어
너와 나 더 힘껏 껴안고 일떠선 가을아

포기포기 키를 솟구며
치렁치렁 이삭을 드리우며
땅을 차고 솟은듯이 펼쳐진 가을아
여문 이삭도 간절히 맺힌 뜨거운 가을아

끝없이 일렁이라
파도쳐 설레이라
이런 가을 열백번 풍년벌을 펼치면
우리 수령님의 기쁨되리니

아 이 가을은
아버이수령님과 함께 가꾼 가을
무너진 하늘을 다시 열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펼치신 가을이여라

력사의 집

-당창건사적관을 찾아서-

최성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이 걸어온 혁명의 길을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켜보고있으며 당의 기치따라 조국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건설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결의에 가득차있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조국과 혁명을 이끄는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며 당의 품은 우리 인민모두가 한생을 맡기고사는 행복의 요람이다.

올해의 창당기념일을 맞는 우리 인민은 그 어느 해보다 생각들이 깊어 우리 당이 걸어온 력사의 자욱을 더듬어보고있다.

장마철도 끝나고 천고마비라고들 하는 계절에 나는 당창건기념관을 찾아 해방산기슭으로 갔다.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지 두달이 훨씬 지났으나 영결의 슬픔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는것이어서 참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더더욱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어려있었다.

우리를 맞이하는 강사동무의 눈에도 눈물이 가랑가랑 고여있었다. 그것이 참관자들과 강사사이의 감정적紐대를 더욱 튼튼히 해주는듯싶었다.

강사는 참관에 들어가기 앞서 사적관의 구성에 대하여 간단한 개괄강의를 해주었다.

사적관의 기본건물은 크지 않은 2층 건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0년 2월 10일과 같은해 10월 11일 두차례에 걸쳐 여기 당창건사적관을 찾으시여 우리 당 력사의 갈피마다에 새겨진 잊지 못할 일들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면서 당창건과 관련된 귀중한 자료들을 고증해주시였다.

정원수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깨끗이 포장된 사적관구획안에는 사적비가 서있고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당창건준비사업을 하실 때 일군들과 함께 계시면서 집무실 겸 숙소로 리용하시던 벽돌집 한채가 그대로 보존되어있다.

우리는 강사동무를 따라 기본청사로 들어갔다. 사적관건물은 외형을 봐도 그렇지만 안에 들어서니 우리 당 창건이라는 위대한 력사가 태동한 곳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소박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래층에 있는 진렬실안으로 들어서자 맨먼저 눈에 안겨오는것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모습이였다.

《토. ㄷ》의 결성-이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주체형의 당창건의 출발점이였으며 바로 이것으로 우리 당의 역년 드림없을 력사적뿌리가 내린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카륜회의에서 기층조직부터 먼저 내올데 대한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신데 이어 김혁, 차광수, 최창걸을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로 첫 당조직인 《건설동지사》를 내오시였고 그 조직을 조선인민혁명군 대오안에는 물론 국내와 동만의 넓은 지역들에로 확대해나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 창건의 조직사상적지반을 튼튼히 축성해오신데 기초하여 해방후 당창건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시였다.

진렬실들에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창건준비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해오신 자료들과 함께 해방후 당창건대회과정을 수록한 회의록이 그대로 보존되어있었다.

근 반세기라는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종이가 누렇게 퇴색된 회의록이였다. 지금도 회의록을 펼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혁명적인 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던 그날의 광경들을 글줄들을 통해 그려볼수 있을것이다.

진렬실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창건이후 종파분자들, 국내의 반동들의 온갖 책동들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면서 당의 정치로선과 조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우리 당을 강화발전시켜오신 자료들도 일목료연하게 전시되어있었다.

나는 진렬실에 걸려있는 《공산당 당원장성도》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당원장성도》는 이렇게 기록하고있었다.

《1945. 10~2,000명

1945. 12~4,530명

1946. 7~276,000명...》

창건된지 1년도 못되는 기간에 2,000명으로부터 근 삼십만으로 늘어난 당대오의 장성률만 놓고봐도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이 얼마나 힘있게 광범한 대중을 자기 주위에 결속시

켰는가를 알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결실이 아니었다. 항일혁명의 간고하고도 장구한 시련속에서 우리 당 창건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그 준비를 힘있게 다그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건국, 건군의 위업과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비롯하여 거대한 사회변혁을 이룩해야 하는 복잡한 속에서 갖 창건된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여오신것이였다.

우리는 력사가 이미 기록한 그 나날의 일들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면서 사적관 2층으로 올라갔다.

강사동무가 안내한 곳은 2층의 북쪽 익측에 위치한 자그마한 음달방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5년 10월부터 그이듬해 6월까지 사업하시던 집무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집무실에서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정권건설을 위한 귀중한 로작들을 집필하시였으며 김책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과 마주하시고 새 조국 건설과 관련한 중대사들도 의논하시였다. 서울신문사 기자를 만나시여 조국통일에 대한 귀중한 말씀을 하신곳도 바로 이 방이였다.

집무실에는 당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용하시던 량수책상과 의자, 전화기들과 탁상일력, 신문철이며 물주전자까지 그대로 놓여있었다. 소박하게 꾸러진 방안이였다. 항일의 불바다를 헤쳐오신 **령장 김일성**장군님께서 바로 저 수수한 의자에 앉으시여 력사적인 로작들을 집필하시고 건당, 건국, 건군 위업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였을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왔다.

강사동무는 이 집무실에 깃든 하나의 가슴뜨거운 사연을 말해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원래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해빛이 잘 드는 넓은 방에 모시려고 했었는데 수령님께서서는 좋은 방을 일군들에게 주시고 굳이 음달진 이 방을 집무실로 사용하시였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두번째로 사용하시던 집무실은 남향방이의 아늑한 방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좋은 방에 모시지 못해 마음 써오던 일군들이 그이께서 한달동안 자리를 뜨신 사이에 집무실을 이 방으로 옮겨놓았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로 옮겨오신 이 방에서 조선로동당창립대회 보고문과 1948년 4월 남북계정당사회단체련석회의 보고문을 작성하시였다. 김구와 리운형을 비롯한 남조선의 인사들도 여기에서 만나주시고 온 나라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우기 위한 불면불휴의 활동도 벌리시였다. 또한 이 방에서 김책동지의 아들을 만나시여 뜨거운 육친의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으며 강

원도 산골에서 머슴을 살던 이름없는 녀인을 만나시여서는 문맹퇴치운동의 불씨를 심어주시였다.

이 집무실과 잇닿아 응접실이 있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방에서 1947년도 신년사를 하시였다. 그이께서 강원도 평강땅의 포수부부를 만나주신 곳도 이 방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 국가, 무력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설계하시고 수많은 일군들과 국내외 인사들을 만나주셔야 하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강땅의 포수부부를 만나시여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우리 나라에 첫 녀성포수가 나왔다고 더없이 대견해하시며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은 그 포수부부는 지난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유격대를 조직하고 잘 싸웠는데 그후 그들이 살던 마을을 녀성포수의 이름으로 부른다고 한다. 이처럼 한없이 뜨겁고 인자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는 평범한 포수도 영웅으로 영생하는것이였다.

우리는 응접실을 나서 회의실로 들어갔다. 기록영화와 력사문헌사진들을 통해 눈에 익은 방이였다. 바로 여기에서 당창립대회가 진행되었던것이다.

회의실 정면벽에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참관자들은 여기서 당창립대회 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육성을 직접 들을수 있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을 직접 들으니 온 회의장이 격동의 도가니로 화했던 그날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듯했다. 끝없이 오르는 환호, 그속에 흐르는 번쩍이는 눈물...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2차,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도 이 방에서 열리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랜 세월이 지난후 여기 사적관을 찾으시고 이 방에 들리시여 이 회의실이 력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당시의 일을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우리는 회의실을 나섰다.

강사동무가 우리를 안내한 곳은 청사에서 조금 떨어진 둔덕우에 자리잡고있는 붉은 벽돌집이였다. 우리들이 이미 출판물들에 실린 사진을 통해 눈에 익혀둔 양옥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당창건준비사업을 하실 때 숙소 겸 집무실 겸 쓰시였다는 바로 그 사적건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용하시던 방은 2층에 있었다. 아래층에는 항일혁명투사들이 들어있던 방과 식당이 있다. 수령님께서서는 1945년 10월 14일 우

리 인민들에게 개선인사를 하신 후 이 집에서 삼촌 어머니를 만나시여 뜨거운 회포를 나누시었다.

강사동무는 이 건물에 깃든 사연을 설명할 때 북받치는 오열을 참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었다. 알고 보니 사연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0년 10월 사적관을 돌아보시면서 다음번에 다시 오시여 이 숙소건물에도 들러보시겠다고 하신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적관 일군들은 이 역사적인 사적건물을 깨끗이 거두어놓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오실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수령님께서 그 약속을 남겨두시고 우리결을 떠나가신 것이었다. 그러니 사적관 일군들의 마음이 어떠하랴. 그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참관자들의 눈에도 뜨거운 것이 고여올랐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사적비를 찾았다. 사적관 청사앞에 위치한 화강암 기념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전하는 글발들과 함께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빛나는 령도로 더욱 강화발전될 주체의 우리 당의 무궁한 미래를 축복하는 글발이 새겨져 있었다.

천연의 화강암에 억년 비바람에도 지워지지 않게

뚜렷이 새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명함에는 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다.

우리 인민은 여기에 사적비를 다듬어 세울 때 뜻이 있어 마지막에 공백을 남겨두었는데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탄생 50돐이 되는 해에 그이의 명함을 새겨넣은 것이다.

그러니 사적비에 새겨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명함에는 그이를 우리 당의 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시고 대를 이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갈 우리 인민의 충효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나는 당창건사적관을 나서며 생각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신 영광스러운 우리 당, 그 성스러운 대오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니 우리당의 앞날은 얼마나 창창한 것인가.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이끄시기에 백전백승의 우리 당은 어찌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세계혁명의 등대로 높이 솟아 빛날 것이다.

가장 위대한 당의 품에 안겨사는 인민의 영광은 끝없다.

당기를 바라보며

강현만

휘날리는 당기를 보라
저 붉은 기폭속에서
금지로운 우리 모습으로
밝게 빛나는 금빛 붓!

잠간 상상해보라
만약 저 붓을 감싸안아줄 붉은 기폭
그것이
그것이 없다고 상상해보라

그러면 아, 그러면 정말이지
빛을 잃은 저 붓
먼지끼 당반우에 나뒹굴다
꺾이여
깃뒹혀
오물장에 내버려지고 말게다

상상속에서만이 아니라
머리를 돌려보라

그런 붓이
저기 눈아프게 밝혀오지 않느냐

들고 나가던 붉은기
배신의 화염에 한줄재로 날려
의지할 한조박의 기폭마저 다 잃고
매문의 버루에 눈물로 갈며
문드러진 필로 운명의 비극을 엮어
가는
검은 하늘밑의 저 가련한 문필가

그 정상 눈에 밝혀들수록
붉은 기폭에 휩싸여
영원히 금빛 붓으로 사는 우리의 행
복
가슴 터질듯 부풀어오르고

그럴수록
영원한 동행자의 발걸음으로

충실한 방조자의 힘과 지혜로
훌륭한 조연자의 목소리로
순간을 살고 한생을 사는 당의 문필
전사 우리
일권단심으로 빚어진
마음속 신념의 바위우에 올라
진리의 노래 높이 부르나니

-그 품을 떠나선 못살아
그 품을 떠나선 못살아
...

오, 태양의 품에서 떨어져나간 별찌
종말의 꼬리를 아츠럽게 끄며
보잘것 없는 돌덩이로 되고 말듯이
붉은 기폭을 떠나선 금빛 붓이란 없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품을 떠나
우리란 있을수 없다!

명제해설

《시문학은 일찌기 가요예술에서 발생하면서 처음부터 음악성을 고유한 속성으로 삼아왔다. 음악이 생활의 노래라면 시도 생활의 노래라고 말할수 있다.》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명제에서 시문학의 시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깊이있는 통찰에 기초하시여 음악성이 시문학의 고유한 속성이라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인류문학예술의 발전력사를 놓고보면 시문학이라는 형태자체가 가요예술에서 발생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시문학이 음악성을 자기 고유의 속성으로 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음악이 생활의 노래라면 시도 역시 생활의 노래라고 말할수 있다.

시에서는 정제된 아름다운 운률을 타고 서정이 흘러가며 시어와 시구가 음악적률동과 박자에 맞게 맞물려진다.

우리가 시를 읊을 때 마치 노래를 부를 때처럼 박자와 리듬을 느끼게 되며 자연히 시의 서정에 끌리워 흥취되는것은 바로 시문학이 음악성을 고유한 속성으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음악적인 풍만한 정서와 아름다운 음향, 치밀하게 다듬어진 룰동미로 하여 시는 그대로 글로 씌어진 음악으로 되는것이다.

시가 산문화되면 고유한 속성인 음악성을 살리지 못하게 된다. 음악성이 시문학의 고유한 속성으로 된다는것은 운문의 기본속성이라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시가 산문화되면 음악성을 살리지 못하게 되며 음악성이 없는 시는 고유한 의미에서 시가 아니다.

시에 음악성이 있어야 들으면 곧 따라부르고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좋은 노래처럼 소리내여 읊거나 외우고싶은 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시에는 음악성, 다시말하여 우아하고 정가롭고 류창한 맛이 있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문학의 고유한 속성으로서의 음악성은 내용과 형식의 두 측면에서 다같이 잘 살릴데 대하여 밝혀주시고 미학실천적방도들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아름답고 풍만한 서정이 시문학의 음악성을 담보하는 내용이라면 운률은 그 음악성을 살리는 형식이라고 말할수있다. 따라서 시문학의 음악성을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서정이 풍만해야 하며 그 서정은 곧 운률에 의하여 담보되어야 한다.

서정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이여의 문학예술 작품에도 있다. 우리는 소설의 어느 한 감동적인 대목을 읽으며 깊은 서정을 느끼거나 한쪽의 그림을 보고도 서정세계에 잠기게 되는 때가 있다.

시의 서정은 바로 운률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다른 문학작품의 서정과 구별된다. 시에 운률이 없으면 음악성도 없어지며 음악성이 없는 정서는 시의 서정으로 될수 없다. 그러므로 시창작에서는 운률을 잘 살리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이다.

시의 운률은 단순히 글자수나 맞추고 시조를 적당히 끊어놓는것으로써 살아나는것이 아니다. 산문을 토막쳐놓은것 같은것은 운률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운률이라는 형식만을 취한것으로서 시의 고유한 속성인 음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시의 음악성을 담보하는 형식으로서의 참다운 운률은 생활에 대한 시인의 정서적체험이 뜨겁고 그로부터 탐구된 시의 정서적내용이 고도로 양양된 때만이 참답게 조성될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흥분하고 열정이 북받칠때에야 보통 감정상태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심장의 박동과 호흡을 느끼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의 서정도 고도로 양양된것이라야 운률과 자연스럽게 어울릴수 있다.

우리 시대와 인간, 생활에 대한 뜨거운 공감과 정서적체험이 없이는 아무리 글자수를 맞추고 시조를 조절하여도 운률이 아니라 기계적인 반복밖에 나올것이 없다. 이러한 현상은 시창작에서 일종의 형식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수 있다.

서정은 탐구하지 않고 무엇인가 자꾸 설명하려고 할 때에는 서술식문장이 람발되고 그에 따라 운률이 파괴된다. 이렇게 되면 시의 음악성을 살리지 못하게 된다.

우리 시인들은 시문학의 음악성을 살리는것이 오늘 우리 시문학의 새로운 현실적발전을 위하여 초미의 문제로 나선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시의 내용과 형식에서 음악성을 잘 구현해나가야 할것이다.

고요한 저녁에

로종익

서서히 기울어지던 갈구리달도 어느덧 만인령을 넘었다. 삼라만상은 칠칠 드리운 어두운 장막속에 묻혔다.

한기수는 넓다란 책상우에 마주잡은 손을 올려놓고 홀로 앉아있었다. 그는 오늘 새로 부임된 젊은 당일군에게 군당책임비서 사업을 인계했다. 방금 마지막 회포를 나누려고 모여앉아 지나간 나날들을 감회깊게 더듬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군당집행위원들도 떠나갔다. 오늘날은 이 방에 혼자 남아있고싶은 그의 심정을 헤아린듯 신입책임비서도 먼저 퇴근하였다.

방안은 적막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지루하게 이어지는 고요는 한기수에게 시대는 짧아지고있지만 너는 늙었다고 슬그머니 귀뜸하는것 같았다. 돌이켜보면 흘러간 한생은 벽찬 교향시 한곡을 감상하듯 너무도 짧았다.

한기수는 책상우에 펼쳐진채 놓여있는 사업일지를 내려다보았다. 더는 사업일지에 기록할 일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일지를 덮어놓고싶지는 않았다. 군당책임비서 사업이 쉽없이 이어지게 하고 싶었다.

한기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겼다. 의족을 한 왼다리에서 울리는 빠거덕소리가 방안에 짙게 드리운 침묵을 깨뜨렸다. 한걸음 또 한걸음을 무겁게 옮기던 한기수는 출입문앞에 이르러 문고리를 쥐고 저도 모르게 뒤로 돌아섰다.

넓다란 랑수책상, 긴 앞상, 한쪽벽을 채운 서류함, 책장, 옷걸개판, 그 옷벽에 걸려있는 군 지형도, 이 방의 모든것은 긴긴 28년동안 한기수의 손때가 묻은것이였다. 그는 지금 군당책임비서 방에서 영원히 떠나지만 아무런 애용품도 가지고 가고싶지 않았다. 두개의 책장을 채운 책들, 지어 한보루의 담배에서 세갑만 피우고 남긴것마저 사물함에 그냥 두었다. 새로 온 군당책임비서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집행에서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고싶어서였다.

한기수는 전등스위치를 켜다.

정문앞에는 록색승용차가 서있었다. 승용차는 의족을 한 영예군인인 한기수의 발을 대신한 기동수단이었다. 군내 각지로 데려다주던 승용차였건만 지금은 그 승용차와도 헤어져야 했다. 자기 사업을 몸가짜이에서 도와준 사람은 이 승용차 운전사였다. 군당책임비서로 부임될 때 스물네살이던 운전사도 어언 선두살이 되었다. 참으로 미더운 동무였다. 지금 그 운전사가 승용차결에 서있었다.

운전사는 차문을 열었다.

《책임비서동지...》

운전사의 목소리는 갈리였는데 끝내 말을 잊지 못했다.

《철근동무, 그간 수고가 많았소... 앞으로도 사고없이 운전해주길 바라오...》

운전사의 등에 손을 얹은 한기수는 할말이 많았으나 이렇게 부탁하고 걸음을 옮겼다.

《타십시오.》

《고맙소. 오늘은 어쩐지 걸고싶구만...》

《...》

떠나는 한기수도 남아있는 운전사도 눈에는 더운것이 그득 고였다.

한기수는 밤거리에 나섰다.

어떤 집 창문에는 텔레비죤화면빛이 퍼렇게 어리고 어떤 창문에서는 노래소리가 흘러나오고 또 어떤 창문에서는 웃음소리가 랑랑하게 울리고있었다. 참으로 벽차고 행복한 밤, 보람찬 삶이 약동하는 밤이었다.

한기수는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겼다. 돌이켜보면 누구나 부러워할만한 삶을 자기가 누려왔다고 자부하게 되는것이였다.

한기수가 이 읍에 첫자국을 찍을 때만 해도 혈기왕성한 젊은시절이었다.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복중의 행복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을 통채로 받아안은것만 같은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뵈는 기회조차 잘 차려지지 않을것이였다. 이밤 피로움중에서도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피로움이였다.

언제나 손님들이 와있어서 조용치 않던 집에도 정적이 깃들었다. 안해는 서글픈 늙음을 안고 오는 한기수를 위안하렘인지 록음기의 명랑한 노래로 《영접》하는것이였다. 한기수는 안해한테 흐린 얼굴을 보이지 말자고 일부러 입가에 미소를 그렸다.

《여보!》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안해가 그리워져서 한기수는 정이 폭폭 들도록 살뜰하게 불렀다. 잠시도 휴식을 모르던 지난날에는 이렇듯 친절하게 불러보지 못했다. 그저 집은 두번째 사무실이였고 안해는 자기 사업을 도와주는 길동무로만 여겨왔었다. 그래서인지 안해에게는 《서관책임자》라는 듣기 좋은 별호도 붙어있었다.

그런데 오늘저녁엔 《서관책임자》로서 《영접》할 손님 한명도 없었다. 노상 웃고 떠들어대던

집에도 방금 떠났던 책임비서실처럼 참기 어려운 고요가 깃들었다.

현판문을 열고 나온 안해가 몸을 부축여주었다. 키가 크고 몸이 보기 좋게 난 안해, 아직은 젊었을 때처럼 동그스름한 얼굴에 눈은 억실억실하고 입술엔 늘 미소가 피어있는 안해였다. 다리를 저는 영예군인의 지팡이가 되겠다고 머리에 월계꽃을 엮고 시집을 온 로동당원이었다.

《그간 힘들었지요?》

《아니, 행복했소!》

《행복은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차례지는거지요.》

《당신은 철학자갈구만.》

《당신이라 불러줄 때가 있긴 있구만요. 이제부터는 간호원안해구실을 더 잘하겠어요.》

한기수는 앓을데 설대를 알고 상대방의 심리를 예리하게 관찰할줄 아는 안해에 대한 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것 같아서 고맙다는 표시로 손을 짹 쥐었다. 약혼시절에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손을 잡아 보던 이상아랫한 감정이 되살아나는것 같았다.

《저도 오늘 마지막퇴근을 했어요.》

《허, 그러고보니 우리는 군에 와서 한날한시에 출근하고 한날한시에 퇴근했구려.》

군당책임비서 28년!

재봉공 28년

만근!

이것이 이들 부부의 인생총화였다.

《이제부터 삶의 공백을 어떻게 메운다?》

《오늘 평양 만이가 당신이 여생을 심심치 않게 지내라고 낚시대를 보냈더군요. 이제부터 낚시질이 나 하세요. 당신에겐 매일 낚시질할 자격이 있어요. 저는 돼지 한마리를 더 기르겠어요.》

《허허, 당신은 안해가 아니라 고문이군.》

《그렇게 믿어준다면 오늘부터 세대주를 바꾸지요.》

《그러지 않아도 세대주야 당신이었지.》

그랬다. 몸이 불편한 한기수는 지금껏 마당비 한번 들어본 일이 없었다. 집안일이건 바깥일이건 다 안해 윤은금이가 맡아하였다. 더구나 한기수는 사업에 다몰리우다보니 가정일에 신경을 쓸 여유조차 없었다. 하여 가정을 이루었을 때부터 《세대주》는 윤은금이였다.

한기수는 아래방에 내려왔다. 벽에는 두벌의 옷이 옷걸개에 나란히 걸려있었다. 한기수의 양복과 윤은금의 치마저고리였다. 한기수의 옷에는 어깨에서부터 옆주머니에 이르기까지 각종 훈장과 메달이 틈없이 달려있었다. 맨우에는 《김일성훈장》, 그 아래에 석줄로 달려있는 훈장과 메달이 눈이 부시도록 번쩍이고있었다.

한기수는 《김일성훈장》에서 시선을 땔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김일성훈장》을 달

아주실때 그만 그이의 손등에 눈물을 떨구던 일을 잊을수 없었다.

한기수의 눈앞에는 인자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이 떠올랐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뵈온것은 씨불임이 한창이던 이른봄날이었다.

이날 한기수는 읍에서 삼십리 상거한 련보협동농장 령상모판에 있었다. 오전 한섭을 쉬고 령상모판에 씨를 뿌릴 때였다.

리당부비서가 가쁜 숨을 툴으며 달려나왔다.

《책임비서동지, 전화가 왔는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군에 오셨답니다. 현장에 있는 책임비서동지를 만나보고싶다고 하시며 떠나시였답니다.》

《그게 정말이요?!》

가장 환희로운 순간이 바투 다가오고있으나 한기수는 어쨌으면 좋을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그는 한참이나 서서 마을쪽을 보다가 불편한 다리를 옮겼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로 달리는 마음은 불같았지만 그는 뿔수 없었다. 그이를 만나뵈게 되다는 기쁨은 더할나위없이 커서 가슴은 설레였으나 자기의 불편한 몸을 드러내면 그이께서 근심하실것만 같아 괴롭기도 했다. 큰길까지 채 이르지 못했는데 어느덧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신 그이께서 길 아닌 논판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해안에 영예군인 군당책임비서가 있는데 일을 잘한다고 늘 칭찬하시였습니다. 그 책임비서동무를 이렇게 포전에서 만나니 참으로 기쁩니다.》

그이의 따뜻한 눈빛은 온몸을 어루만지다가 약간 꺾인채 부자연스럽게 땅우에 닿아있는 의족에 와서 멎었다. 미소를 견으신 그이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피가 통하지 않는 의족을 잡으시였다.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갈리신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힘들지요?》

《예.》

얼굴에 이렇게 대답해놓고보니 한기수는 그이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자책이 삼시에 갈마들었다. 왜 쟁쟁한 목소리로 힘들지 않다고 대답올리지 못했는가. 한기수는 뒤늦게야 자신을 꾸짖었다.

《의족한 다리로 포전길을 걷자니 남보다 곱절이나 힘들겁니다. 그래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한기수는 너무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라며 담찬 목소리로 대답올렸다. 하였으나 그이께서는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논두렁을 넘을 때마다 한기수의 겨드랑이를 끼고 부축여주시였다. 한기수는 친아버지의 품에 안긴듯싶어 눈곱이 뜨거웠으나 부담만 끼쳐드리는것 같아 황송하기 그지없었다.

그이께서는 점심끼니도 번지시며 포전도 돌아보시고 농장원들과 마주앉으시여담화도 하시다가 오후 4시에야 귀로에 오르시였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찌하랴.

한기수는 의족이 평탄한 땅에 닿지 않은줄도 모르고 오른다리를 옮기려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그자리에 툭썩 주저앉았다. 한기수는 자기의 물골을 그이께서 보시기전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어느덧 그의 손길이 미쳐왔다.

《어디 다치지 않았습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지내 흥분했는가봅니다. 아픈데는 없습니다.》

또다시 심려를 끼쳐드린 죄책감이 가슴을 비트는 것만 같아 한기수는 고개를 들수 없었다.

《아픈데 없더니 다행입니다. 어서 잡시다.》

그이께서는 더는 놓아주지 않을 작정으로 한기수의 겨드랑이를 끼고 걸으시었다.

승용차행렬은 포전을 떠났다.

분에 넘치게도 한기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나란히 앉은 영광을 지니었다.

봄빛이 짙어가는 백리벌에서는 씨뿌리기가 한창이었다. 승용차행렬이 그들곁에 가면 남자들은 모자를 벗어취고 흔들고 녀자들은 머리수건을 펄펄 날리는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시었다.

《동무가 농장에 나온지 며칠이 됩니까?》

《사흘이 됩니다. 련보협동농장 씨뿌리기가 처졌기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 바로잡았습니까?》

《오늘부터 실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동무가 당이 바라는데로 항일유격대식으로 사업했기때문에 거둔 성과입니다. 나는 오늘 불편한 몸인데도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는 동무의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정한 미소를 그리시며 아까 주저앉은 실수로 하여 우울해진 한기수를 위로해주시었다.

그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기수를 숙소에까지 데리고가시었다.

수행하던 간부들이 동그런 식탁에 모여있을 때 그이께서는 한기수를 부르시었다.

《책임비서동무, 이리 오시오. 오늘의 주인공은 동무입니다. 내곁에서 함께 식사합시다.》

그이께서는 친어머니심정으로 수저도 쥐여주시고 반찬접시도 가까이에 밀어놓으시었다.

《내 오늘 보니 제일 근심되는것이 동무의 건강입니다. 동무에게서 제일 약한 고리가 건강입니다. 군대에서는 련대장이 실전가이지만 군에서는 책임비서가 실전가입니다. 실전가의 임무를 수행하자면 건강해야겠는데 동무는 영예군인이여서 근심스럽습니다. 동무가 건강해야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점심식사가 늦어서 시장하겠습니다. 천천히 많이 드시오.》

그날밤에도 그 이튿날 밤에도 한기수는 잠들수 없었다. 받아안은 사랑에 비하면 올리는 효성이 두렵지 못한 죄책감이 가슴을 부여잡고 놓지를 앓아

서였다. 더 많은 일을 하여 그이께 기쁨을 드리자고 속으로 다짐했으나 한기수의 효성에는 틈이 많아서 심려를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

언젠가 그이께서 몹시 노하신 일도 있었다.

중앙에서 주요기념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던 한기수는 그만 감기에 걸렸다.

한기수는 행사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도당에 보고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옆에 병든 몸을 세울수 없어서였다. 이렇게 하는것이 자식된 도리이며 그이를 받들어모시는 효성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날밤 전화기에서는 류달리 경쾌한 호출신호가 울리었다. 교환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전화를 걸어오신다고 알려주었다.

한기수는 송수화기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임비서 한기수 전화받습니다.》

《...코소리가 나는걸 보니 감기에 걸린것이 분명하구만. 감기에 걸린지 며칠 됩니까?》

《이틀째입니다.》

《그렇다- 물론 나를 위해주는 동무의 심정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심은 결코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무는 지금 감기에 걸렸으나 출근하고있습니다. 그래 군중과 접촉할수는 있으나 내결에는 못서겠다는겁니까? 한시바삐 감기를 털어버릴 대책을 취해야 합니다. 스물한살 중대장으로 전쟁에 참가했던 싸움군이 감기한테 지다니 말이 됩니까? 래일 당장 올라오시오. 아직 행사날까지는 이삼일 여유가 있으니 중앙병원에 입원하여 병을 고쳐야겠습니다.》

전화는 끝났으나 한기수는 송수화기를 든채 놓지 못하였다. 자기의 효성에는 바닥이 있지만 그의 사랑에는 정녕 끝이 없으시었다. 우주를 통채로 안겨준다 해도 그의 사랑에 비길수는 없었다.

하여 한기수는 건강한 몸으로 행사에 참가했다.

한기수는 류다른 사연이 깃든 국기훈장 제1급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 국기훈장 제1급을 받던날 한기수는 도당전원회의에 참가했었다. 오전 회의가 결속될무렵 급히 어데론가 나갔던 도당책임비서가 한기수를 불렀다.

《오늘이 동무의 환갑날입니까?》

《예.》

한기수는 회의가 끝난후 도당책임비서를 초청하고 했는데 어떻게 벌써 알고있는지 의문스러웠다.

《우리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까?》

《동무네 집에서가 아니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전화를 걸어오시였습니다.》

《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동무가 도당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는것을 료해하시고 오후에는 집에 내보내여 환갑상을 받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

흘러가는 분분초초를 쫓겨여 쓰시는 그이께서 자그마한 군의 평범한 당일군인 자기를 이렇게까지 보살펴주시다니?! 한기수의 눈에서는 뜨거운것이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그날저녁 도당책임비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이 깃든 국기훈장 제1급을 가슴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그이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였다.

《한기수동무는 25년간 군당책임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간 불편한 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가 군당책임비서 사업을 잘할수 있도록 우리 더 잘 도와줍시다.》

한기수는 오늘 군당책임비서 28년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졸업》했던것이였다.

한기수는 자기의 옷걸에 걸려있는 안해의 치마저고리에 눈길을 돌렸다. 자기의 옷에는 훈장들이 빛나고있으나 안해의 옷에는 공로메달 하나도 없었다. 실로 놀라운 대조였다.

28년간이나 군당책임비서 사업을 하면서 수천수만명의 당원들과 수훈자들을 냈으나 안해한테는 공로메달 하나 차례지는것도 바라지 않았다.

윤은금의 전직은 사무원이였다. 부기와 통계계산에 여간 밝지 않았다.

하지만 한기수는 군당책임비서로 부임한 직후 당의 뜻을 받들고 몇달씩이나 군내 형편을 료해한다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고심하며 애쓰던 끝에 안해를 종합상점아래 리용가공반안의 재봉공으로 일하도록 하였던것이다. 그들은 더이상 좋은 직업을 몰랐다.

그때로부터 윤은금은 28년동안 재봉공으로 만군을 해왔다. 무엇인가 군안의 인민생활을 보탬하고자 같은 자재를 가지고도 수요와 나이, 기호에 맞는 갖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내놓았다. 자투리천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옷과 장식품을 무려 만여점이나 만들어 매대를 장식하였다. 그 금액만도 수십만원을 헤아렸다. 해마다 돼지 한마리씩 길러 주요건설장과 인민군부대들에 무상으로 원호하였다.

한기수는 매달 영예군인으로서 국가에서 받는 사회보장년금을 한푼도 쓰지 않고 저금했다가 광복거리 건설장에 기증했다. 언젠가 윤은금의 수훈문건이 책임비서실에 왔을 때 한기수는 그걸 슬그머니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던 생각이 났다. 술한 솜은 영웅들을 발굴하여 내세웠으나 안해의 공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여보, 당신의 옷에는 훈장 하나 없구만.》

안해는 아무런 내색도 없이 밝게 웃고있지만 한기수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사람과의 사업에서 당신만은 제외시킨것이 내 실책인것 같소.》

《잘한거예요. 그랬기때문에 군당책임비서 사업을 잘할수 있었던거예요. 제가 바라는것은 그뿐이었어요.》

정말 안해의 마음은 웅심이 깊었다. 년로보장으로 집에 들어왔으나 돼지 한마리를 더 넣어 해마다 두마리의 돼지를 인민군대에 원호하겠다는 안해였다. 그런데 나는 아들이 보내준 낚시대를 들고 여생을 보낸다?… 아니다. 그럴수는 없었다. 나머지 힘을 사회에 바치고싶었다. 지난 기간엔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지도받는 위치에서 일하고싶었다. 그는 며칠전부터 이 생각을 무르익혀왔었다. 영예군인공장에 나가서 비닐가방단추 한개라도 만들 결심이었다. 한기수는 그 결심을 안해한테 비쳤다.

《여보, 당신은 돼지를 기르는데 나는 무슨 일을 한다?》

《말이가 〈일감〉을 주지 않았어요.》

《그건 싫소. 난 영예군인공장에 출근하자고 하요. 어땡소?》

《찬성할수 없군요.》

《왜?》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몸으로...》

《하긴 그렇군. 그럼 우리 공장곁에 집을 옮기는게 어땡소?》

한기수는 안해의 무릎위에 놓인 손을 덥석 잡으며 자기의 명안대로 하자는 뜻을 표했다.

《이 집에서 떠날수야 없지 않아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선물로 주신 집인데... 당신이 살기 편리하게 문턱도 낮추고 토방에도 계단을 만든...》

《그렇지!》

《가까이에 출근할 자리를 선택해보세요.》

《생각해보지요.》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텔레비죤화면도 꺼진지 오래고 오가는 차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사위는 쥐죽은듯 고요했다.

그 고요를 깨뜨리는 승용차의 경적이 경쾌하게 울리였다. 귀에 익은 책임비서의 승용차 경적은 아니였다. 지나가는 승용차도 아닌것 같아 밖으로 나가 윤은금은 뜻밖에 찾아온 손님 두분을 방에 안내하였다.

《한기수동무니까?》

《예.》

손님들은 자기들을 소개하였다. 한사람은 당중앙위원회 일군이요 다른 한사람은 중앙인민위원회일군이였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시여 왔습니다.》

《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요?!》

한기수는 그만 눈을 크게 뜬채 굳어졌다.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량팔굽을 잡으신채 줄곧 집무실 책상둘레를 걸으시였다. 그의 눈앞에서 보통기에 이목구비가 흰칠한 한기수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방금 그가 군당책임비서 사업을 인계했다는 보고를 받으시였다.

얼마전에 그이께서는 한기수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해임문건을 보시였다. 당사업을 성실하게 해온 원칙만을 아는 당일군이였다. 한기수는 군안의 인민들이 깊이 믿고 따르는 일군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기수가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에 이끌려 당일군으로서의 첫걸음을 떼였던 사실을 상기하시자 가슴이 뜨거워지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의 해임문제를 쉽게 결심할수 없으시였다. 며칠째 책상우에 놓여있는 해임문건을 보실 때마다 그이께서는 동의를 미루어오시였다. 한기수는 벌써 예순세살이였다. 더구나 그는 불편한 몸이여서 몸시 힘들어 할것이였다. 아무래도 쉬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신 그이께서는 드디어 그를 해임시키는 용단을 내리시였다.

막상 그가 군당에서 영영 떠났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또 한사람의 믿음직한 당일군이 당일군대렬에서 떠난다고 생각하니 별로 허전하시였다. 더구나 근심스러우신것은 열성스럽게 일하던 한기수가 갑자기 할일이 없어지면 공허해지고 손맥이 풀리어 병에 걸릴수 있다는 그 점이었다. 그를 집안에 두어서는 안될것 같으시였다. 평양에 데려다가 아들네 집에서 살게 하면 적적하지 않을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이께서는 그 생각을 부정하시였다. 그의 활력을 부활시키자면 복잡하지 않은 사업을 맡기는것이였다. 오직 그래야만 그의 삶은 계속 꽃으로 피어있을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창가에 서시여 먼 북방의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였다.

한기수의 안해 윤은금이를 두고도 생각이 깊어지시였다. 그에 대한 보고자료에는 못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숨은 공로가 새겨져있었다. 영예군인의 안해인 윤은금이야말로 진짜배기충신이었다.

년로보장나이가 지났지 오랫동안 남편먼저 실수 없다면서 그냥 로동을 했다는 윤은금이었다. 그의 공로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것은 한기수가 내세우지 않은데도 있지만 보다는 윤은금자체가 자기 공로가 알려지는것을 바라지 않은데 있었다. 한기수의 공로중에서 절반은 윤은금의 몫이였다. 그럼에도 한기수는 안해를 내세우지 않아 한생을 당에

충성다한 윤은금이 공로보장을 받지못하게 되었다. 이 처사는 한 인간에 대한 그릇된 평가였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할 일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사색의 바다를 헤치시며 하나의 결론에 이르시자 다시 책상을 마주하고 앉으시여 송수화기를 드시고 해당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잠시후에 당중앙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 해당 일군들이 집무실에 들어섰다.

《내가 동무들을 급히 부른건 다름이 아니라 한기수동무에게 찾아가서 신심을 주고 오라는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그가 손맥을 놓고 나앉아서 자기의 늙음을 한탄하고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잠시라도 허탈상태에 빠지면 병이 납니다. 그에게 일감을 맡겨야겠습니다. 내 그에게 알맞춤한 직무를 찾아냈습니다. 그에게 군인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직책을 맡기자는겁니다. 알아본데 의하면 그곳 서기장이 능숙한 일군이여서 한기수동무를 잘 도와줄수 있을 겁니다. 군내실정을 잘 아는 한기수동무는 젊은 군당책임비서의 사업도 도와줄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보아 그에게 알맞는 직무입니다. 그리고 승용차 운전사도 그간 정이 들었던 본래 운전사가 그의 차를 몰도록 합시다. 그 운전사도 한기수동무와 함께 28년간 일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동무들입니까. 그들을 갈라놓지 맙시다. 동무들은 급히 내려가서 나의 뜻을 전하고 그가 동의하면 전화로 알려주시오.》

×

고요하던 방안엔 한기수와 윤은금이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그들의 흐느낌은 하고싶은 말을 대신하는듯 오래도록 멎지 않았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에 목이 메여 흐르는 감격의 눈물은 그들 부부의 눈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것이였다.

원탁우에 놓인 전화기에서 고요한 침묵을 깨뜨리며 호출신호가 따르릉- 울리였다. 다시는 울리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호출신호가 사업을 이어가라는 경종처럼 한기수를 부르는것이였다.

한기수는 송수화기를 들었다.

뜻밖에도 교환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찾으신다는것이였다. 더는 그이를 만날 기회가 없으

리라고 여겼던 한기수였다. 그런데 잊지 않으시고 친히 전화를 걸어오시다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안녕하십니까? 한기수 전화받습니다.》

《한기수동무, 건강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철이 바뀔 때마다 상한 다리가 저리지 않습니까?》

《예... 일없습니다. 다리가 저리지 않습니다...》

한기수는 감격에 목이 메여 더듬거리며 말씀드렸다.

《건강에 더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내가 일군들을 내려보냈는데 도착했습니까?》

《예, 방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하신 귀중한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 새 직무가 마음에 듭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새 직무가... 마음에 듭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해서는 안됩니다. 이 며칠 동안 동무때문에 근심했는데 만족하다니 오늘밤은 편안히 잠들것 같습니다.》

전화는 끝났으나 한기수는 두손으로 잡은 송수화기를 떼지 못하였다. 일군들을 내려보내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친히 전화를 걸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이 계심으로 하여 한기수의 행복은 끝없이 이어지는것이였다.

한기수는 오늘에야 자신이 늙지 않았다는것을 느꼈다. 그 삶은 자신이 가꾸는것이 아니였다. 자기뿐 아니라 우리 인민모두의 삶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꾸어 꽃을 피우시는것이였다. 그 꽃은 영원히 만발할것이였다!

류다르게 고요했던 이밤도 역시 사업과 생활이 약동하는 벅찬 숨결로 이어지고있었다.

대안의 새벽

차인식

육중한 발전기동체를 타고앉아
흥건히 흘린 땀 씻으며
용접면 벗어드니
아, 날이 밝는구나

새벽이슬도 서둘러 내려와
용접으로 달아오른 동체도
이 가슴도 시원히 식혀주는가
떠오른다 두툼한 철판을 종이장처럼
척척 마음대로 뒤번지며
철과 철을 이어가던 간밤이

붉은 해도 서둘러 솟아라
가랑가랑 뿔뿔 구내길 화단의 이슬도
반짝이며 반겨주는 이 아침
밤새워 발전기를 무어낸 보람이
이처럼 크나큰 환희로 안겨와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애국가의 선율속에
어려오는 벅찬 기쁨아
그 아침처럼
오늘도 새벽이슬 맞으시며
어버이수령님 오실것만 같아
구내길을 바라보는 마음이어

이런 아침이면 간절해지는 생각

정녕 수령님 우리를 찾으시여
대안로동계급이 수고한다고
손수 용접면도 들어보시고
땀젖은 나의 등도 두드려주실듯

아, 대안로동계급이 할일이 많다고
일을 잘하라고 그토록 믿음을 주신
우리 수령님
발전기를 참 잘 만들었다고
그리도 만족하시여 환히 웃으신다면
우리 마음 얼마나 좋으랴

오실것만 같아
진정 우리 수령님 오실것만 같아
발전기를 무어가며 날과 달을 당기여라
만나뵈을 그날을
기쁨드릴 그날을

아, 어버이수령님
오실것만 같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가에 노을로 피여났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높이 모시여
더욱 강대하고 위대한 내 조국의 존엄이
저 하늘 가득 비껴오는
새벽이여! 대안의 새벽이여!

총대로 새긴 진리

정 렬

레년에 보기 드물게
포악하고 번덕스러워
맹수들도 굴속에 움츠린 이 겨울에
이런 온화한 날씨도 있는가

거치른 제 본색 사납게 드러내며
미친듯 울부짖던 눈보라도 멎고
신비로운 세계를 펼친듯
산에 들에 소담스레 피었구나
하얀 눈꽃이

눈별판과 산협을 메우며
수주일 기동하던 대타격집단이
자기의 위력을 세상에 시위할
마지막 전술훈련을 앞둔 야영지

흰 눈옷을 두툼히 입은 수림은
조용하여도
정적속에 폭풍을 안은듯
포신들은 창공에 엄엄히 머리 들고
땅크의 무쇠발톱 무한계도들은
해빛에 번쩍이며 예리한 서술을 뽑으라

우리 무력의 위엄에 넘치는
도도한 기상
그 위력 한번 퇴성치면
천만산악도 무너져내리고
적의 소굴은 순간에 재가 되리

오랜 싸움군의 성미그대로
내밀성과 결단성으로
타격집단을 이끌어온 최현동지

평소의 그답지 않게
천막가 지휘부에서
담담간호원의 손거울로 비쳐보며
군모도 바로 쓰고
몸가짐을 정중히 하여라

말수가 적고 그 위엄 도고하다가도
령도자의 부르심만 받으면
어린애처럼 마음이 들뜨다는 로투사

오랜 군인생활의 습관으로
그 무슨 예감이 드는듯
거뜰한 기분으로 서둘러 밖에 나선다
하늘도 알아주는

이런 신기한 날에는
꼭 한생애 다시 없을 행운이 차례지고
한겨울에도 무지개가 비끼는
기상천외한 사변이 일어남을
체험으로 아는 그

류다른 이 아침
가슴속 소용도는 승엄한 걱정을 안고
우리 무력의 탁월한 령도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기다리는것이어라

지난날 38경비려단 병영에서
수령님을 기다리던 그 시절이
다시 되돌아온듯

폭격에 파헤쳐진
최전선고지를 찾으신
수령님께 영접인사를 올리던 그 감격이
다시 굵이쳐흐르는듯

가슴 울렁이며
행길쪽에서
줄곧 시선을 떼지 못하는 로투사
그의 눈앞으로
친애하는 그이의 령도와 사랑으로 이어진
대기동의 못잇을 낮과 밤이 파도쳐와라

×

눈은 내리고내리어
산과 들 그 어디나 끝간데없이
은백색 세계를 펼치는
이 하늘 이 땅우에
침략전쟁위험이 고래쳤어라

《철군》의 막뒤에서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던 미제
광란적인 군사연습을 광고하며
남조선 전역에
병력을 미친듯 끌어들였거니

침략의 먹구름 짙게 떠돌며
금시 머리우에
전쟁의 불뭉치 태칠듯하는 때
팽팽히 조여진 대기를 가르며
수도의 불밝은 거리를 지나
밤길 천리

한대의 승용차가 달리고있었다

차안에는 최현동지
차창너머
눈에 묻히는 산과 들에
오래도록 시선을 보내며
가슴 울렁이여라

그는 이런 생 눈을
많이도 맞았지
사람들 이런 날의 안식처를
아래목에 정한다지만
그는 즐겨 이런 날을 택하며 길을 떠났지

한평생 걸어오는 험난한 그 길은
오늘도 이어져
눈내리는 트랙에서
차문까지 닫아주시며
아무쪼록 몸조심하라 뜨겁게 바래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의 거룩한 영상이 그리워져라

못잊을 그 트랙은 아득히 멀어져가도
로투사의 마음은
크나큰 감격에 목메던 그 트랙으로
다시 거슬러가고있었다

온 나라의 마음이 와닿은
당중앙위원회 집무실
그이의 부르심을 받고
한달음으로 달려간 로투사

요즈음 건강은 어떤가고
전연초소를 몇주일째 돌아보고 왔다는데
너무 무리하게 일하는것 같다시며
그이께서는 못내 걱정하시여라

최현동지가 보낸 방안을
보았다 하시며
창문너머 잠시 시선을 주시던 그이

전쟁열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놈들의 검은 속심 환히 꿰뚫어보신듯
금시 천동우뢰가 멀어지는듯한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놈들이 군사분계선 가까이까지 나와
모험적인 군사연습을 벌리는데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손을 써서
강력한 타격집단을 기동시키며
맞받아 공격훈련을 해야 하겠습니까

최현동지는 원래 배짱이 세고

통이 큰 싸움군인데 어떻습니까
해볼만하지 않습니까》

아 이 얼마나 비범하고 통이 큰
령장의 예지인가
그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적들도 예상할수 없는 대응단이었다

로투사는 정신이 버쩍 들고
음산하였던 마음의 창문가에
금시 금빛 해살이 쏟아져내리는듯

로투사는 기고만장하여
돌같은 주먹을 짹 틀어쥐었다
(이놈들, 어디 혼쌀이 나봐라
천하를 휘어잡으신
그분의 손아귀에서
네놈들 벗어날줄 아느냐

《팀 스피리튼》지 《쉬파리튼》지
아예 목사발 만들고
달려들면 냅다 칠테다)

놈들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그이의 지략에
치솟는 걱정을 누를길 없어
로투사는 다시한번 주먹으로 무릎을 쳤다
(이것이구나)

전화의 그날
직사포를 고지에 끌어올려
적땅크를 직사로 갈기라는
장군님의 전법을 받아안았을 때도
로투사는 주먹으로 무릎을 쳤다
(이것이구나)

아 세월을 이어
우리 무력의 진두에
군사의 로숙한 대가를 모시었으니
이것은 무상의 대행운

친애하는 그이께서 지니신
천리혜안의 예지
우주보다 더 큰 담력에
로투사는 자석처럼 끌리어
온 뉘트로 매혹되었거니

승리의 비결을 한손에 틀어쥐시고
구름처럼 밀려오는 천만대적도
발아래 굽어보시는 그이
단한번의 호령으로
놈들의 오금을 꺾어놓으시니
천하명장중의 제일 명장이 아닌가

일찌기 첫 무장대오에서
꿈결에도 만나뵈고싶던 장군님을
단풍이 불불는 소왕청 마촌에서
처음 만나뵈온 그 시절이
다시 이어지는가

여문 별들이 쏟아져내리던
행복한 그밤이 파도쳐와
마음의 하늘에는 무지개가 비껴
로투사는 말년에 인생의 꽃이 피고
온몸에 청춘의 날개 돋힌듯

아 위대한 령도자의 탁월한 령도
만약 그것이 없다면
하늘의 태양이 떨어진것과 같은것
창과만리 항해길에 등대가 없는것과 같은것

정녕 그것이 없다면
그의 심장은 멎고 혈액은 끊어지리
그의 한생은 탄식과 수치로 얼룩지고
독립군시절의 그날처럼
피눈물의 광야를 방황해야 하리

령수의 지휘를 못받는 군대는
넋이 없는 허수아비
로숙한 사령관의 령도를 떠난다면
이 최현이가 무슨 존재이며
천만의 총대는 있어 무엇하랴

탁월한 령수의 령도는
내 삶의 젖줄기
승패를 좌우하는 생명선
혁명무력의 존재방식

친애하는 그이의 슬하에서
생의 길을 다시 걸으며
용맹을 마음껏 펼쳐보고싶은것이
인생말년의 소망이건만

자신의 완강한 의지에
육체가 따라서지 못하는것이
얼마나 한스러운것인가
이런 생각이 갈마들수록
더더욱 자신을 가다듬는 로투사

한평생 싸움으로 늙어온
그는 폐부로 느낀다
눈이 많이 오는 황포한 겨울은
싸움군의 성미에도 맞아
《수확》이 많은 풍요한 계절
명포수의 《풍년》계절이었다

퍼붓는 눈발은
이밤따라 따라오며

못잊을 하많은 사연 속삭이는듯
차창에 지꽃게 달라붙으며
마치 어리광이라도 부리는듯

눈발은 레사로이 내려쌓여도
평범치 않는 이밤
한없는 영광은 누리에 넘치고
그의 어깨엔 용맹의 나래 퍼덕이여라

2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땅밑에서 솟았는가
알수 없는 대타격집단이
불시에 퇴성치며
번개처럼 내달았다

전투차종대의 긴 흐름
견인기재들의 간단없는 소음은
천리산발을 흔들고
벌판을 꺾지르며
낮에 밤을 이어 흘렀어라

친애하는 그이 불러주신 화살을 따라
놈들의 상상도 닿지 못하는곳에서
타격집단을 이끌어
밤도 없이 낮도 없이
눈속을 헤치는 최현동지

넌로하고 병약한 몸이건만
전사들과 한담요속에
《동침》도 하며
기동하는 대오의 진두에 서있는 그

병풍처럼 에워싸인 산발을 넘는
협한 벼랑턱에서
전사들은 앞을 막아서며 만류했다
《무력부장동지
천천히 차를 타고 따라오십시오》

로투사는 어딘가 못마땅하여
무뚝뚝하게 한마디
《아니오 산에서 굳어진
이 무쇠다리 〈11호〉 차로
동무들과 같이 행군해야 하오》

20대의 젊은 병사들도
세찬 눈보라에 불이 터실터실 트고
행군길에 지쳐 휘청거리는데
넌로한 로투사 그 얼마나 힘겨우랴

어린 담당간호원은
울먹이며 발을 동동 굴렀다
《어제밤에도 열이 40도로 오르내리면서

햇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듯
심드렁하게 대하는 로투사
《나는 원래 백두산의 기온을 알아
혈압이 좀 높당이
아까운 눈물을 찔건 뭔가
명령을 관철하기전에는
전사가 주저했을수 없지

우리의 이 행군이
놈들의 〈팀 스피리트〉를 격멸하는
그이의 대전략이거든
〈결사전가〉를 부르면서라도 가야지
그렇지 않나 간호원동무》

어린 간호원은 뜨거움에 젖어
어깨만 들먹이는데
목적지에 승리의 기발을 꽂기전에는
누구든 주저했을수도
죽을 권리도 없다고
말씨는 투박하여도
진심을 울려주는 로투사

이렇게 간격과 숨결을 맞추며
그는 대오를 떠밀어갔고
측정할수 없는 마력으로
타격집단은 굵이쳐갔어라

그이의 지략이 비껴간곳에서
천지를 진감하는 함성이 터지고
멸적의 불이 쏟아져
적들은 혼비백산 아우성쳤다
《인민군대가 쳐나온다》
《훈련대형을 전투대형으로》

아군 타격집단의 위력에 기가 꺾이며
적땅크들이 부랴부랴 돌아서고
포차들이 엇갈리며
벼랑에서 굴고 눈사태에 처박혀
놈들은 넋을 잃고 공포에 떨었거니

헌데 이 어찌된 일인가
눈덮인 산밭을 넘고 들을 지나
수백리 머나먼 행군길에서
로투사는 그만 쓰러졌다, 의식을 잃은채

적후 제2전선의 나날
랭병으로 고통스러운 가슴에
불들을 안고 다니면서도
순간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대오를 돌격으로 부르던 그

그 어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비관의 그림자도 모르던 그가
로상에 쓰러져
천년 말없는 대지처럼 의식을 잃다니...?!

대오를 뺏치고있던
기동부대가 뿔뿔히져나간듯
지휘관들과 전사들도 현지 군의들도
오열을 터뜨리며 가슴을 치고
무정한 산천도 불안속에 지켜보는 꼴짜기

이따금 혼몽하게 정신이 들면
가까스로 손더듬해보며
부대들의 기동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된다고
나를 담가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한방 갈기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그
안타까이 흔들어도 불려도
천길 꿈속처럼 다시 의식을 잃는 로투사

활시위처럼 팽팽히 조여져
허탈감과 위험이 감도는 밤하늘에
불현듯 프로펠라소리 메아리치더니
호곡하던 눈보라도 숲속에 잦아드는가
우등불이 타는 공지에
한대의 직승기 내려라

사다리를 타고 급히 내려오던 일군
다그쳐 묻는 목소리
《무력부장동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최현동지가 빈사상태에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몹시 걱정하고계십니다

최현동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면서
친히 직승기를 띄워주시고
강력한 의료진을 무어 보내주셨습니다》

탁하고 무거운 공기 흐르는 숙영지에
일시에 굵이치는 뜨거운 열기여
아아히 솟은 메부리도 머리 속이고
열어붙었던 눈서리도 녹아내리는가

《이젠 우리 아바이가 살아났소》
《아무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아바이를 얼마나 보배처럼
아끼시는가 말이요》
너도나도 부둥켜안고
감격에 겨워 한마디

직승기가 날아온
 평양하늘을 우리러
 눈물에 젖어 목청껏 웨치는
 전사들의 만세소리 환호소리
 야영지의 밤하늘을 흔들여라

3

깨끗한 흙모의 정에 넘치여
 정원수 조용히 설레이는 깊은 밤
 그이께서는 탁상등 밝은 집무실에서
 뒤짐을 지으시고 천천히 오가시여라

최현동지에 대한
 뜻밖의 보고를 받으시고
 뜬눈으로 꼬박 밤을 새우시는 그이
 저으기 어두워진 안색으로
 창밖을 바라보시며 한결을 또 한결을

한생을 싸움으로 지친 몸에
 무리가 겹치여
 병색이 도는
 그의 주름깊은 얼굴을 지켜보시는가

아니면 혼수상태에 빠진채
 대리석같이 누워
 거칠게 숨을 쉬는
 로투사의 침상을 쓰다듬으시는가

천길 물속같은 정적을 안으신듯
 깊은 생각에 잠기신 그이
 참된 군인으로 로년기를 보내는
 그의 한생을 더듬어보시여라

그는 어느 이름난 군사학교를
 다닌 일은 없어도
 백전백승의 주체전법으로 싸워
 무훈을 세운 재능있는 군사지휘관

그 누구도 꺾을수 없는
 그의 남다른 고집
 고지식한 성격을 두고
 항간에 전해지는 일화는 많아도

수령관이 투철한 그는
 백발이 날리는 이날까지 군복을 입고
 당과 수령을 무장으로 보위하는 전사
 산전수전 다 겪어야 하는
 장장 반세기 혁명의 길에서
 호랑이처럼 용맹을 떨친 로혁명가

밤빛말에 채찍을 얹으며
 장군님을 찾아갔던 력사의 그날
 첫 상봉의 기념으로 주신 호박물부리를

한평생 따뜻한 체온으로 안고사는 로투사

그가 용맹을 떨친
 간삼봉과 로혹산
 그 많은 전투들...

해방된 그날에도 전호를 차지하고
 원쑤에게 철추를 안긴 38경비려단장
 미제 정예무력의 사등뼈를 꺾어놓은
 준엄한 적후 제2전선과
 충성의 탑으로 빛나는 1211고지

우리 당 력사의 갈피갈피에
 그의 공로는 별처럼 빛나는데
 몸이 허약하여
 좀 휴식할것을 권고하면

전대미문의 두 전쟁때
 술한 사지관을 넘으면서도
 머리칼 한오리 다치지 않았는데
 그까짓 병때문에 쓰러지겠는가고 하며
 혁명밖에 다른 잡생각을 모르는
 진짜배기 혁명가

최현동지를 우리 혁명의 원로로
 끝없이 아끼시는 그이께서는
 하늘끝에 닿도록
 주실수 있는 은정은 다 주셨건만
 아직도 정성이 모자라는것인가

팔팔하고 배짱이 세면서도
 고집스러운 성미를 보면
 로년기에도 정정할것 같은데
 왜 그리도 병약한것인가
 그이께서는 가슴이 쓰리고 아프시였다

이윽고 무거운 마음으로
 천천히 송수화기를 드시는 그이
 먼곳의 현지군의소 일군을 찾으시여라

그이께서는 걱정어린 음성으로
 《나 **김정일**입니다
 그래 최현동지의 병은 어떻습니까?》

의식을 회복했다고
 정신이 들자 왜 보고를 드렸는가
 내 병같은 그런 일로
 그이께 걱정을 끼쳐드리면 되는가고
 나무람을 하고있다고
 일군은 사실대로 말씀올려라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한결 안심되시는듯
 시름이 덜린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신다

《나에게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최현동지가 몹시 죄스러워한다는데
나는 그의 이런 가식없는 충성심에
정이 들었습니다
최현동지가 의식을 회복하였다니
천만다행입니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아 천하를 굽어보시는 그이의 시선이
로투사의 침상에 머물러
따뜻이 지켜주시는 밤이여
그이의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이
한 전사를 위해 바쳐지는
위대한 사랑의 밤이여

그 어떤 사랑의 음성이 곁에 와닿았는지
아직은 모르는 로투사
언제 병상에 누웠던가싶게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겠다고
기동훈련장에 나가겠다고
막무가내기로 부리는 옹고집

자고로 병이란 약이 아니라
마음이 고친다 했거늘
그이의 하늘같은 은정이 있어
이 최현이는 병을 털고 일어났다고
손등으로 눈굽을 짖는 로투사

왕북초리같은 눈섭을 곧추 세운다
술진 눈섭이 저렇게 곧추 설 때면
푸념이 있다는것을 아는 일군들
당황하며 어쩔 줄 모르는데

내가 건강한 몸으로 일하는것을 보셔야
그이께서 기뻐하신다고
내가 그냥 누워있으면 또 걱정하시는데
동무들은 내 심정을
왜 그렇게도 몰라주는가고
일군들을 타발하는 로투사

창문너머 한동안 시선을 주는
그의 눈굽이 축축히 젖어든다
그 무슨 그리움과
갈망의 빛을 감추지 못하며...

바로 그때
급히 달려오는 발자욱소리 들려오더니
어느새 문이 열린다
《무력부장동지
어서 송수화기를 드십시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전화로 찾습니다》

병약한 몸
어디에 그런 힘 숨어있었던지
날래게 군복짓 여미며
송수화기를 두손으로 받쳐드는 로투사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의 떨리는 목소리
《최현이 전화를 받습니다
저는 일없습니다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 자나깨나 그림던
그이의 음성이 가슴에 흘러들자
로투사는 혈색이 돌고
걸음걸이마저 민첩해지는데
온몸에 혈기 넘쳐라

진정 그이의 말씀, 그 손길이
가까이 없다면
그 어떤 명약도 그에게는 백해무익하리
그의 삶에는
순식간에 어둠의 장막이 내려덮이리

그이의 음성, 따뜻한 사랑은
그의 가슴에 비쳐든 봄빛, 맑은 공기
풍만한 영양소를 주고
청춘으로 부활시키는 삶의 자양이여라

건강이 회복된
최현동지의 목소리를 들으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더없이 기뻐하시는 그이

지난날 어려운 싸움을 많이 하다나니
병이 생기고 년세도 많은데
이제는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다고

최현동지의 건강때문에
수령님께서 밤잠도 주무시지 못하신다고
그곳 사업을 인계하고
빨리 올라와야 되겠다고
그이께서는 뜨겁게 말씀하시여라

천만마디 하고싶은 말들이
침묵으로 이어지는 때도 있는가
두줄기 전화선을 타고 흐르는
전사의 목이 맨 숨결소리여

돌이켜보면

백두산기슭에서 모신 수령님은
그를 막돌의 처지로부터
하늘의 성좌에 올려주신 은혜로운 품이었고

친애하는 그이는
흘러간 인생의 봄을 다시 찾아주시고
그의 한생을 은하수처럼 빛내주시는
영원한 스승의 품이었다
그 품을 떠나서
그의 심장이 어찌 따로 고동칠수 있으랴

이윽고 그 누구에게도 보인적 없는
속깊은 심중을 열며 터치는 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무력부장이
수령의 뜻을 받들기 전에
자기 몸부터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나약한 마음이 앞선다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앞으로〉라는
돌격구령을 내릴수 없지 않겠습니까》

베푸시는 사랑이 하늘끝이라면
따르는 전사의 충성도 하늘끝인가
로투사의 그 마음이 더없이 소중하신듯
그이 송수화기를 손에 드신채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하긴 적정통보를 받아보면
우리의 기동에
놈들의 눈이 화등잔만해져서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계획이
뒤죽박죽 헝클어지고말았답니다

우리의 움직임을 엿보던 놈들이
부대들의 강력한 진출을
그 무슨 공격을 위한
배비변경으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하하하...》

천만무계로 울리는 철의 그 음성
호방한 웃음소리
로투사의 가슴이 단번에 활 열리고
눈앞이 탁 트이는듯

백두의 령장
장군의 담력이 비낀 그 웃음소리
귀를 강구했던 세계앞에
승리의 락판으로 대답하는
조선의 자세 조선의 신념이여

로투사는 눈곱이 축축히 젖어
석십한 목소리로 말씀올린다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탁월한 지략을 펼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주셨기때문입니다》

뒤미처 다정히 흘러오는
친애하는 그이의 말씀
《우리가 내놓은 작전을 빛내이자면
손탁이 센 지휘관이 있어야 합니다
최현동지의 싸움군다운 배짱과 군사적기질을
나는 믿었습니다》

아 령도자의 은정이란
이렇듯 눈물겨운가
강쇠같이 버려진
로투사의 가슴
쇠물처럼 뜨거운것이 끓어오르는데

마디마디 믿음과 존경을 담아
그이 하시는 말씀
《그럼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곳 현지 훈련장에 가겠으니
절대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충성과 의리의 혼연일체로
령도자와 전사 사이 맺어지는
아름다움의 정화여
그 어떤 광풍이 불어쳐도
파헤칠수 없고 실금도 낼수 없는
일심단결의 위대한 화폭이여!

4

수림속 어디선가
산새 우짖고
눈꽃이 날리며
해빛이 쏟아져내렸다
귀에 익은 경적을 가버이 울리며
야전천막가 공지에
한대의 승용차 달려와 멎어라

로투사는 자신의 육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가슴을 짹 틀어잡았던지
버릇처럼 자세를 바로잡는다

어느새 차문이 열리더니
서둘러 내리시는분
그토록 뵈고싶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아니신가

기동훈련 마무리를 현지에서 보아주시려
로투사의 신상이 못내 녀려되지여
밤길 천리를 달려

동트는 아침에 오시었다

당과 혁명무력의
위대한 령도자를 맞이하는 전사
그에게는 웅당 취해야 할 자세가 있고
영접례의가 있거니

그 어떤 퇴성벽력에도
드놀지 않던 로투사
순간 당황해지는 마음을 어쩔수 없어라

기동기재들이 들추어놓은 밤길 천리
그이 헤쳐오신
그 험난한 로정을 다 말해주는구나
흙이 묻은 차바퀴며
눈먼지 엉겨붙은 차창이...

그이의 옷깃에는
하얗게 성에 어리고
얼굴은 여느때없이
수척해지신것 같구나

아 전화의 그날에는
옷깃에 초연서린 수령님을
탄피 밟히는 전선참호에서 맞이했는데
오늘도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하여
그이 험한 길로 오시게 했구나

피가 한동이씩 튀던 짧은 시절부터
세월과 세월을 이어온
로투사의 트림없는 자세였으나
심한 자책과 아픔을 안아서인지
그의 목소리는 여느때없이 떨리였어라

《차렷 -
가운데로 봤!》

혼자서는 가누기도 힘든 몸이나
부관의 부축도 마다하고
정바른 자세로 발걸음 옮기는
엄엄한 군복차림의 로투사

거수경례를 하고
절도있게 다가서는데
물밀듯 갈마드는 생각을 안으시고
로투사를 바라보시는 그이

아 세월의 흐름이란
류수같은것이어서
누구에게나 인생의 황혼기는
찾아오기마련인가

원썩들에게 범같이 감사나워

적탄도 피하던
로투사의 머리엔 백설이 날리고
그 얼굴엔 기나긴 세월의 흔적인듯
굵은 주름살이 덮였구나

허나 군인의 결패
가식없는 충성심만은
넓게 하지 못했거니
귀가에 마디굵은 손을 붙이고
습관된 곧은 자세로 걸어오는 로투사...

빠른 걸음으로
그이께서는 마주 걸어가신다
감동에 젖으신 음성으로
《최현동지,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도 절절히
만류하시는 그이께
로투사는 티없이 맑고 경건한 마음으로
영접보고를 삼가 올리였어라

로투사의 마디굵은 손을 따듯이 잡으시고
그이께서는 말씀하신다
《나이도 많은데다
건강도 좋지 못한 무력부장동지가
영접보고를 하면
내가 미안하지 않습니까》

오 삼천리강토여!
복반은 인민이며, 보았는가
한 로투사를 그토록 아끼시며
자신을 낮추시는 이런 탁월한 령도자를
우리 시대와 력사가 받들어모시였거니

한없이 겸허하시고 은정깊으신
그이의 품모에
가슴이 찢르르해진 로투사
또박또박 심중의 말씀을 올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우리 당과 혁명무력의
영명한 령도자이시기때문에
영접보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녕 그것은 친애하는 그이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모시고
주체위업을 총대로 영원히 옹위하려는
로투사의 투철한 신념의 웨침
우리모두의 목소리를 합친
뜨거운 열망의 분출이였거니

로투사를 부축하시고
세상 끝까지 걷고싶으신듯
천천히 흰눈을 밟으시며

야영지의 하늘을 흔드시는
그이의 뜨거운 음성이어
《나는 로혁명가들과 인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무장력을 이끌어갈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받아안고
력사가 받아 새긴 숭고한 화폭앞에
산천도 감격에 겨워 흐느끼는가

이제 그이의 사열을 받으며
하늘땅에 회성벽력처럼
우리 무력의 위용을
자부에 넘쳐 흐뭇이 바라보는 로투사

절대적인 승배로 무장으로 령도자를 받아들여온
로투사의 눈굽에는 그득히 고인다
깨끗한 마음의 샘터에서 솟아난
티없는 행복의 눈물이...

아 용감한 군사의 앞장에는
령수가 있어야 하고
군대의 위대성은
령도자의 위대성에 있구나

령수는 한분
군사는 천만
총대를 이끌어줄 령수를 모시지 못하면
군대는 있어도 총대는 흔들리고
혁명은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구나

최고령수의 세련된 수완을 떠나서는
혁명무력의 불패성의 위력도 없고
백전백승이란 있을수 없구나

가사

변심을 모르는 충실성을
체질화된 신념으로 지녔기에
그는 누구보다 심장으로 절감하거니
령도자의 의도를 받드는 자세는
어제도 오늘도
평범한 날이나 준엄한 날이나
한치의 편차도 드림도 없어야 함을

이것은 기나긴 반세기 혁명의 길에서 찾은
그의 빛나는 한생의 총화
충신의 드림없는 좌우명
우리 혁명이 총대로, 총대로 새긴 진리!

이 혁명철학, 총대로 새긴 진리를
만대로 지키면
나라와 군대는 강성하지만
버리면 씻을수 없는 치욕
피로 찾은 혁명의 전취물도
적들에게 참살당하고
사회주의도 송두리채 잃게 되거니

우리의 운명이시고 생명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무력의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민족의 대통운

불어치는 모진 풍파속에
지구가 흔들려도
친애하는 그이께서 이끄시는
우리 무장력의 총대는 흔들리지 않으리
추호도 흔들리지 않으리

풍년든 연백벌에 서보시라

김형찬

연백벌 아득히 넓고넓은 들
그 어느 이랑에 서보시라
그러면 누구나 알수 있으리
풍년든 대지의 뜨거운 사연을
아 수령님 걸으신 자욱자욱에
어떻게 풍년이 펼쳐졌는가를

고개를 숙이고 무겁게 설레는
그 어느 이삭을 안아보시라
그러면 누구나 알수 있으리

이삭에 숨배인 뜨거운 사연을
아 수령님 바치신 로고를 안고
어떻게 이삭이 익었는가를

날알의 향기도 목이 메이는
풍년든 연백벌에 서보시라
그러면 누구나 가슴 젖으리
인민을 위하신 위대한 한생에
아 수령님 이 땅에 영원한 행복
펼치여주신 그 한평생에

영원히 빛내갈 우리의 한마음

명선옥

슬픔을 딛고서 바뀌안은 용기로
인민은 불타는 맹세를 다지네
아 수령님 남기신 불멸의 유훈
영원히 빛내갈 우리의 한마음

어제도 오늘도 어버이수령님은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있네

아 수령님 남기신 불멸의 유훈
영원히 빛내갈 우리의 한마음

조국의 번영속에 그 유훈 꽃피나고
김정일장군님이 조선을 이끄시네
아 수령님 남기신 불멸의 유훈
영원히 빛내갈 우리의 한마음

어머님의 그 말씀속에

원현호

생각합니다
혁신자로 떠받들리울 때마다
해방된 그해 늦가을
어머님의 생애 알고싶어하는
《새길》신문사 기자들에게 하신 뜻깊은 말씀

빼앗긴 나라를 찾으시기 위해
혈전의 머나먼 길 헤쳐오시며
광복성전에 헌신하신 어머님의 공적
백천밤을 새워도 다 이야기할수 없고
천만권의 책에도 다 담을수 없건만

그래서
항일의 녀성영웅으로
만민이 칭송하는 어머님이신데
자신의 투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아니하시고
밝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전사들의 이야기는
수령의 력사속에 있습니다!

아 그 말씀 들으며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수령님 걸어오신 그 길에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지가지 빛나는 위훈의 자욱 새기신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력사를
그렇습니다

수령님을 떠난 자신에 대해
언제한번 생각해보신적 없으시기에
오직 한분
수령님만을 받들어모시는데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찾으신
위대한 충신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월은 흘렀어도
어머님 그날에 하신 말씀
삶의 숭고한 뜻으로
불타는 가슴속에 깊이 새겨안습니다
수령을 받드는
전사의 신념은 어떠한가 하는가를

아, 어머님
한마음 어머님을 따라배워
혁명의 꽃 피우는 길에
금별의 수훈자로 이름떨칠 때
그 누가 영웅적투쟁이야기 묻는다면
우리는 긍지높이 대답하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분들의 력사속에
우리 조국이 있고
우리 인민과 군대가 있습니다!

《화선사람》

안동춘

내가 만난 전쟁로병들중에서 ㅈ영예군인공장 지배인 오상진은 좀 특이한 부류에 속한다고 할수있다.

영예군인으로서 전후에 로력영웅이 되었다는것도 그렇지만 취재과정에 알게 된 그의 사랑사야말로 특이한것이였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쓴 이 소설을 나는 전국로병대회에서 한 그의 토론의 부록으로 여겨줬으면 한다. 그런데 여기에 그려진 그의 성격과 현재의 그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미리 부언하고싶다.

《...전방근무생활에서 너자란 회한한 존재입니다. 병사들에게는 고향의 누이를, 장가 못한 총각군관들에게는 미래의 안해를 생각해 하는 이들은 일년가서 두세번 예방주사를 놓는다던가 검진을 하러 찾아오는 때에야 만나보게 됩니다. 때마다 그들이 남기고 사라지는 예쁜 목소리와 아릿한 향취는 총검에만 익달된 젊은 군인들의 가슴에 한줄기 봄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봄바람을 따라 서정의 세계에 취하는것은 금물이지요. 뒤에는 조국이 있고 앞에는 원수가 있기때문입니다.》

오상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소대장 오상진이 스물일곱살되는 해인 1949년 봄 그들이 차지한 계선에 리혜옥이라는 처녀가 나타났다.

강렬한 섬광은 그 빛이 사라진후에도 오래동안 눈의 망막과 기억 속에 남아 번뜩이는것처럼 그 처녀의 눈빛과 미소는 젊은 군관들의 심장에 발열된 총탄마냥 박혀들었다.

고향은 평양, 전방근무군인들을 존경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로 하여 후방병원에 떨어지라는것도 마다하고 군의소에 왔다는 등... 며칠사이에 그 처녀의 죽보가 밝혀지고 보태지고 꾸며진 소문이 나돌았다. 아이아버지이며 애처가인 중대장까지 그런 화제에 말려들었다.

《우리에게는 저런 체네들이 아편이야. 조심들 하라구. 녀볼 생각은 더구나 말고.》

물론 오상진은 중대장의 말처럼 그런 처녀를 녀볼 생각따위는 아예 하지 않았다. 그는 근무이외의 잡사에 신경을 쓰는것을 탈선행위로 생각하는 성실한 군인이였기때문이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든다던가, 하루밤 초소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숲속길에서 그 녀자의 환영이 때

때로 불쑥불쑥 나타나는것을 놀라웁게 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 처녀가 주사를 놓을 때 오고간 몇마디 대화가 토박침과 억양까지 생생히 기억에서 되풀이되였다.

《팔에 힘을 주지 말아요. 바늘이 안들어가잖아요.》

《난 힘을 안줬습니다.》

《다들 그러지요. 근육자랑을 하려고-》

처녀의 말에 오상진은 울퉁뼉이 살아올랐다.어려서부터 로동에 단련된 그의 팔근육은 원래 돌덩이 한가지였다.

《그만둡시다.》

오상진이 팔을 나꿔채듯 잡아빼고 팔소매를 내리우자 처녀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그 예쁜눈에 뾰족한 가시를 세워 쏘아보았다.

《예방주사접종은 부대장동지의 명령에 따르는 사업이예요.》

《논것으로 하구려.》

어둑하게 타는 모욕받은 눈길과 검붉게 변한 오상진의 얼굴을 보자 처녀의 표정이 달라지였다.

《성미가 꽤 격하시군요. 제가 잘못했어요.》

약간 수집게 울리는 그 말소리와 처녀의 표표하던 얼굴에 실리는 부드러운 미소는 오상진을 떨떨하게 만들었다. 자기가 팔소매를 다시 걷어올렸는지 처녀가 걷어올렸는지 모르는 사이에 주사를 맞았다. ...

몇달후 대대가 배비변경으로 제2제대계선에 들어오자 오상진은 휴가를 받았다. 떠날 때 려단장이 준 지시에는 장가를 들고 오라는것이 포함되어있었다. 오상진의 고향인 북관땅 경성은 미인이 많은곳으로 소문난 고장이였다. 그가 고향집에 들어섰을 때 부모들은 이미 며느리감 후보들을 다 물색해놓고 기다리고있었다.

사철 배잠뱅이차림에 숯달구지를 끌고 읍에 오르내리군하던 숯구이총각이 번들거리는 가족장화에 모직군관복을 펼쳐입고 환한 얼굴에 근엄한 미소를 띠고 나타나자 온 마을은 물론 읍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탄어린 시선으로 그를 보았고 그전에는 너나들이로 마구 대하던 처녀들이 벌나게 눈을 내리깔고 얄전을 부리며 그의 주위에서 맴돌이쳤다. 술한 코흘리게 줄망구니들을 잔뜩 뒤에 달고 거리에 내려가면 읍내의 한다하는 멋쟁이 처녀들도

그의 뒤모습을 낮이 빠져 바라보곤하였다.

많으면 귀한것을 모른다고 처녀총각들의 사랑에서도 리치는 다들것이 없다.

술한 처녀들의 추파에 허공뜨게 된 오상진의눈에는 그 어느 처녀도 마음싸게 안겨오지 않았다. 해방되어 몇년사이에 다들 살림이 유족해져 그전에는 부자집 녀자들이나 감고다니던 비단파위를 몸에 두르고 마을돌이로 오는 선녀차림의 처녀들도 그에게는 쏄쏄하게만 보였으니 그것이 푸른치마에 보위색 군복저고리를 입고 날씬한 허리에 혁띠를 착 감아죄인 처녀의 모습에 가려 그렇게 보인다는것을 오상진은 썩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어병지병 휴가기한인 열흘이 넘고 부모들의 한탄과 처녀들의 야속스런 눈길을 뒤에 남기고 부대에 돌아올 때 그는 일종의 후회를 느꼈지만 다른수가 없었다. 상관들과 동료들의 나무람도 듣고 《모자란다》는 야유도 받으며 지나는 사이 《장가문제》는 서서히 잊혀지고 말았다.

그런데 그해 가을 녀성군인들의 제대나이가 론의되면서 리혜옥이라는 처녀가 제대된다는 소문이 총각군관들속에 나돌고 뒤이어 려단의 누구누구가 그 처녀에게 용감히 구혼했다는거며 모두가 통을 맞고 시라지풀이 되었다는 《특급비통》이 오상진의 귀에까지 날아들었다.

그 소식은 오상진의 마음속 호심에 돌덩이마냥 떨어져 복잡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로 하여 밤잠마저 설치게 되고 낮에는 몸살이까지 났다. 애당초 고려패위는 전혀 모르던 그였으나 이번에는 중대장에게 보고하고 용약 려단군의소를 향해 떠났다.

외진 산협의 군의소앞을 오락가락하던 그는 한 입원군인을 통해 리혜옥의 거처를 알고 문기척도 없이 들어섰다. 다행히도 리혜옥이 혼자 있었다. 빨아 말린 붕대를 감고있던 그 처녀는 불시에 뛰여든 오상진을 보자 범이나 만난듯 놀라 일어섰다. (오상진은 그때 자기의 얼굴이 몹시 창백하게 질렸고 눈빛이 이상스럽게 번쩍여 그가 더욱 놀랐다는것은 몰랐다.)

《무슨 일이세요?》

《저... 열이 나서...》

머리속에 벌집처럼 왕왕 울리는 가운데 간신히 말을 내뱉자 처녀는 의아한 눈길로 보다가 소리없이 돌아섰다. 오상진쪽은 보는척도 않고 문을 열고 나가서 옆방문을 가볍게 기척하고 들어갔다. 쟁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군의동지! 구급환자가 왔습니다. 들여보내랍니까?》

그 말에 무슨 대답이 올리더니 리혜옥이 나왔다. 그는 오상진에게 《옆방입니다. 진찰을 받으세

요.》 하고는 더는 보지도 않고 감고있던 붕대통구리를 잡으며 의자에 앉았다.

《저-》

오상진이 무슨 말인가 붙여봐야겠다고 마지막울기를 발휘하여 입을 열자 처녀는 쌀쌀한 태도를 취했다.

《전 의사가 아니예요. 진찰은 군의동지가 하게되었답니다.》

군의에게서 아무런 열도 없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는 《진단》과 《피병을 하려는 목적은 뭐요?》하는듯한 의심쩍은 눈길을 받으며 돌아설 때의 오상진의 얼굴은 수치와 모멸감에 불화로가 되었다. 저녁식탁에 함께 앉았던 대대량피참모는 꾀바른 눈길로 몇번 훑쳐보고는 식사가 끝나기바쁘게 운동장 한켠 구석으로 그를 끌고갔다.

《3소대장, 나한테 뭐 실토허거 없나?》

량피참모로 말하면 늘 무슨 시집같은것을 옆구리에 끼고다니며 인생에 대한 《유식한》말과 꽤 까다로운 리론으로 많은 《청강생》들을 가지고있는 인물이었는데 오상진이라는 보안간부학교시절부터 절친한 관계로 있었다. 그 우정은 보안간부학교졸업시험사격시 우등사수인 오상진이 사격에는 아예 풀인 량피참모의 과녁에 한방 쏘넣어주는것으로써 보여지기도 했고 (그통에 오상진은 랑을 맞고 그 사실이 후에 뺑뺑이 나 되게 비판을 받았다.) 량피참모는 량피참모대로 오상진이를 만나는데마다 이런저런 훈시를 귀찮게 하는것으로 우정의 공고함을 증명하곤하였다. 더구나 한해전에 꽃같은 색시를 맞아들인 다음부터는 형님행세까지 하려들었다.

《내 알기엔 동무가 려단군의소에 갔던것 같은데... 그 돌미인때문이였나?》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물음에 오상진은 낮이 지지벌개져 한숨을 토했다.

《그랬어.》

천성적으로 거짓말을 모르는 오상진이었다.

량피참모는 눈섭을 찌프리고 한동안 발부리를 쏘보다가 엄숙한 어조로 말하였다.

《말하게, 하나도 숨김없이.》

오상진은 창피스러웠으나 그 피로움과 분함을 혼자 안고 묵새기기에는 너무나 짐이 커 이 친구에게는 다 털어놓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실은 전방초소군무대부터 병이 생겼어.》

오상진이 침울한 어조로 자초지종을 더듬어나가자 량피참모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부릅뜨기도 하며 오상진의 감정흐름에 양념도 치고 부채질도 하여주었다. 오상진이가 결국 한마디 말도 변변히 못붙이고 쫓겨온셈이 되었다는것을 알자 량피참모는 멀리서 찬 눈길을 흘끔 던지고는

구두말자국소리를 요란히 내며 주위를 한바퀴 돌고 나서 마침 눈에 띄는 창격전훈련시 가적으로 쓰는 인형의 나무받침대를 세계 걸어쳤다.

《동문 이 허수아비야. 그리고 이꼴이란 말이야.》

그는 총창에 찔려 구멍이 송송 나고 짙오래기가 빠져나온 허수아비인형의 가슴팍을 손으로 쿡쿡 찔러보였다.

오상진은 《허허》 웃고말았다. 량피참모의 모욕스러운 눈빛과 말이 지금에는 정반대의 작용으로 그의 가슴속 울분을 식혀주는 것이었다.

그 웃음에 량피참모는 버럭 성을 내었다.

《여보, 반편처럼 허허할 땐가. 동무는 군관의 명예, 남성의 명예를 훼손시켰단 말일세. 명예를!

사실 동무는 그의 상대가 안돼. 아예 보지도 생각지도 말았어야지. 전연근무에 나가서도 그 얼른 생각에 사로잡혔다니 군인답지도 않고.》

자존심에 일격을 가하는 그 말에 상진은 속이 불끈 살아올랐으나 입술만 아프게 깨물었다. 량피참모는 깨고소한 웃음을 짓다가 다시 혼시조로 그 장기의 연설을 시작했다.

《이제부터 하는 내 말을 잘 들어두게. 이건 어떤 데 가서도 얻어듣기 힘든 인류사랑사의 경험과 교훈들중 몇가지 글자들일세.

자고로 미인과 바보는 쌍둥이라고 하였네. 왜 그런가. 너자란 자기가 미인이라는것을 알게 되는데부터 바보짓을 하지. 제가 제일인양 우쭐거리고 주변에서 뺨도는 모든 남성들을 자기 집 발바리처럼 보고... 하여 현명한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한테는 침을 뱉으며 접근할 생각조차 안하는 법이야. 실제 살림에서 그런것들을 얻었다간 야단이야. 발까지 씻어달라고 할수 있거든.

물론 다 그렇다는건 아니야.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론이니까 혜옥이란 처녀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 이유는 그가 군대에 나왔기때문이야. 여기엔 존경할만한것이 있기때문이지.》

오상진은 눈이 덩돌해져 그의 말을 귀담아들었다. 우선 마음이 시원해졌기때문이다.

량피참모는 《학생》의 열성에 흥이 났다.

《그런데 그가 진짜 똑똑한 처녀라면 동무한테 그렇게까지 할수 없거든. 그는 오늘의 일로써 자체수양부족을 폭로했던 말이야. 물론 동무를 받아들이지 않은것은 그로 볼 때 잘못이라 할건 없어.

현역군인으로서 동무같은 모든 열뜨기들한테 다 미소를 보인다는건 안될 일이지. 그러나 난 동무의 친구로서 격분했어.

문제는 동무가 여성과 사랑에 무식한타이야.

사랑도 전쟁과 같아. 쟁취하려는 여성, 그것은 곧

목표, 산고지야.

정면공격인가, 우회인가? 가장 중요한것은 적을 알고 자기를 알아야 이긴다는 법칙일세.

그럼 구체적으로 동무의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무의 장점이란 그췌한 체격과 남성적인 용모야. 눈섭도 굵고 관골도 적당히 튀어나오고 황소 눈같지만 눈도 그만하면 쫌쫌아. 근데 말주변이 걸렸어. 순 눈으로 해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건 특종의 바람쟁이들 일이고... 우리로서야 언어인데 이건 병사들에게서 탄약과 같은것이야. 그런데 대상, 기분, 장소, 시간에 따라 발원원고내용은 다 다르다는 거야.

가령 실례로 혜옥이같은 녀성을 만났을 때 먼저 동무의 그 쇠뿔이같은 팔뚝근육의 특성에 대한 의학적분석을 요청할수 있지. 왜 바늘이 잘 안들어가는가. 시시병당한 이야기같지만 그런 이야기일수록 서로의 경계감과 간격을 줄이는데는 매우 좋지.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라 꼭 시시한 이야기가 돼야 하네. 다음 슬금슬금 포복전진한다, 이것이지. 례하면 우연한 떠오름인듯 어느 시집을 본데 대해서 비치고 그럴듯한 대목을 하나 읊고 칭찬 절반 비평 절반을 하거든.

이런 시구절이 있지.

사랑은 가는 손목도

높은 젖가슴도 아니라네

하면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못마땅해할수 있지. 그때 말한단 말이야.

〈난 이 시인에게서 매번 우뢰와 번개만을 느꼈는데 미묘한 감정에 대한 서정가요도 있더라 말입니다. 정신적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자 표현한 이 시구는 처음 얼핏 볼 때는 불쾌한바도 있지요. 아마 그건 우리한테 남녀의 활발한 사랑을 타기한 유교적관습의 잔해가 있어 그럴겁니다.〉

이쯤하면 녀자는 〈아니 이 나무토막같은 사람한테 놀라운 학식과 지성이 자리잡고있구나.〉 하며 순간에 동무에 대한 인상이 달라지고 뭔가 자기 환상속에 그려보던 남자를 동무에게서 찾아보기 시작한다 말이야.》

량피참모의 열띤 강의는 여기서 끊어졌다. 군중문화오락시간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렸던것이다.

《이따가 다시 만나게.》

그때까지 《군관의 명예 훼손》이라는 생각만 계속 짓씹으며 량피참모의 절반 엉터리같기도 하고 절반 그럴듯해보이기도 하는 장광설을 귀박에 흘려들던 오상진은 어망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자유시간에 그를 다시 불러낸 량피참모는 미진된 강의를 마무리하며 리혜옥에 대하여 양값음할 방법, 만날 때의 눈빛과 표정, 몸가짐과 손동작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가르쳐준후 헤어졌다. 그의 가르침이 어느 한대목 머리에 박히는것은 없었으나 혜옥이로 하여 생겨난 마음속고통은 다분히 가져주었다.

그러나 량피참모가 떠나가며 마지막으로 남긴말 한마디가 사그러져가던 불에 기름을 찼다.

《가장 좋기는 잇는것이야.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잖아.》

밤새 이리뒤척 저리뒤척하며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던 그는 다음날 오후(토요일작업날이었다.) 또다시 러단군의소를 향해 《출전》하였다.

고향부락에서는 오상진을 미친 황소도 길들일사람이라고 했다. 실지 그는 아무리 성패사납고 받기질 잘하는 황소도 일단 코투레만 쥐고 용을 쓰면 움썽달썽 못하게 만들곤하였다. 황소를 다룰 때의 그의 눈을 보고 마을로인들은 장수의 눈정기가 있다고 했다.

그는 잔소리도, 성낼줄도 별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로인들의 말처럼 그의 눈에 장수의 눈정기가 있어서인지 어떤 성찰사나운 병사들도 그에게 맞서는 일이란 전혀 없었다...

《난 천하바보고 멍텅구리다.》

리혜옥이를 찾아가며 그는 몇번이고 이 말을 중얼거렸다. 무엇때문에 가스가 하면 할 말이 없었다. 자기로서도 왜서인지 모를 지경이었다. 《모욕》에 대한 앙갚음인지 아니면 량피참모에게서 얻어들은 몇가지 방법을 시험해보려고 그러는지...

《모욕》에 대해 앙갚음할 때 하라던 말들이 생생히 살아오는것을 봐서는 자기가 그 길에 나선것이 분명했다.

량피참모가 가르쳐주던 말들이 토 하나 빠짐없이 떠올랐다.

《들어가자바람으로 큰소리 치라구.

〈상급으로서 지시하오. 차렷!〉 하고 말일세.

하면 혜옥은 자네를 돈 사람으로 여기며 뭐라 웅얼거릴수도 있네. 하지만 그에 주눅들지 말고 엄숙하게 말하게.

〈복창하시오! 저는 군관동지를 모욕한데 대해서 사죄합니다. 저는 성실한 군인의 인간적민음을 사랑에 대한 시시한 움직임으로 곡해하였습니다. 저의 무지와 거만성에서 오는 태도를 용서해주십시오. 복창!〉

그리고는 복창하는것을 기다리지 않고-물론 복창을 안할것이지-핵 돌아서 빠르면서도 가볍지 않은 걸음으로 떠나온다는거네.

웃지 말게. 이 방법은 정상인간의 시점에서 볼때는 미친짓이야. 그러나 혜옥이같이 남자들의 알랑거림에 눈먼 녀자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걸

세. 해보게, 동무에 대한 인상이 60프로는 달라질테니.》

리혜옥은 군의소 뒤마당에서 빨래를 널고있었다.

금방 소독가마에서 찌넛드실은 빨래들에서 피어오르는 김발에 처녀의 얼굴은 빨갭게 익어있었다.

하얀 위생복과 대조되어 빛나는 그 얼굴모습의 매력에 끌리지 않으려 오상진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지 않으면 안되었다. 군의소 뒤창문에서 내다볼수 있는 눈들을 꺼리며 적당한 위치를 찾던끝에 고맙게도 빨래줄에 걸어놓은 위생복이며 환자복 따위들이 창문과 자기를 완전히 가릴수 있음을 알고 적보초소를 향하듯 은밀하고 날랜 걸음으로 접근하였다. 마지막 빨래를 걸어놓고 빈 대야를 들고 일어서던 혜옥은 인기척에 놀라 돌아보고는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빨래줄과 빨래로 차단선이 지어졌음을 알자 그는 놀라움게도 생긋 웃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먼저 묻는것이였다. 태연한 빛을 보이려는듯싶었으나 목소리에는 겁기가 어려있었다.

오상진은 높아지는 숨결을 억누르며 대답을 찾았지만 역시 하루전처럼 머리속이 뒤죽박죽이였다. 준비해뒀던 몇가지 말들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이상스럽게도 량피참모가 가르쳐준 말만이 귀전에 왕왕 울려들었다.

《동무한테 왔습니다.》

간신히 말을 뱉 그는 지나친 긴장에 쓰러질듯만 싶어 빨래줄을 잡았다. 축축한 물기가 감촉되며 마음이 얼마간 진정되었다.

《난 어저께 피병진단을 받으러 온것은 아니었습니다.》

처녀는 흥미있게 그를 지켜보았다. 눈가에 파들 파들 피이는 웃음을 알아본 오상진은 초조해났다. 뭔가 소리치고싶은 충동을 누르노라 두번 길게 숨을 들이긋고난 그는 계략이고 수법이고 갈데로 가라 하고 생각그대로를 내뱉었다.

《난 동무때문에 왔었습니다. 만나서 결정을 보지 않고는 건딜수 없었습니다. 동무가 제대되면 앞으로 시집을 갈것이다, 그러면 나하고 살수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답니다.》

말을 마친 오상진은 핵 돌아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량피참모의 혼시에 이것이 밝혀있었다.) 그러나 밟은 땅에 뿌리를 내린듯 움직여주지 않았다.

잠시 눈길을 내리깔았던 혜옥은 오상진이 장승처럼 그냥 굳어져 서있자 마치 놀이감 꿈을 쳐다보듯 유심히 보았다.

《소대장동진 훈장이 없군요.》

오상진은 잠시 얼퍼름해졌다. 얼마전 38도선을

넘어들어온 리승만피뢰군을 물리치는 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몇몇 군인들이 훈장과 메달들을 받은 것으로 곳곳에서 이야기들이 있었으나 처녀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해본 그였다.

《난 전투때마다 운이 나빴습니다. 늘 뒤전에 있게 되었지요.》

《남들은 훈장까지 달고 오더군요.》

처녀는 그의 대답같은것은 아예 귀박에 홀리며 말했다. 오상진은 몸을 떨었다. 그제야 처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말들에는 지독한 야유와 멸시가 깔려있다고 판단했기때문이었다.

오상진은 홀연 꿈에서 깨인듯싶었다. 처음으로 그 녀자를 똑바로, 경멸에 차 볼수 있었다.

《그러니... 동문... 훈장과 살겠다는것이요?!》

분노한 웨침과 함께 그의 손에 잡혔던 빨래줄이 툭 끊어져내리며 빨래들이 처참하게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아이!》

처녀의 비명비슷한 소리를 들으며 돌아선 그는 길인지 발인지 분간함이 없이 곧추 뛰다싶이 걸어갔다. 웬 남자의 성난 웨침이 뒤따라왔으나 그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군관동무! 서오!》

재차 울리는 호령조의 웨침에 약이 올라 피곳 돌아보니 활 열어젖힌 창문에서 청진기를 든 뚱뚱한 몸매의 군관이 험상궂은 얼굴로 소리치는것이였다. 어제 본 군의였다.

그날저녁 오상진은 려단장의 호출을 받았다. 중대, 대대 지휘관들이 얼굴이 까매진 속에서 량피참모가 그와 대동하겠다고 나섰다. 오상진이 뿌리쳤으나 량피참모는 끝내 20여리 떨어진 려단지휘부까지 따라와 려단장방에도 함께 들어갔다.

려단장은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고 처벌도 우선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나서는 량피참모의 《의협심》에 감동되어서인지 아니면 심리에 한마디씩 내비치는 오상진의 촌뜨기식사연설명에서 풍기는 순박성에 끌려서인지 《망나니적폭행》으로 보고된 오상진의 사건에 대하여 크게 문제시하지는 않았다. 어떤 때는 껄껄 웃기까지 했고 마지막에는 유격대시절을 잠시 회고하는것으로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우린 사랑이라는 말은 몰랐어. 그러나 사랑은 했지. 그것도 어떤 사랑이었던가. 전투와 전투, 굶주림과 추위를 이겨내는 나날에 서로를 알고 위로하고 아끼며 생명까지 바치는 사랑이였어. 사랑을 위해 연극까지 꾸민다?!... 허허, 위험해. 두번다시 이런 제대야.》

려단장에게서 처벌은 면했지만 이 소문은 파다히

퍼져 한동안 오상진은 어깨죽지를 떨구고 다녔다. 리혜옥이 제대된것은 그로부터 한달 좀 지난뒤였다.

그날 겨울나이화목준비로 대원들과 함께 산에 올랐던 상진은 저녁녘에 돌아와 중대장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다.

《동무를 만나러 예까지 왔더군. 그지간것 용서를 빌었어. 그러나 잊으라구, 사내간을 빼낼 못쓸너자야.》

중대장은 이 말을 하며 쿵쿵 마른기침을 짓고 오상진의 디룩디룩 굴리는 눈길에서 자기의 얼굴을 숨기려 책상서랍을 열었다닫았다 하였다.

저녁식사시간이 되었을 때 느닷없이 나타난 량피참모가 중대장을 어떻게 구슬렸던지 오상진의 외출을 허락받고 자기 집으로 끌어갔다. 어데서 구했는지 모를 소주 한병을 놓고 밥상에 마주앉아 몇순배 돌아가자 그는 후- 하고 긴 한숨을 토한끝에 희한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혜옥인 기뻐찬 처녀야.》

걸불안이라고 눈부신 아름다움은 그 마음속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더라 말이야. 그 처녀의 거만스럽고 껄껄스러운 태도는 오직 총각군관들에 한해서만이였지. 지질구질한 사랑놀이에 질색하는 그 처녀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 우정 그런 연기를 한거야. 미인들은 대체로 그래. 또 그래야 하고.》

그는 언젠가 《미인》들을 한몽둥이로 마구 두드려뺐다는것은 까맣게 잊고 열이 올라 혜옥의 송가를 읊조렸다.

《혜옥인 오늘 자기때문에 동무가 말들인데 대해 진심으로 량해를 구하며 몹시 만나고싶어했어. 물론 동무에 대한 나의 분석과 인생에 대한 나의 견해를 들은데도 있지만 편지를 꼭 하겠다고 했어. 이 건 성벽의 한모퉁이가 깨어져나갔다는, 즉 돌파구가 형성됐다는 그것일세.》

《그만하라구. 그건 다 지나간 일이야.》

오상진은 딱 잘라 말했다. 중대장은 《간을 뺏너자》라는것으로 혜옥이를 부정하며 잊게 하려했다면 량피참모는 그 반대의 논거로 마음속 상처를 쓸어만지려 하는데 결국 자기를 위하여 꾸미고 지어내는 연극이라는데는 다 한통속이라고 생각한 오상진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새해 설을 맞으며 오상진은 리혜옥으로부터 보내오는 신년축하장을 받게 되었다. 편지뭉음속에서 그 이름을 알아본 오상진은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되었다. (그러니 이 불쌍한 젊은이는 그때까지 리혜옥을 잊지 못하고 일종의 미련을 품고있은것이다.) 누가 볼가 저어하며 병실뒤 장작불이 황황 타는 화구간앞에 주그리고 앉아 결봉을 뜯을 때 그의 손은 떨렸다. 처마의 눈녹임물

한방울이 편지지에 떨어지자 그는 더없이 귀중한 보물에 흙탕이 튀긴듯 손수건을 꺼내 정히 닦았다. 글씨는 얇전하고 단정한 정자체였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조국보위초소에 선 동지의 사업과 생활에서 커다란 성과와 기쁨, 건강을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꼭 훌륭하고 아름다운 안해를 맞아 길이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불쾌했던것 흰눈으로 덮어 잊어주세요.》

두세번 글줄을 박아읽고 뒤면까지 까근히 훑어본 후 그는 쓰디쓴 미소를 삼키며 편지와 결봉을 북북 찢어 아궁속에 던져넣었다.

종이조각들은 기세 좋게 떠오르는 불길속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말았다.

그렇게 리혜옥에 대한 생각도 이 순간을 기점으로 영영 사라져버리고말았다. 더구나 몇달후에 일어난 전쟁은 오상진에게 그런 추억의 공간마저 없게 하였다. 그는 조국을 지켜내려는 일념에 불타 전투마다에서 용맹과 위훈을 떨치는 무서운 싸움군으로 되었다. 리화령계선에서부터 그는 중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리혜옥이가 복대하여 사단 군의소에 와있다는 소식을 량피참모로부터 들었으나 별다른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 조국의 운명이 생사기로에 들어선 순간 이 땅의 공민이라면 웅당 뵈아야 할 길을 밟는다는 그러루한 생각 하나뿐이었다. 이 《평장한 소식》에 친구가 보여줄 여러가지 질문과 호기심에 멎진 분석으로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리라 잡도리하고있던 량피참모는 그의 식어버린 열정에 실망을 금치 못해하였으나 전쟁의 준엄한 현실이니 그럴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리해를 표시하고 말았다.

그런데 운명이란 묘한것이어서 오상진과 리혜옥에게 뜻밖의 상봉을 마련해주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서였다.

마산계선까지 나갔다가 뒤늦게 후퇴명령을 받은 통에 맨 나중에 적진을 헤쳐 들어오던 오상진이네는 락동강기슭의 참대숲속에서 움직일 능력을 상실한 한개 소대가량의 부상병집단과 맞닥들게 되었다.

군모도 없이 텅수룩하게 흩어진 머리에 눈동자가 흔들린 사람처럼 개개 풀어진 군의가 권총까지 빼들고 그들을 막아섰다.

《도와주오!... 만약 동무들이 그냥 간다면 우린... 끝장을 보겠소...》

이제 당장이라도 이마뺨에 한방 쏘넣을듯한 어마어마한 태세의 군의는 언젠가 오상진을 만나니로 묘사해 보고했던 그 군의였다.

오상진은 쓴웃음을 머금었다. 자기 전우들을 믿지 못하는 태도가 역겹기까지 했다.

《군의 동무는 언제나 사람들을 더럽게 보는군요.》

오상진이 대원들에게 참대를 찍어 들것을 만들것을 지시하고 부상병들쪽에 갔을 때 한 간호병처녀가 그에게 다가왔다.

《상진동지 아니세요.》

반가움에 넘친 처녀의 얼굴을 알아본 상진은 저으기 놀랐다.

《동무가? ... 잘 있었소.》

《고마워요. 전 인츰 중대장동질 알아봤어요.》

혜옥인 지난 일이 떠올랐던지 약간 얼굴을 붉혔다.

상진이도 왜서인지 낮이 달아올라 이마살을 찌프렸다.

다행히도 군의가 끼워드는통에 어색한 장면이 더이지지 않았다.

《이제 보니 우린 구면이었구만... 야, 반갑소.》

똥똥보들이란 대체로 비위가 좋은 법이다. 그는 십년지기나 만난듯 오상진의 어깨를 붙어잡고 그동안 있었던 일하다가 체육에 대한것까지 겹쳐 수다스럽게 섭져댔다.

《...내 그렇잖아도 언제건 동무를 만나 사과한다했는데 참 그때 안됐소. 하긴 그뻔 어쩔수없었소. 혜옥이한테 별 쉬파리들이 다 덤벼드니 내가 살피줘야 했거든.》

그러나 잘했소. 이젠 그저... 내가 그 혜옥일 째 쥐고 동무와 동여매놓지. 응, 멋있지 않소.》

상진은 허구픈 미소를 지었을 따름이다. 죽음의 지경에 들었다가 살게 된 사람의 입에서 무슨 흰소리인들 안나오겠는가.

그리고 오상진에겐 굳어진 결심이 있었으니 두번 다시 《사랑》에 애태우고 《굴욕》을 당하는 놀음은 절대 하지 않으리라는 결심이었다.

처음에 혜옥은 상진의 지나치다고 할 정도의 무뚝뚝함에 의아스러움을 안고 지켜보다가 뭔가 깨달은듯 부득불 마주서게 되는 경우에도 미안스러운 눈길로 보며 어렵게 대했다.

척후조로부터 엄호조로, 엄호조로부터 척후조로 오가는 걸음길에서 그런 혜옥이를 대할 때 상진은 심장 한구석이 찢어터져 죄어드는 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때마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자기가 아직도 어리석은 미련에서 헤어나지 못했다고 자책하곤 했다.

행군 이틀째만에 적의 기계화보병과 부딪쳤다.

빈번한 화력전, 적들을 끌고 사라져버리는 유인전투로 엄호조성원은 점점 줄어들었다.

나흘째 되는날 오상진이까지 하여 엄호조성원이

세명이 남았을 때 그들은 한개 중대가량의 적들에게 발목을 잡혔다.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워 결판을 보는가, 아니면 몇사람이 남아 대오의 구원을 위해 결사전을 벌리는가, 여기서 오상진은 후자를 택했고 그 자신이 두명의 대원과 함께 떨어져 싸울것을 결심했다.

오대산줄기의 이름없는 고지에서였다.

어슬넛, 사격할수 있는 사람은 부상병까지 다 입시켜 전투좌지를 차지하게 했다. 적들로 하여금 이제껏 해오던 유인전이 아니라 고착상태에서 결사전을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첫 공격은 전체의 힘으로 물리치기로 하였던것이다.

전투조직을 끝낸 오상진이 자기의 좌지인 진대나무통뒤에 와 엎드렸을 때 한사람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그의 옆에 엎드렸다. 리혜옥이었다.

가쁘게 뿜는 그의 숨소리와 녀성고유의 체취는 오상진에게 이름할수 없는 불안과 함께 고마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때까지 중대장이 떨어지면 어쩌느냐고 떠들썩하는 《소란》을 묵연히 지켜보기만 하던 혜옥이었다.

혜옥은 자동총을 진대나무통우에 의지해놓고 땀뻘 눈길로 골짜기를 내려다보다가(이때는 적들이 이미 산개대형을 펼치고 여유있게 밀려올라오고있을 때였다.) 군의며 전사들이 다 지켜듣는다는것도 잊은듯 날카로운 어조로 말을 때었다.

《중대장동진… 자기가 꼭 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까?》

군의며 여느 전사들이 하던 소리와 같은 질문이었다.

상진은 씩씩한 미소를 짓고말았다.

《난 이런 경우 누구보다 나 자신을 믿습니다. 나보다 더 능하게 싸울수 있는 동무가 있다면 내가 그와 담가채를 교체해 잡지요.》

《중대장동진 거짓말을 하고있군요. 다들 위험하기때문에, 어렵기때문에 남는다고 하더군요. 최악의… 비극적인 결과가… 올수 있다는것으로.》

《하긴… 그럴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난 그런일이 없게 하기 위해 떨어지는것이지요. 이럴 땐 누구보다 자신을 더 믿게 되니까요. 또 하나, 마음이 편하기 위한데도 있습니다. 내대신 다른 사람을 떨궈두면… 수명감소가 올수 있으니까. 허허…》

상진은 너털웃음을 쳤다. 그때 감시병의 《적 출현!》 하는 웨침과 더불어 격발기 여닫기는 소리가 울렸다.

《어깨를 좀더 낮추시오.》

오상진은 혜옥에게 한마디 일깨우며 잡관목속에

서 얼씬거리는 철갑모들을 경기관총 조문속에 넣어 보았다.

하나 혜옥은 적들쪽은 보지 않았다.

《중대장동지!》

불시에 그의 목소리가 가늘어지며 떨리었다.

《절 나쁜 너자로 생각하나요?》

오상진은 가슴이 움찔했다.

《그런 말은 더 하지 맙시다.》

그는 경기관총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수십정의 총구에서 불줄기가 뿜겨져나갔다. 혜옥의 자동총도 불을 토했다.

총성과 비명의 어지러운 소음속에서 오상진은 문득 바람소리처럼 숨새어나오는 말소리를 알아들었다.

《지난날 일들… 용서해주어요. 전… 중대장동지를 영원히… 좋게 생각하겠어요.》

오상진이 피땀 고개를 돌렸을 때 혜옥은 더는 그를 보지 않았다.

약간 이지러진 창백한 얼굴에서 황황히 타는 눈길이 적들을 쏘아보았고 런발사격의 반충에 잔파도치듯 어깨를 떨었다.

하얀 이로 아래입술을 꼭 깨물고있는것이 애처로움게 가슴에 파고들었다.

오상진이 두 대원과 함께 도망치는 적을 다 쫓아 골짜기까지 내려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대오는 이미 약속한대로 떠나 멀리 심연속으로 어둠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상진이 자리잡았던 진대나무통뒤 잔디풀우에는 하얀 봉대통구리와 마키롬병 두개가 땀그렇게 놓여 있었다.

상진은 가슴이 몽클해졌다.

(어쩌면 그와 더 가까와질수도 있지 않았는가.)

이 순간 그의 뇌리속에 뛰여든 혜옥은 그전날과 달리 먼 하늘가의 고운 노을빛이었을뿐아니라 손내밀면 잡힐듯한 애뜻하고 다정한 벗이었다.

하나 알곳은 희망에 가슴뛰는것은 순간뿐 다시 밀려든 적들은 그런 감상에 도취될 시간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적들의 다섯번째 돌격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오상진은 치명상을 당하였다.

숲속으로 내빼는 적들을 사격하는데만 몰두한 나머지 시꺼먼 공같은것이 날아와 곁에 떨어지는것을 몰랐다… 룽공포란이었다.

눈부신 섬광을 느끼며 한마디의 신음소리도 내뱉지 못하고 아픔도 느끼지 못한채 번듯이 네활개를 펴고 나동그라졌다.

망각과 무아의 세계에서 그는 어느 한순간 군의며 전우들과 함께 혜옥이까지 보았다.

《죽음이다!》 하는 애달픈 느낌속에서 그는 이 《환영》들을 보며 삶으로, 현실로 돌아오려고 모지름 썼으나 또다시 캄캄한 밤이 왔다.

마가을 찬비가 짙어진 창호지로 뿌리쳐들어오는 어느 한 농가에서 그는 의식을 회복하였다.

환성어린 웨침에 뒤이어 뛰어드는 여러 사람들속에 리혜옥이까지 있을 때 그는 이 모든것이 환각이려니 생각했다.

허나 군의의 뜨거운 포옹과 사연설명이 그로 하여금 모두가 구원되었고 자기 역시 살아났음을 알게 하였다.

먼저 전투에서 적들을 유인하여 간 전투원들이 부대를 만나 구원조를 이끌고왔던것이다.

상진은 흐리마리한 의식속에 뭔가 인사말도 하고 묻기도 하고싶었으나 다시 혼미상태에 빠져들었다.

그가 입술에 딱딱한 쇠붙이의 감촉을 느끼며 두번째로 정신을 차렸을 때는 리혜옥이 혼자 있었다. 《깨어나셨군요.》

반가움에 떨며 나직이 뇌이는 혜옥의 눈에는 기쁨어린 빛이 방전하는 불꽃처럼 피어났다.

상진은 그의 손에 들린 늙은가락이 춤추듯 떠는 것을 보았다.

혜옥은 꿀에 미움을 탄것이라고 하며 어서 들고 하였다.

상진은 입을 벌릴수 없었다. 우선 부끄러웠던것이다.

《아이, 왜 이러세요. 좀전까지는 곧잘 자시더니.》

상진은 이때야 자기가 혜옥이앞에서 어린애가 되었음을 알았다.

《이제 마차가 와요. 먼길을 가자면 든든히 자셔야 해요.》

손가락이 입술을 간지럽히고 이발을 짓조았다.

들크무레한 물이 입안으로 흘러드는것을 느끼며 상진은 눈을 감았다.

가슴굽이 저려들며 뜨거운 눈물같은것이 교여울랐기때문이었다.

《고맙소.》

상진이 몇손가락 더 받아먹고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표하자 혜옥은 얼굴을 붉히며 그의 눈길에서 외면하였다. 그리고 서둘러 말했다.

《중대장동진 참 행복해요.》

저마끔 자기들의 피를 뽑아넣느라고 얼마나들 왔겠는지 알아요? 글썄 우리 부상병동무들까지... 피를 뽑겠다고 야단을 했어요.

근데 전 한방울도 못넣어드렸어요. 중대장동진 마음 후한 O 형인데 전 각쟁이인 AB 형이었거든요.》

혜옥은 천진란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상진이라도 그에 따라 싱그레 웃었다.

그처럼 매몰차고 도고하기만 하던 처녀가 이와같이 상냥하고 다정한데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군의가 들어와 마차가 도착했으니 당장 떠나야겠다고 했다.

마차에 실릴 때 상진은 여러 사람이 지켜본다는 것도 아랑곳않고 오직 혜옥이만이 진실한 대답을 줄것 같아 간곡히 물었다.

《내가 이제 완전히 폐물이 된것이 아니요?》

《안예요. 절대, 꼭 나아요.》

상진은 혜옥의 눈가에 눈물같은것이 맺도는것을 보면서 이 너자를 잊는다는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

《혜옥동무! 내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또 빨래줄을 꿸겠습니다.》

《그래요. 꼭 다시 만나요. 그때 빨래줄이 안끊어질것이에요.》

혜옥은 말끝을 흐리며 두손으로 입을 가렸다.

마차가 떠나자 뒤따라오던 혜옥은 상진의 웃웃주머니에 뭔가 딱딱한것을 밀어넣어주었다.

부디 잘 가라고, 잊지 말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상진은 처녀의 부드러운 말과 가냘픈 손끝의 감촉에 입술만 깨물었다.

어둠과 밝음이 교차되는 속에 때로는 별쁜 하늘을 보기도 하고 소나무가지에 매여달린 까치둥지우리를 보기도 하며 마차로부터 위생차로, 다시 기차에 실려 먼 후방병원에 간 그는 어느 하루아침에 자기의 오른팔이 없어졌음을 알았다.

담당의사는 부릅뜬 눈으로 쏘보는 오상진에게 그 만해도 다행이라고, 머리에서 뽑아낸 세개의 파편까지 보이며 말했으나 그에게는 아무런 위안도 못되었다.

오상진은 밤마다 소독수에 절은 백포를 짓씹으며 울었다.

싸움터에도 못나가게 되고 평생 남들의 짐이 되었다는 생각은 미칠듯한 절망감을 몰아왔던것이다.

재진격과 더불어 량피참모로부터 보내온 한통의 편지는 그의 고통을 극한점으로 몰아갔다. 편지에는 부대가 제2제대계선에 들어와 휴식을 하고있다는 사실과 함께 혜옥에 대한 소식도 상세히 적혀있었다. 혜옥은 줄곧 그만 생각하며 기다리고있다는 것이었다.

《...그에게 편지를 하라구. 그예겐 동무가 영웅이고 하나밖에 없는 남성이기때문일세...》

그날밤 상진은 뜬눈으로 꼬박기 밝혔다. 그리고 량피참모에게 짤막한 회답편지를 썼다. 제대되게된다는것과 그때면 부모가 봐둔 처녀에게 장가들것이

라는것을 밝히고 혜옥에게는 부디 자기를 잊게 해달라고 썼다. 발신인주소는 적지 않았다. 혜옥이한테는 물론 량피참모에게도 숨어버리기로 결심한 그였다.

편지를 보내고난 뒤부터 그는 전혀 말이 없는 사람으로 되고 말았다. 개인적삶에 대한 욕구와 애착은 사라졌다.

근 반년간 병원생활을 마치고 전상자제대증을 가지고 퇴원할 때 접수와 간호원이 넘겨준 그의 사품속에서는 혜옥의 기념인 거울도 있었다. 여기서 처음으로 상진은 거울뒤면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량태머리처녀의 사진이, 그것도 화보에서 오려낸 배우의 사진이 아니라 혜옥의 모습이 박힌 사진이 붙어있는것을 알아보았다.

가슴이 부처가락에 지지우는듯한 아픔과 온몸의 피가 싸늘히 식어 응고되는듯한 허탈을 체험하였다.

《참 예쁘게 생겼군요. 안해인가요, 아니면 약혼녀인가요?》

접수와 간호원의 물음에 상진은 거뭇게 죽은 얼굴로 무뚝뚝히 대답했다.

《위문품으로 받았던 거울이요.》

고향에서는 또하나의 슬픔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적의 함포사격에 부모가 희생되었던것이다. 뼈아픈 상실의 비애를 달랠길 없던 그는 병원에서 사귀었던 한 친구의 정을 따라 평양과 가까운 7군으로 갔다. 군에서는 전상자군관에 대한 국가적혜택으로 실것을 권했으나 그는 친구가 일하고있는 공장 수류탄작업반에 비제적성원으로 출근하였다.

처음에는 수류탄지철을 찍는 애어린 처녀프레스공의 보조원으로 있다가 얼마후부터는 직접 프레스를 다루게 되었다.

드디어 전쟁은 끝나 전승의 축포가 울랐다. 오상진이네 공장지대에는 한개 대대의 전선용사들이 나타나 전승열병식훈련을 하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세의 함성을 웨치며 대렬훈련을 하는 이들의 씩씩한 모습을 구경하는 사람들속에는 늘 오상진이가 끼워있었다.

선망과 부러움 속에 말없이 쓸쓸한 눈길로 보았다.

그런 어느날 저녁 뜻밖에도 량피참모가 오상진이든 하숙집에 나타났다.

《이 물귀신아, 돌덩이야, 이처럼 숨어버리는 법이 어디 있는가.》

온 동네가 떠나갈듯이 고아치며 상진이를 끄잡고 한바탕 휘돌구던 량피참모는 상진의 허렁허렁한 팔소매를 감촉하자 일순 얼굴을 이지러뜨렸으나 더 청을 높였다.

《팬찮아. 죽기도 하는 판에 산것만도 어덴가.》

량피참모의 어깨에는 소좌의 견장이 붙어있었고 가슴팍에는 여러개의 훈장이 번쩍었다. 그는 이번 전승열병식에 부대가 참가하게 되면서 이전 공로자들까지 다 데려오게 했다면서 찾아왔다고 했다.

상진이를 찾아 멀리 경성에까지 갔다온 량피참모였다.

그 소리에 상진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부대가, 전우들이 자기를 잊지 않고있다는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근데 처는 어디 있나?》

량피참모의 첫 질문이었다.

오상진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병어리웃음만 지어보였다.

《그러니 속엿단 말이지.》

량피참모는 너무나 억이 막혀 한동안 말없이 보기만 하다가 상진의 빈팔소매에 눈길이 닿자 모든것을 리해한듯 길게 한숨을 지었다.

《다들 잘 있나?》

상진이 화제를 돌렸다.

《잘 있지. 가보면 더 잘 알거구... 혜옥인 지금 중위야.》

《발전했군.》

무관심한듯한 상진의 말투에 량피참모는 비난어린 눈길로 쏘보며 심술궂게 말했다.

《그는 인차 제대될걸세. 사단작전과장하고 말이 있으니까.》

오상진은 가슴이 싸늘히 얼어드는것을 체험했다. (내가 왜 이렇가. 그렇게 될것을 바란 내가 아니었던가.)

그는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진 심리속에 어색한 미소를 띠우며 말했다.

《잘됐군그래.》

《뭐라구?》

량피참모의 눈에 불씨가 튀었다.

《그따위 연극은 작작 하라구.》

그가 동무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아나. 그는 줄곧 기다렸어. 동무의 그 어리석은 편지를 보고는 울었지. 그러면서도 동물 나뻐 생각진 않았어.

오히려 자기가 철없고 못된 녀자여서 그런다고 동무를 두둔하더군.

문제는 동무탓이야. 자넨 비겁쟁이고 시라소니야.》

상진은 심장이 란도질당하듯 아파났다.

《그만하라구. 임자도 내 처지면 어쩔수 없었을걸세.》

그와 같은 녀성이 나같은 외팔이에게 어디 가당한가. 설사 그가 진정으로 나를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이 나에겐 고통으로 될걸세. 한 아름다운 녀성이

나로 하여 희생된다는것으로 일생 피로움과 가책이 따를거란 말일세. 안그런가, 응?!》

량피참모는 대답을 못했다. 담배만 꾸역꾸역 피워댔다.

량피참모가 떠나자고 일어설 때 장진은 호의는 고맙지만 가지 않겠노라고 했다.

그 거절에 량피참모는 몹시 분개해했다.

《임자 혜옥이때문에 그러나?》

단통으로 찢려대는 역습에 상진은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부탁이네. 나에 대해서 일체 모르쇠를 해주게.

난 전우들에게 흐린 기분을 주고싶지 않네. 여하튼 외팔이가 아닌가.》

상진의 말이 얼마나 쓸쓸하게 들렸던지 량피참모는 한동안 외면한채 침묵을 지켰다.

좁아터 자신을 다잡은 량피참모가 《돌덩이》요 《소시민감정》이요 하며 술한 대명사를 썰어질욕을 퍼부을 때 상진은 멧적은 미소를 띠운채 수난자의 몰골로 그 욕들을 다 받아들였으나 가지 않으려는 결심만은 굽히지 않았다.

며날 때 량피참모는 눈곱이 붙듯해 다시 오겠다는 말과 함께 변하지 않은것은 남성의 우정뿐이라고 하며 뜨거운 작별포옹을 하였다.

량피참모가 남기고 간 담배연기가 뽕안속에서 상진은 배낭깊숙이 건사했던 혜옥의 거울을 꺼냈다.

뒤면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던 그는 거울테로 두른 필름을 벗겨내었다. 거울이 두장의 유리로 갈라지며 사진이 떨어져내렸다.

발랄한 미소에 싸인 처녀가 엄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저를 버리는건가요?》

상진은 다시 그 사진을 집어들고 보다가 구석쪽 앉은뱅이책상우에 놓아둔 가족사진액틀속에 끼워넣었다. 상진이 가운데 서고 결상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선 16절지 반만한 크기의 사진속에서 성냥갑 크기의 혜옥의 사진은 어머니곁에 자리잡았다.

일을 끝낸 상진은 손등으로 이마를 훑치며 허구픈 미소를 지었다. 가슴이 몹시 쓰렸다.

사진속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의 곁을 영원히 떠나간 사람들이였기때문이였다.

전승열병식이 있는 날밤, 공장구내는 쥐죽은듯한 정적속에 잠겨있었다. 온 하루 라지오앞에서 열병대오의 호흡에 맞춰 만세를 부르고 발을 구르던 사람들이 깊은 안식속에 잠들어있을 때 오상진은 직장에 나와있었다.

전승열병식장에 전우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피로움을 일로써 잊으려 했던것이다.

번거로운 생각속에 철편을 찍어내는데 문소리가

울렸다.

정리원아바이라고 생각하며 돌아보던 상진은 저도 모르게 손에 들었던 철편을 떨켜버렸다.

문가에는 한 녀성군관이 서있었다.

오상진은 몸을 떨었다.

약간 창백한 얼굴로 서있는 녀인은 오상진이 것처럼 잊으리라 하면서도 잊지 못한 혜옥이였다.

《동무가!》

그는 술취한 사람마냥 비칠거리며 일어섰다.

《안녕하십니까? 중대장동지!》

《안녕하오?》

상진은 기계적으로 되받으며 어금이를 지그시 깨물었다.

혜옥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예전보다 더 깊이있고 세련된 아름다움이였다.

《뭘하고계세요?》

혜옥은 엇그제 헤어졌다 만나는 사람처럼 천연스러운 표정이였다. 상진은 자기가 찍어낸 철편들을 둘러보다가 말했다.

《이건 창문을 짜는데 쓰는거요. 얼마전까진 수류탄지철을 찍었는데 이젠 복구건설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제가 오면 안되는가요?》

《아, 그런건 아니고...하여튼 반갑소. 정말 오래간만이요.》

상진은 모자를 벗어 열기대의 기름에 절은 토막의자를 닦아 혜옥이앞에 놓아주었다.

《고마워요.》

혜옥은 앞전스레 앉으며 오상진을 찬찬히 여겨보았다. 그와 마주앉은 상진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형타모서리굽에 성냥갑을 세우고 불을 켰다. 팡끗하고 일어나는 불길을 보는 혜옥의 눈에 미소가 어렸다.

《익숙되었군요.》

《익숙되었소.》

상진은 문득 기분이 밝아졌다. 이 녀자의 출현으로 방금까지 당황하고 복잡했던 심리가 담배연기와 함께 뿔겨져 사라지는것 같았다.

《처음엔 이것저것 불편한것이 많았소. 그런데 모든건 다 습관될타이더군요.》

《그래도... 이런 일을 꼭 하셔야 해요?》

혜옥은 상진이 찍어낸 철편들을 근심어린 눈길로 보았다.

상진은 싱그레 웃었다.

《이 일은 아주 재미있소. 그리고 이 오상진이 산송장이 아님을 증명하는것이기도 하고.》

《그럼 한번 찍어보세요.》

그 순간 상진은 자기의 숨씨를 뿔내보고싶은 소

넌다운 승벽감에 휩싸였다.

《이건 간단하오.》

한쪽 입귀에 담배를 돌려문 그는 어느때였던 재빠른 동작으로 철판을 찍어냈다.

연신 찍혀져 떨어지는 철판들을 보는 혜옥의 눈빛이 황홀해졌다.

상진은 어금이를 악물며 더 빨리, 더 세차게 손발을 놀렸다.

《앗!》

소리는 혜옥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실수로구나!)

오상진이 손을 쳐들어보니 약손가락 한끝이 물크러졌다. 쫓내기 신임공들에게서나 있을수 있는 사고였다. 철판을 쥔 손을 지내 깊숙이 밀어넣는통에 내려치는 형타의 쇠불이가 손끝을 짓이켰던것이다.

《헛, 참.》

오상진은 손가락의 아픔보다 혜옥이앞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것이 통분할만치 괴로웠다. 마치 경기에 나가 적수에게 참혹한 타격을 받고 쓰러진 권투선수와 같은 우울한 심리속에 자기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빨간 피방울이 피어올랐다.

상진이 그 손가락의 피를 옷설에 문대려는데 하얀 손이 재빨리 그 손가락을 잡아쥐었다.

오상진은 어색하여 고개를 돌렸다.

혜옥은 재빠른 동작으로 성냥갑의 약지를 찢어 상처에 붙이고 손수건을 꺼내 동여매었다.

상진은 언젠가 이 녀자의 손에서 미움을 받아먹던 일을 생각하였다. 찌르르한 아픔이 가슴줄기를 훑어내려갔다.

《저녁식사는 했습니까?》

《했어요. 독신자면회에 식사를 안하고 오면 되겠어요.》

혜옥은 생긋 웃으며 말했다.

《집구경을 시켜주셔야지요.》

《갑시다.》

상진으로서는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공장정문을 벗어나 하숙집에 이를 때까지 거의 말없이 걸었다.

《도와줄... 동무가 없는가요?》

혜옥이가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상진은 그 말뜻을 알았으나 똥판지같은 대답을 했다.

《있소. 있어도 많지요. 온 공장, 온 마을이 나를 돕고있습니다.》

혜옥은 더 말을 하지 않았다. 발부리만 내려다보며 걸었다.

하숙집 방에 들어서 불을 켜올 때 상진은 자기가 커다란 실책을 범했음을 알았다.

썰렁한 방안을 휘 살피던 혜옥이의 눈길이 책상 위에 놓인 사진액틀에 가 굳어졌다.

《중대장동진 저 녀자를... 버린진 않았군요.》

떨리는 목소리였다.

《추억이요.》

《그러니... 언젠가 저에게 꼭 다시 오겠다고 한 말은 거짓이였는가요.》

《그전날의 일은 잊읍시다. 다 순간적감정이라고 할가, 나는 잊었습니다.》

혜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진정인가요?》

상진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온몸의 심줄이 투들투들 뛰었다.

혜옥의 눈에는 눈물이 어렸다.

《상진동지, 전 잊지 않았어요. 잊어서도 안되고... 그래서 온것이예요.》

상진은 치명상을 당한 사람처럼 얼굴을 이지러뜨렸다.

《그런 말은 그만합시다. 동무에겐... 이미... 있는 것이고... 나 역시...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진정으로 약속한건 동무뿐이예요.》

동무결에 제가 있어야 돼요.》

상진은 자기가 낭떠러지에 이르렀음을 알았다.

허나 그는 맹수같은 기질로 자기를 다잡으며 비웃음띤 소리로 말했다.

《왜 내가 불쌍해서 그런니까. 그렇지요. 난 외팔이인데다가 못난이고 더구나 혼장 하나 없는 사람이요.》

혜옥의 낮빛이 파릿하게 질렸다. 분노한 눈길이 칼날처럼 상진의 얼굴을 직시했다.

《너무하군요. 동문 옛날에 한 저의 부질없는 말로 복수하려는건가요. 그런데 동문 그 말로 자신만 아니라 조국을 위해 피를 바친 모든 사람들을 모욕하고있다는걸 알기나 하세요.》

전 오늘 전우들을 위해 희생적싸움에 나서는걸 행복으로 알던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없군요.》

상진은 고개를 떨어뜨리었다. 온몸의 피가 짹짹 처나가는듯한속에 서있을 기력까지 없었다.

혜옥이를 보지 않고 말했다.

《이젠 쉬시오. 차는 새벽에 있으니까. 난 동무 집에 가서 자겠습니다.》

쫓기듯 방을 뛰쳐나왔다.

상진은 향방없이 걸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 못가서 자기뒤로 혜옥이가 따르고있음을 알았다.

상진은 우뚝 멈춰섰다.

《왜 쉬지 않습니까?》

달빛속에 드리난 눈물로 번들거리는 사나이의 얼

굴을 알아본 혜옥은 숫진 웃음을 머금었다.

《제가 방금 말하지 않았는가요.

동무결에 있겠다고.》

오상진은 더는 자기를 이겨낼 힘이 없었다.

《혜옥이, 난 나때문에 동무가 희생되는걸 바라지 않소. 그러나 난 동무를 영원히 잊지 않겠소.》

《안예요. 영원히 나를 아껴줘야 돼요.》

혜옥은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방긋이 웃었다.

《그리고 말예요.

자기가 바라는것이 기쁨으로 될 때엔 어떠한 희생도 없다고 해요.》

《혜옥이!》

하나의 형제로 된 두사람을 가리려는듯 달은 구름속에 숨어버렸다.

진정한 사랑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 데 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답고 값높은 사랑은 조국애를 원점으로 한 사랑이다.

오늘날 영예군인들에게 시집, 장가를 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높이의 세계에 있는것이 아닐가.

오상진영웅도 그렇게 말했다.

그는 자기가 영웅이 된데는 안해의 뒤받침이 컸다는 말로 이 이야기의 끝을 맺었다.

그 말을 할 때 영웅로병은 20대의 청년처럼 얼굴을 붉히었다.

더욱 부강할 내 조국의 크나큰 공지를

안중철

스치는 바람결도 여기서는

단가슴 식혀주려

조심조심 멈추어서고

보석처럼 반짝이는 저 하늘의 별들도

꽃보라인양 쏟아져내리는가

떠들썩해라

어버이수령님 유훈 관철에

낮에 밤을 이어 최고실적을 돌파했다고

방금 들어온 소식을 알리는

현장방송원의 힘찬 목소리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대안의 사람들 산악처럼 일떠섰나니

빛나라 눈부시여라

채 식지 않은 제품들을

가슴마다 버그리지게 안아보며 마주보는 눈빛들

아 눈길을 들면

어마어마한 새형의 발전기

7월의 그날을 소중히 새겨안고

이제 막 세찬 동음을 터질듯

우리 수령님

생의 마지막순간에 주신 유훈을

심장속 깊이 간직했어라

머리흰 직장장도 나어린 선반공도

한자한자 새겨보고 되새겨보며

오 수림처럼 일떠서는 발전소들

이 강산 곳곳에서

어서 새형의 발전기동음이 듣고싶다고

넓은 품을 벌려 밀물쳐오는가

우리 대안의 구내길로

힘이면

우리 수령님 믿음으로 다져진 무비의 힘

신념이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의지와 신념으로

대를 이어 그 유훈 꽃피워가리

충효의 불길로 타번지는 새 소식

방송원의 감격에 젖은 목소리

어이 대안의 구내길에만 멈추어두라

새형의 발전기 세찬 숨결로

세상만방에 소리쳐 자랑하리

조선은 위대한 자력갱생의 나라라고

아 축복받은 대안의 사람들이여

가슴 부풀도록 받아안으라

수령님 생전의 뜻대로

이제 새형의 발전기는 우렁찬 동음을 터치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내 조국의 무궁한 행복을

내 조국의 영원한 공지를

두번다시 피어나 향기품긴 목란꽃

우리 나라 반만년력사에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받들어모신 위대한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한 우리인민은 억막힌 비감으로 땅을 치면서 수령님을 목놓아 부르며 몸부림치고있었다.

믿을래야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사실이면 너무나도 엄청난 아픔이어서 이 나라 백성들이, 세계의 뜨거운 마음들이 터뜨리는 이 통탄의 부르짖음에 산천초목도 비분에 떨며 사무친 설움에 몸부림쳤다. 하늘땅도 뉘성을 울리며 눈물을 휘뿌렸고 바다도 격랑을 일으켰다.

우리 수령님의 사랑의 발자취가 어린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단군5천년 이래 처음 보는 신기한 천지조화, 자연현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 사람들을 더욱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하였었다.

지난 8월초.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지 한달이 되는 바로 그날 황해북도 사리원시 상매산기슭에 모셔진 아버지수령님의 동상 주변의 골안마다 여느때없이 목란꽃들이 활짝 피어났다.

지난 7월 16일 밤 11시 30분경에 이곳 상공으로 남쪽에서 날아온 16마리의 백학이 수령님의 동상 상공을 세바퀴 돌다가 평양방향으로 날아간 신기한 현상이 있었다. 이에 이어 5~6월에 활짝 피어났던 목란꽃이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한달을 맞으며 8월에 두번다시 피어난 전례없는 이 자연현상을 보며 사람들은 30년전 력사의 그날을 더듬어보았다.

그날은 온갖 꽃 피어나 향기를 풍기던 1964년 화창한 봄날이었다.

황해북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이곳 휴양소에 들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갖가지 꽃들이 다투어 피어난 정원의 꽃밭에서 류달리 크고 소담한 함박꽃을 보시고 칠골외가에도 이런 꽃이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크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추억에 잠기신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참 좋은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올것입니다.

나도 어렸을 때 할머니님과 함께 여기에 왔었습니다.

그때 내가 저 성문밖에서 무슨 꽃인가 류달리 꽃잎이 흰 참 좋은 꽃을 보았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때 곁에서 수령님의 이 말씀을 주의깊게 듣고 계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이튿날 오후 이곳 일꾼들을 통해 산의 지형과 수림구성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수령님께서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그토록 못잊어하시는 미지의 그 꽃을 꼭 찾

아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 잊지 못해하시는 그 꽃나무가 이 지방에서 함박꽃나무라고 부르는 꽃나무인것 같다고 하시면서 꽃은 언제 피며 나무줄기의 색깔과 잎의 생김새 등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다음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께 그 꽃나무를 보여드리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꽃나무를 여러모로 살펴보고 꽃망울도 만져보시며 향기도 맡아보시였다.

문득 아버지수령님의 안광엔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이 꽃이요. 내가 이야기하던 꽃나무가 바로 이것이요!》

이윽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꽃나무 주변을 거니시며 깊은 사색에 잠기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님앞으로 한걸음 나서시며 정중히 말씀올리시였다.

《함박꽃은 향기가 없지만 이 꽃은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와 가지가 실하고 잎도 류달리 크고 보기 좋습니다. 꽃나무로서는 아주 특이한것 같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말씀에 수긍하시였다.

《그렇소, 특이한 꽃나무요!》

그러시더니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꽃나무를 그저 함박꽃나무라고 부른다는것은 어딘가 좀 아쉬운 감이 있소.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에는 〈란〉자를 붙였는데 내 생각에는 이 꽃나무의 이름을 〈목란〉이라고 부르는것이 좋겠소.

목란! 나무에 피는 아름다운 꽃이란 말이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탐스러운 꽃망울을 받쳐드시고 유심히 보시며 다시 향기를 맡아보시였다.

《이제 꽃이 피면 보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굳세면서도 소박하고 고상한 맛이 있어 조선인민의 슬기로운 기상을 그대로 담은것 같은 훌륭한 꽃이요.

나는 산에서 싸울 때도 이 꽃을 생각하며 조국을 그리곤했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깊은 감회에 잠기시여 꽃나무둘레를 조용히 거니시였으며 오래도록 발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잊을수 없는 그날 우리 인민들이 현지지도의 길우에 쌓이고쌓인 위대한 수령님의 피로를 덜어드리려 피워놓은 꽃에서 오히려 이름없이 묻혀있던 꽃을 찾아 이름도 지어주시여 우리 인민의 심장속깊이 뿌리내리게 해주신 아버지수령님!

정녕 우리 수령님은 인민을 위해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주시고 바칠수 있는 모든 로고를 다 기우려오신 한없이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이시였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새 생명을 되찾은 목란꽃도 어제나 오늘이나 꿈결에도 어버이수령님을 그리워 찾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소원을 담아서인지 자연계의 생존방식을 초월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다시 피어나 향기를 풍기고있는것이였다.

30년전 그날을 못잊어 또다시 피어난 목란꽃을 보며 사람들은 심장으로 웨쳤다.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온 손길아래 목란꽃은 사랑과 행복, 희망과 미래, 억센 신념의 상징으로 조선의 국화로 만발하게 피어났습니다.

수령님께서 생전에 것처럼 사랑하시고 키워주신 목란송이들이 8월에 다시한번 아름답게 피어 향기를 풍기는데 어찌하여 수령님은 한마디 말씀이 없으십니까.)

위대한 력사의 그날을 잊지 못해 두번다시 피어난 목란꽃, 마치 그 어느 동화세계에서나 보는것같은 꽃의 신기한 자연현상을 두고 사람들은 정녕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천기를 타고나신분이시며 하늘이 낸 전설적영웅, 만민이 우러러따르는 가장 걸출한 위인이시라고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못잊어 피어나고 향기를 풍기는 저 목란꽃이 조선의 국화로 영원하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 조국과 인민의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

참으로 신비롭게 다시 피어난 목란꽃은 수령님께 못다바친 충효를 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더해드리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의 상징이며 그이의 령도따라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이 땅우에 꽃피워갈 우리 인민의 피끓는 맹세의 상징이였다.

본사기자

꽃을 피웁니다

정은옥

못가신다고
우리를 두고 못가신다고
백여리 영결의 연도에
눈물의 바다되어 막아서던
그 마음들이 꽃을 피웁니다

눈물속에 날이 새고 날이 밝던
비분의 낮과 밤
못다한 자식의 도리를 두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던 그 진정들이
넋을 태워 시간을 태워
일터마다 기대마다 꽃을 피웁니다

어찌 아니 피울수 있으리까
한송이 또 한송이
추모의 아픈 꽃을 꺾으며
천송이 만송이 효성의 꽃을
심장속 깊이 심고심은 우리거니

그 마음을 피웁니다
순간도 잠들지 못하는
열풍 세찬 전기로의 붉은 쇠물꽃으로
뜨겁게 그려안은 논벌들에

다투어 피어나는 벼꽃으로
폭포쳐내리는 저 아름다운 비단꽃으로

아 수령님
자나깨나 믿고살던 마음들이
정녕 수령님과 떨어질수 없어
심장속에 영원히 모시고살
온 나라 한결같은 그 념원들이
일이 되고 향기 되어 피고피는 효성의 꽃

이 세상 그 어느 아름다운 꽃도
슬픔을 이기고 피는
이 꽃보다 더 강할수 없고
태양의 귀중함을 사무치게 느껴안은
이 꽃보다 더 향기로울수 없으리니

꽃을 피웁니다
수령님을 모시던 그 마음
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어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영원히 지지 않을
아, 일편단심 효성의 꽃
꽃을 피웁니다, 꽃을 피웁니다

불멸의 위업에 대한 시대의 찬가

-장시 《빛나라, 불멸의 위업이어》에 대하여-

류 만

우리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며 사회주의총진군을 다그치고있는 가운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0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수천년을 헤아리는 인류력사에서 30년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30년은 그이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발전풍부화시키시고 그것을 조국력사에 찬란히 꽃피워오신 영구불멸의 업적으로 빛나는 영광의 년대, 투쟁의 년대, 혁명의 년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은 새로운 양양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당사업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혁신과 양양이 이룩되었습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걸어온 지난 30년의 자랑스런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엔 오늘 당과 혁명의 수위에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 자부심이 가득차 있으며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다함없는 격찬과 칭송의 감정이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장시 《빛나라, 불멸의 위업이어》(오영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영원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향도의 30년,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30년을 노래하는데 바쳐진 의의있는 작품이다.

물론 한편의 시에서 30년, 그것도 보통의 30년이 아니라 세기적 사변과 변혁으로 가득찬 30년을 노래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시인은 인류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영광의 30년을 노래하는데서 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고결한 인간적품모와 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치, 인덕정치를 베푸시는 인민적령도자의 령도품모에 초점을 돌림으로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숭고한 경지에서 열렬히 칭송할

수 있었다.

시를 읽으면 그 구절마다에서 위대한 인간, 위대한 정치가,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이 감동적으로 부각되면서 그이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숭배와 흠모의 감정이 절절히 흘러넘치고있다.

시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영명하신 **김정일**동지를 숭배하고 모시고따르던 감동적인 그 나날에 대한 잊을수 없는 추억을 감회깊이 펼치면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조국을 가장 위력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우리 인민을 가장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라는데 대해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열렬히 칭송하고 있다.

시인은 《그리운 회고, 행복한 추억》속에 《그 시절을 감회깊이》 돌이켜본다.

시에서 보는것처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와 《우리》사이에 오고간 숭고한 사랑과 존경으로 맺어진 류다른 인연속에서 인민은 《그이를 옷분으로, 경모하는 지도자로, 다음엔 친애하는 지도자》로 부르며 위대한 인간과 령도의 매력앞에 마음을 다 맡기고 따랐다. 이러한 나날의 흐름속에서 인민은 그이의 숨결을 당의 숨결로, 그이의 의지를 당의 의지로, 그이의 인간적품모를 당의 모습으로 느끼며 그이를 가장 친근하게 《우리 당, 어머니당》으로 우러르며 받들어왔다.

시에서는 이러한 시형상을 통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인민이 진심으로 받들어내세운 우리 인민과 당의 위대한 령도자이심을 감동적으로 노래하였다.

시인이 《레사로이 맞이한 보통날이었다》고 한 1964년 6월 19일, 이날이 력사의 흐름속에 가장 밝은 광채를 뿌리며 불멸의 년륜으로 아로새겨진 가장 의의깊은 력사의 날로 인민의 기억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지게 된것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인간적품모와 령도의 위대성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매력과 관련된다.

이날로부터 그이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는 시대와 인류의 방향타로 되었고 그이는 전인민적인 신뢰와 흠모의 절정속에 서게되게 되었다.

그날이 《레사로이 맞이한 보통날》이었던것과

같이 그날의 그이의 모습 또한 수수한 옷을 입으신
소박한 인민의 모습이시었고 따로 마련한 조용한
방도 굳이 사양하시고 보통책상과 보통의자에 자리
잡으신 겸허하고 소탈하신 모습이시였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이의 소박하고 겸허하신 보통
의 모습속에 결코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천리혜안의 비범한 예지와 뛰어난 담력이 빛나고있
었다는것을, 그이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력으로 우
리 당과 조국의 위력, 인민의 존엄은 만천하에 떨치
게 되었다는것을 심오한 시형상으로 밝히고있다.

그러나 그이께선 이 보통의자우에서
누구도 볼수 없는것을 꿰뚫어보시고
우리보다 먼곳을 내다보시였어라
...

정녕 그이 아니시라면
그 누가 수령님 뿌리신 주체의 씨앗을
무성한 숲으로 가꾸시어
온 사회 주체사상화를 우리 당의 강령으로
누리에 자랑높이 선포하실수 있었으랴

우리가 오늘에 생명으로 지닌
전사의 신념과 의지
혁명가의 깨끗한 량심을
그 누가 우리에게 줄수 있었으랴

...
오직 한분
우리 당에 백두산을 안고오신 지도자동지
그이는 자신께서 서계시던
백두의 그 높이에
우리 당을 끌어올리시어
백두의 정신이 나래치는 당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들의 가슴속에
백두산처럼 높고
백두산처럼 뿌리깊어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림없는
위대한 우리 당을 안겨주시였어라

시에서는 때로 수면우의 사소한 변화에서도 그밑
에 흐르는 해류의 큰 움직임을 보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상한 통찰력, 비범한 담력으로 우리당을
《하나의 뇌수, 하나의 심장》으로 고동치는 주체의
당으로 이끌어오신 친애하는 그이의 불멸의 업적
을 집약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천재적예지와
강철의 의지는 우리 당과 조국, 인민의 영예와 존엄
을 세계만방에 빛내여준 향도의 해발이었으며 무궁
무진한 힘의 참다운 원천이었다.

시에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를 그이의 심장으로 상징화하여 그이의 심장은
《태양처럼 열정에 넘치》고 《태양처럼 사랑으로
따사로운》 심장이라고 노래하고있다. 그러면서
그이의 심장에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새롭게
태어나고 그 심장의 뜨거움이 그대로 인민의 심장
에 옮겨져 《70일전투》를 비롯한 장엄한 대진군
의 불길속에서 시대의 기념비들이 솟아나 조국의
모습도, 민족의 기질도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뜨
겁게 형상하였다.

시에서 강조되고있는바와 같이 《작은 나라 작은
인민으로 스스로 몸을 사리던 약소의식》이 《어
제날 우리 민족의 기질》이었다면 오늘 우리 인민
은 《끝없는 인류의 흐름속에 더 높이 서서 세상을
굽어보는》 높은 존엄을 지닌 인민으로서의 민족적
기질을 새롭게 지닌 가장 긍지높은 모습으로 되었
던것이다.

시는 이렇게 우리 당과 인민을 주체의 당, 존엄높
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를 30년의 빛나는 로정속에 집
약적으로 시화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
성을 격조높이 칭송한 여기에 이 시의 숭고한 높이
의 새로운 경지가 있다.

시에서는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당중앙
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
는 영광스러운 30년의 역사를 펼치면서 인민에 대
한 크나큰 믿음과 사랑의 광폭정치, 인덕정치로 사
회주의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으시고 온 사회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여가
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품모를 생활적
으로 진실하고 감동깊게 노래하고있다.

남이 따로 없고
우리만이 있는 나라
내것보다
우리의것이 더 귀중하고
나의 리익보다
모두의 리익을 위해 몸바쳐가는 내 조국

이것은 인류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꿈꾸고 바라
오던 사회였다. 바로 이런 리상사회는 친애하는 지
도자동지의 령도밑에 이 땅우에 펼쳐졌다. 시에서
는 오직 그이께서 이 숭고한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
실수 있는것은 그이의 인간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믿음, 인민과의 혼연일체속에서 인민을 이끌어가시
는 탁월한 사회주의정치방식에 있다는것을 감동적
인 시형상으로 노래하고있다.

못나도 제 자식 닮하는 부모가 없듯
그렇게 수천만을 다 생각하시는
인민의 아버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정과 의리로 가슴과 가슴을 이으시며
생사도 같이하시고
고난도 함께 헤쳐가시는
그이 아니시고는 그 누가
이런 대가정의 화목과 단합을
우리에게 줄수 있었는가

시인이 깊은 감동을 머금고 뜨거운 눈물에 젖으며 전하는 《로교수의 딸 순희》의 이야기는 못나도 제 자식 탓하지 않으시고 수천만을 다 생각하시며 정과 의리로 가슴과 가슴을 이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인간애, 광폭정치, 인덕정치의 숭고한 세계를 보여주는 참으로 감동깊은 화폭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순희의 아버지가 찍은 사진에 대한 시적화폭은 순희 아버지만이 아닌 우리 인민모두를 책임지고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위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심오한 시적일반화로 되는 것이다. 이 숭고한 화폭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셨던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오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이 자애로운 모습이 뜨겁게 어려있다. 시에서는 바로 인민을 선생으로 내세우시고 하늘처럼 믿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치철학과 그이를 믿고따르는 인민의 충성의 마음이 합쳐져 새형의 《참다운 사회주의정치, 김정일식정치》가 이 땅위에 활짝 꽃피었음을 긍지높이 열렬히 레찬하고있다.

참다운 사회주의정치
김정일식정치를 우리는 노래합니다
당신은 인민의 머리우에서
인민의 심장속으로
정치가 서있어야 할 위치를 바꾸어놓으신
사회주의 새 정치의 위대한 개척자이십니다

...

당신의 좌우명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인민의 좌우명은
우리 당을 위하여 복무함!
필생의 이 좌우명이
하나로 합쳐진것이
우리의 일심단결입니다

...

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여
당신께서 개척하시고 창시하신

김정일식 사회주의정치는
단결의 완성을 이룩한 불패의 정치
이 정치를 따르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만이 있을것입니다

시인이 소박하게 표현한바와 같이 《인민의 머리우에》가 아니라 《인민의 심장속에》서 정치를 펴나가시고 인민을 희생시키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바로 여기에 참다운 사회주의정치가 있는것이다. 이것으로 하여 《관료로 인민의 머리우에 군림하고 세도로 인민을 다스》려온 모든 정치는 인민의 버림을 받고 력사의 뒤전에 밀려나게 되었지만 사회주의정치, **김정일**식정치는 그 어떤 역경과 풍파 속에서도 끄떡없이 전진하며 승리와 번영을 이룩해나가는것이다.

이처럼 장시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인민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하시고 그 일심단결로 사회주의를 지켜내고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해나가시는 위대한 정치대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대한 령도자이심을 칭송하였다.

장시에서는 다음으로 영광찬란한 30년의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사회주의의 운명과 우리시대의 진로는 오직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달려있으며 그이의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은 21세기의 언덕으로 가장 긍지높이 맨 선참으로 들어설 위대한 인민임을 자랑스럽게 노래하였다.

시에서 이러한 사상감정은 의인화된 20세기와 21세기가 하는 말에서 뚜렷이 부각하고있는데 그것은 곧 모진 광풍속에서도 사회주의위업을 지켜내시고 제국주의의 거둬드는 압력을 철의 담력으로 맞받아나가시며 온갖 불의를 짓부시고 원썬들을 전멸케 하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칭송의 감정과 그이의 품속에서 성장한 우리인민, 우리 사회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상정신적풍모에 대한 레찬의 감정과 밀접히 결부되고있는것이다.

아, **김정일**장군-그이는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가 된
무궁무진한 힘의 화신
천명의 령장이 모여도 찾아낼수 없는
현명하고 슬기로운 인민지혜의 화신
승리를 더 큰 승리로 이어가시는
영원한 승리의 화신
배짱도 장군의 배짱
담력도 백두의 담력
기상도 필승의 기상
이기는것이 천품이신 강철의 령장앞에
원썬들은 전멸하며 뒤걸음쳐거니

그것은 그이의 위대한 사상의 승리

참다운 사회주의정치의 승리
탁월한 지략과 담력의 승리
인민적령도의 대승리

이것은 20세기가 하는 《말》이다. 20세기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여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한 영광의 세기로》 되었다.

그러면 21세기의 《말》을 들어보자.

오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정치를 안고
김일성 김정일 동지께서 령도하시는 나라
조선인민이여 오시라
나는 그대들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시는
인민의 아들, 백두의 아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
나의 문을 열고 들어설
21세기의 열쇠를 드리리라

영광스러운 **김정일** 동지의 인민이여
나는 그대들의 머리우에
승리의 월계관을 얹어주고
앞가슴에 꽃목걸이를 빛내여주리라
21세기의 주인으로 기쁘게 맞으리라

20세기와 21세기가 하는 《말》은 바로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사회주의위업의 진리성과 불패성에 대한 확신이며 그 승리와 찬란한 미래에 대한 찬가이다.

시에서는 20세기와 21세기의 《말》을 통하여 시대의 방향타를 잡으신분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며 21세기의 인류의 문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확신을 열정적으로 토로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한결같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탁월한 지혜와 통찰력을 지니신 세계적관도의 로숙한 리론가》, 《21세기를 이끄시는 위대한 지도자》, 《세계혁명가들앞에 나서고있는 모든 과업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과업들을 해결하시는 견결하고 자주적인 진정한 공산주의수령》으로 높이 우러러 흠모하면서 그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존경을 표시하고있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인류의 자주위업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탁월한 지도자이다.

장시에서는 20세기와 21세기의 《말》을 통하여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그 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여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며 그 미래는 찬란하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장시 《빛나라 불멸의 위업이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주제사상적내용에 맞게 예술적형상에서 높은 경지를 보여주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작품을 창작하면서 시인은 시간적으로는 30여년이라는 비교적 긴 역사적시기를 포괄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말과 글로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을 다방면적이고 풍부하고 심오한 내용을 포괄하여야 하는 아름찬 형상과제를 내세웠다.

이러한 형상과제는 물론 시인에 따라 각이하게 해결될수 있다.

이 작품에서 시인은 역사적시기를 포괄하면서도 그 내용을 위대한 인간,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풍모를 두드러지게 하는데 모를 박고 그이께서 지니신 위대한 사상과 령도풍모를 다양한 측면에서 일반화하였다.

이런데로부터 이 작품의 예술적형상을 놓고 우선 이야기할수 있는것은 그 구성상의 특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시인은 30년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장시형식에 담은 특성을 고려하여 시의 구성을 지난 시기에 창작되어온 장시들에서 흔히 써오던 수법과는 다르게 하였다.

이것은 작품이 그 외형상에서 크게 7개부분으로 나뉘여지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시인은 어떤데서는 비교적 시간적순차를 따르고 역사적사실을 톺아가는가 하면 어떤데서는 시간적순차를 떠나 하나의 사상정서적지향선에서 역사적사실들에 대한 일반화를 실현하고있으며 또 어떤데서는 실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때로는 《우리》로도 되고 《시인》으로도 되면서 시점과 각광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정하고 때로는 보다 서사성이 강한 시적묘사로, 때로는 강한 주정토로, 때로는 거대한 일반화의 폭을 가진 서사적인 묘사와 주정토로의 결합속에서 사상감정을 펴나가고있는것이다.

될수록 30년의 위대한 역사, 불멸의 업적을 안으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품위있게, 격조높이 노래하려는 시인의 예술적탐구가 구성에서 이러한 특성을 낳았다고 보아진다. 그야말로 대상을 자유분방하게 노래할수 있게 구성도 기성의 틀에 구애됨이 없이 짜졌다.

이 작품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풍모를 숭고한 높이에서 진실하고 격조높이 노래할수 있는것은 무엇보다도 구성에서의 시인의 이러한 진지한 탐구적노력과 관련된다고 말할수 있다.

구성 of 이러한 특이성은 앞으로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노래하는 시작품들, 특히 장시에서 우리 시인들이 보다 새롭고 다양한 구성형식의 탐구의 가

능성을 시사해주고있다.

이 작품의 예술적성파에서 또한 지적해야 할것은 시적언어표현에서의 시인의 고집어린 노력의 결과에 얻어진 새롭고 깊이있는 언어표현들이라고 생각한다.

서정시에서는 말할것도 없고 장시에서도 하나하나의 언어표현을 새롭게, 참신하고 뜻이 깊게, 적중하게 쓰는것은 시의 생명력을 강화하는데서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문제이다. 사실상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언어표현으로 하여 형상의 덕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우리 당의 위대성을 노래하는 경우 일부 시인들이 크고 넓은 언어표현에만 관심을 두다나니 새롭고 참신한 언어표현을 통한 심오한 사상감정의 천명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언어표현에 관심을 돌리는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 시인이 최근에 쓴 정론적격조가 높은 일련의 시들이 성공하고있는것은 적지 않은 경우 언어표현에 대한 그의 새로운 탐구와 관련되어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한 노력이 이번 장시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레컨대 머리시에서만 보더라도 《우리의 세월은 사품치는 격랑처럼 소리치며 흘러간 세월이었다》, 《빛나는 예지앞에 미래가 달려와 몸을 맡겼다》, 《5천년 민족사가 우뢰같은 진군가를 들으며 다함없는 축복을 보내온 세월》, 《인간이 백년을 살고 역사가 천년을 흐른다 한들》 등 표현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언어표현들이 매우 적중하고 힘있고 형상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들은 다시 음미해보

고싶게 뜻이 깊고 정서가 짙으며 그만큼 여운이 강하다.

이러한 언어표현들은 쉽게 얻어질수 없다. 시전반에서 시인의 깊은 사색이 느껴지는데 언어표현들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형상을 두고 시인이 깊이 무르익힌 사색의 결정체로써 얻어진 열매일것이다.

이 작품의 예술적형상과 관련해서는 20세기와 21세기의 설정도 작가의 몫이 뚜렷한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시인은 이 부분에서 량만주의적형상을 유기적으로 결부시킴으로써 우리 시대의 장엄한 진군과 사회주의위업의 불패성, 그 찬란한 미래를 보다 밝고 직관적인 전망속에서 확신성있게 조명할수 있었다. 이것은 시인의 창작적 사색과 환상이 낳은 가치있는 형상으로 된다.

시전반에서 시인의 사상미학적안목의 높이와 넓이, 심도가 느껴지고 철학적깊이가 안겨오며 시인의 호흡이 높고 크고 호방하고 열정이 줄기차게 굽이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칭송하는데 잘 조화되고있는것도 이 작품의 예술적성파와 더불어 반드시 이야기되어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하늘땅 끝까지 우러러모시고 따르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이며 불타는 맹세이다.

우리 시인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형상한 혁명적인 시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백시

계기의 바늘은 가리킨다 외 1편

리영백

계기의 바늘은 가리킨다
부쩍 오른 불길의 열도를
부쩍 오른 중기의 압력을
부쩍 오른 발전량의 수자를

계기의 바늘은 가리킨다
비애를 끊는 피로 바꾸어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불타는
우리 심장의 열도를!

그대의 눈빛은

보이라의 불길이 이글거리니
그대의 눈빛도 이글거리는가
슬픔을 열정으로 바꾸고
눈물을 불길로 바꾸었거니

아버이수령님의 유훈 받들어
일터에 거리에 집집에
세차게 흘러가는 전류의 불빛에서
이글거리는 그대의 눈빛은 빛난다!

하늘에 대한 생각

림병순

요즘 보천보전자악단에서 창작되어 널리 불리고 있는 가요들 가운데는 《신념과 의지의 찬가》도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노래이다. 안개에 싸인 백두산의 웅엄한 모습이 텔레비전 화면에 서서히 부각되면서 노래전주가 울릴 때면 나는 아무리 바쁜 때에도 하던 일을 잠시 밀어놓고 수상기 앞으로 나앉아 아이들처럼 따라부르곤 한다. 한번은 가족들이 모여앉아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따라 불러 안해를 아연하게 만든 일도 있었다. 새머느리는 나보다 오히려 자신이 더 민망해하는 기색이었다. 나이가 들고 머느리까지 맞으면서부터는 집안에서 될수록 처신을 조심하느라 원심을 쓰고있었지만 어찌하랴. 그 순간에 부르지 않고서는 못배길 응축되었던 마음속의 격정이 절로 분출되어 튀어나온 것만은 사실이었다. 들을수록 듣고싶고 부를수록 부르고싶은 것이 바로 이 노래였다.

그날밤 안해가 서재에 올라와서 하는 말인즉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는가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대답이 궁하여 그저 허허하고 웃고말았다. 기분이 좋아서 부른 것이 아니라 노래가 기분을 크게 돋구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노래를 부르라면 십리씩 도망가는 이 목석같은 늙은이의 심정을 틀어잡은 것이 과연 무엇일 것인가?...

안해가 나간뒤에 나는 류달리 깊어지는 이런 생각으로 하여 늦도록 자리에 앉아있었다. 가사의 구절마다에서 울려나오는 리인모동지의 가식없는 마음의 진정이자 우리 인민모두의 심정이었기에 이 노래는 이처럼 우리의 심금을 울려줘며 절절히 울리는 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에 대한 뜻밖의 비보에 접하여 끝없이 눈물을 쏟으면서도 우리는 하늘처럼 믿는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기에 슬픔을 누르면 분연히 일떠설수 있지 않았던가.

하기에 지금껏 수많은 시인들이 어휘를 고르고 골라 **김정일**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노래를 지었으나 나에게서는 이 노래처럼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쌓이고 쌓인 간절한 정회를 후련하게 터쳐주고 절절하게 공감을 불러일으킨적은 없는 것 같다.

...

당신은 강하십니다 언제나 이기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늘 영원한 하늘입니다

누구나 흔히 쓰는 하늘이란 말이 여기에서는 얼마나 크고 감동적인 의미로 안겨지며 여운을 불러주는 것인가!

사람들은 흔히 높이와 크기의 무한대성을 표현할 때 하늘에 비유한다. 또한 사물현상의 영원성과 자애에 대하여 말할 때 우주공간의 넓은 하늘이나 만물을 소생시키는 하늘에 상징하고있다. 부풀어오르는 희망과 원대한 뜻도 바로 그 맑고 투명한 푸른 하늘에 그려본다. 이것은 모두 하늘의 자연적개념에서 생긴 인간생활의 자연스러운 관념인 것이다.

우주가 생겨나고 지구에 인류가 생존하기 시작하였을 그때에는 하늘은 원시인들에게 하나의 공포의 대상이었다. 우리가 울고 번개가 치는 현상이 그들에게는 노한 하늘의 조화로 간주되었으며 처음으로 발화현상이 일어나 불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은 공포대신 하늘이 베푸는 혜택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 과정에 하늘이라는 신비와 우상이 생겨나 그것을 절대적인 존재로 숭상해왔을 것이며 여기에서 하늘에 대한 소박하고 몽대한 신앙심이 자랐을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계급이 생기면서 그 신앙심은 여러가지 종교의식으로 화하면서 차차 지배계급들의 통치수단으로 리용되었다. 하늘은 초자연적인 존재로 하느님이나 신선이 살고있는 래세의 전당으로 설교되었고 그 종교적관념속에 사람들은 자기앞에 가해지는 모진 고통이나 악행을 순종으로 감수하였다. 그들은 현세에서 이룩하지 못한 자기들의 모든 기원이 바로 그 하늘이 성취해주리라 믿었으며 그래서 하늘에 대고 한뼘 기도를 올리고 부처앞에서 불경을 외운 것이 아니겠는가?

하늘은 이처럼 오랜 세월 초자연적인 존재로 군림하면서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종교의식을 산생시키고 신앙심을 굳혀주는 정신적바탕으로 되어왔으나 어쨌든 그것은 불행한 운명과 고달픈 삶에서 벗어나 안식과 행운의 간절한 기원이 비껴있는 동경의 세계였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한갓 불행을 이겨나가는 삶의 위안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인류력사가 시작되어 수억년이 흘러왔지만 아직 지구상에는 인간의 자주성과 존엄이 돈과 권세에 의하여 무참히 유린당하는 기막힌 참상이 꼬리를 물고 빚어지고있다. 하늘에 의탁하고 아무리 기도를 올렸지만 그 하늘도 그것을 구제하지는

못하였다. 하기에 남조선의 한 농민은 자기네들은 한평생 물이 그리워 하늘에 대고 기우제를 하고 있지만 언제 한번 물때문에 시름을 놓은적이 없는데 북의 농군들은 그 어떤 신앙심이 있어 물이 철철 넘쳐나는 농토에서 마음껏 농사를 짓고있는것인가?

그 신앙심은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펼치시는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동경을 표시하였다.

바로 노래에서는 하늘이 자연적개념이나 종교적 관념에서가 아니라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숭배심으로 상징되어 그 숭엄한 의미가 더 깊어지고 감흥이 커지는것이 아니겠는가?

며칠이 지나서였다. 하루는 안해가 서재로 올라 오더니 난데없이 록음테프를 책상위에 꺼내놓았는데 며느리가 직장에서 《신념과 의지의 찬가》를 록음해왔다는것이다. 안해는 자기때문에 그토록 좋아하는 노래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는 령감이 보기가 딱해서 며느리가 아예 록음을 해왔을거라고했지만 어쨌든 시아버지의 심정을 리해해주는 며느리가 그지없이 대견스러웠다.

그날부터 나는 구차스럽게 텔레비존에서 그 노래가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일하다가도 설참이면 록음기를 틀어놓고 이 노래를 즐겨 감상하군한다.

그때마다 나는 노래를 따라부르며 하늘이 주는 의미를 더욱 새롭게 감수하면서 우리 인민의 운명을 두고 사색에 잠기군한다.

지옥과 천당은 땅속의 깊은 나락과 창창히 펼쳐진 높은 하늘의 개념에서 생긴것이겠지만 종교적관념에서는 인간의 운명의 두 극단을 암시하는것이다. 만일 리인모동지의 지옥행으로부터 락원행으로의 운명전환의 길을 놓고볼 때 반생이 넘는 고독한 독감방에서 그가 그 어떤 운명의 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해도 그런 전환은 생각할수도 이룩될수도 없었을것이다. 그에게 신앙심이 있었다면 그것은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었을것이다.

이런 운명전환은 결코 리인모동지 한사람에게 국한된것이 아니며 우리 인민의 어제와 오늘의 운명속에는 장군님의 해빛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비껴있는것이다. 하기에 그이를 하늘처럼 높이 모시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인류가 기원하던 모든것이 래세가 아니라 현실로 꽃피어나는 지상천국이 펼쳐진것이 아닌가!

비범한 예지와 철의 심장, 불굴의 의지, 숭고한 인간애, 이것은 지와 인덕을 겸비하신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이 지니고계시는 고결한 인간상이다. 령장중의 령장으로 문무를 겸비하신 장군님의 걸출한 위인상은 또한 아무리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사태의 본질을 명철하게 간파하시고 승리의 비결을 단숨

에 틀어쥐시며 천변만화의 전법과 령군술로 대적의 공세를 물리쳐나가는것이다.

만약 하늘에 신이 있다면 그도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무한대한 예지와 도량, 슬기 앞에 무색하여 얼굴을 붉힐것이다.

사실 20리 날바다를 가로막는 거창한 서해갑문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펼치시는 원대한 구상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였다. 몇해가 지나 갑문이 완공되고 수십년래의 왕가물이 든 그때에야 비로소 농민들은 새 수로로 흘러드는 대동강의 단물을 바라보며 무릎을 치면서 맑은 하늘에 한가득 비껴오는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을 우러러 환호를 올리였던것이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되고 전쟁의 검은 구름이 머리위를 뒤덮은 그 준엄한 시각에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장군님을 옹위하는 총폭탄이 될 결사의 각오를 다진것은 그이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에서였다. 하기에 7. 27전승기념열병식장에 **김정일**장군님께서 나오시자 억수로 쏟아지던 비도 멎고 하늘에서 휘황한 해살이 비껴오면서 날이 활짝 개인것은 그이께서 전기의 변화도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신묘한 예지와 슬기를 지녔기때문이었다는 전설같은 이야기 나돌기까지 하였다.

종교인들의 절대적인 신앙심속에 존재하는 하늘은 허상에 불과하지만 우리 인민들의 절대적인 숭배심속에 존재하는것은 현실의 하늘이신 **김정일**장군님이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 가장 가까이 계시며 친근한 동지로 다심한 어머니로, 만민의 아버지로 민족의 걸출한 수령으로서 모든 소원을 다 맡아 풀어주신다. 실로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린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웅심깊고 드눌지 않는 절대적인 숭배심은 아무리 뜻이 깊은 말이나 현란한 어휘로써 장문의 글을 쓴다 해도 그 무한대한 크기와 깊이, 그 불같은 열도와 감흥의 색깔까지 다는 나타내기 어려울것이다. 오직 하늘로밖에는 그이를 달리 찬미할길이 또 있을까?... 하늘로밖에는...

나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이윽고 록음기의 스위치를 넣고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열어제끼었다.

노래의 숭엄한 선율이 교묘한 밤의 정적을 흔들며 울린다.

나는 별들이 총총한 밤하늘을 우러르며 가슴에 차오르는 감흥에 잠겨 또다시 조용히 노래를 따라 불렀다.

...

당신은 강하십니다 언제나 이기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늘 영원한 하늘입니다

시간이여, 날 따라오라!

최강석

시간!

시간이라는 이 두 글자를 뇌이느라면 나는 저도 모르게 이상야릇한 생각에 잠기게 된다.

시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혁명과업수행 등 사회의 모든것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이 순간순간으로 이루어졌고 그 순간의 축적이 바로 시간으로 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로부터 시간의 귀중함에 대하여 많이 생각은 해오면서도 그 누구도 늘기어놓을수도 줄기어놓을수도 멈춰세울수도 없는것으로 여기면서 시간을 단축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였다.

나 역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허나 나의 이러한 시간에 대한 낡은 개념이 그 어떤 위인이나 작가가 쓴 글도 아닌 한 평범한 처녀선반공의 뜨거운 심장의 웨침앞에서 깨여질줄이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교시 관철을 위하여 온 대안땅이 부글부글 끓어번지던 7월말.

우리는 교수강의안에 따라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 생산실습을 나갔었다.

울적마다 새로운것을 많이 배우던곳이어서 주의 깊게 모든것을 돌아보던 우리는 치차감속기직장을 돌아보고나서 중속기직장에 들어섰다.

새로운 발전소 발전설비생산으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전체가 들끓던 때라 여기서도 우리는 그 기세를 느낄수 있었다.

연방 바이트에 소재를 물러가며 제품을 깎아내는 한 처녀선반공의 작업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문득 알른알른한 갖가지 예비공구들이 들어찬 공구함벽에 썩여진 하나의 글발에 눈길을 주었다.

그 순간.

모름지기 저 처녀선반공이 정성을 기울여 썼을 큼직큼직하게 썩여진 붉은 글자들이 대번에 나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다.

《시간이여! 날 따라오라!》

이 얼마나 깊은 뜻이 새겨진 글발인가?!

따라온다, 따라간다는 이 말은 흔히 그 어떤 경기나 경연에서 쓰는 말이라고 나는 알았었다.

그런데 이 처녀선반공은 《시간이여, 날 따라오라!》고 심장으로 웨치며 일해나가고있지 않는가!

눈으로 볼수도 없고, 손으로 잡아볼수도 없는 한갖 공간적개념에 지나지 않는 시간을 저 처녀는 어떻게 이끌며 달려가는데것인가?

시간을 이끌며 달려가는 저 커다란 견인력은 어떻게 나온것이며 그 어디에 원천을 둔것인가?

나는 다시한번 처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보통의 자그마한 체구, 안전모를 눌러쓴 산뜻한 단발머리, 수수한 로동복차림...

우리 나라 그 어데가나 만나볼수 있는 그런 수수한 처녀였다.

어쨌든 처녀의 외형에서도 나는 그 의문을 풀수가 없었다.

나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그의 마음을 대변한 글발에로 향해졌다.

《시간이여, 날 따라오라!》

아, 바로 저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안고 수령님의 령전에 다진 맹세 심장에 새겨안아 자신을 끝없이 채찍질하며 일하는 처녀.

바로 그것이 그 어떤 곤난도 어려움도 박차고 시간을 이끌며 달려나갈 크나큰 힘과 용기를 샘솟게 하여준것이다.

바로 그러한 힘과 용기를 안은 처녀였기에 하루 계획을 넘쳐수행하고서도 만족을 모르고 오직 수령님의 유훈교시 관철을 위하여 달리고 또 달리고있는것이다.

어찌 이 선반공처녀뿐이라.

저 주물공들의 땀흐르는 얼굴을 보라.

스스로 《찬 단물공급원》이 되여 로동자 형님, 누나들에게 모금모금 물을 부어주고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는 소년단원들을 보라.

기존관례대로 한다면 일년도 더 걸릴 발전설비설계도면을 단 열흘동안에 끝낸 설계원들, 로용변압기권선작업과제를 매일 200프로씩 해제끼는 권선공들과 전동기틀조립을 150프로로 넘쳐수행하는 조립공들, 목공들과 제관공들, 프레스공들.

참으로 대안사람들모두가 그러한 정신력으로 살며 일하는것이다.

어찌 이들뿐이라.

협동농장원들은 농장원들대로 만풍년을 앞당겨 불러오고 탄부들은 탄부들대로, 경공업부문 로동계급은 또 그들대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것이다.

분계연선의 외진 초소로부터 저 북변의 목장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인민들은 바로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는것이다.

위대한 어버이를 잃은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안고 수령님께서 생전에 바라시던 그 모든것을

풀기 위해 온 나라 인민은 시간을 주름잡으며 시간을 이끌어 달려가는것이다.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이 클수록 복받치는 슬픔도 큰것이지만 그 슬픔을 이겨내고 진정한 보답의 마음 바쳐야 하는것이 자식된 도리이고 다지기만할것이 아니라 기어이 실천하여야만 하는것이 우리의 맹세이기에 우리 인민들은 바로 이처럼 살며 투쟁해나가는것이다.

나는 또다시 그 글발을 바라보았다.

《시간이여, 날 따라오라!》

날 따라오라.

바로 여기에 우리 대안로동계급들의 마음이 담겨

져있는것이다.

그 마음에 못이겨 불변의 시간도 무릎을 꿇은것이다.

우리 인민의 충성심앞에, 의지앞에, 열의앞에...

나는 다시한번 선반공처녀의 량심의 반영인 글발의 뜻을 새겨보면서 중속기직장을 나섰다.

나도 저 처녀선반공처럼 살리라.

저 커다란 정신력을 가지고 시간을 주름잡으며 달려가는 저 충성의 대오속에 들어서리라.

나도 끝없는 충성과 의리의 궤도를 달려 시간을 이끌고 달리고 또 달리리라.

오, 시간이여, 날 따라오라!

처녀는 잔다

김송남

날실을 늘어

씨실을 먹여

파도치는 직기바다 누비는 처녀야

너는 잔다 필필이 모직천필을...

천이라도 어떤 천이라구

입직하여 여섯해 짜고 짚어도

경공업제일주의 이해의것은

더 질기고 고와야지... 또 많아야지...

시간을 주름잡는 생각을 잔다

글썸 원쑤놈들 그걸 바라다지

우리가 굶고

한지에 나앉아

입지도 못하고 얼어죽게 되기를

천만에, 어디 보자 누가 정말 뒤흔치는가

으드득... 이를 가는 중오를 잔다

놈들이 보란듯이

이해에도 영웅감들 많이도 태어났지

평양산원 떠들썩한 세쌍둥인 얼마고

백뿔상에 눈곱 적신 로인네는 또 몇이나

그들 위해 메터수를 더 늘어야지

온 나라를 헤아리는 사랑을 잔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필필이 고운 무늬 새긴다는 처녀

아니 글썸, 지난밤엔 너의 기대결에서

친애하는 그이를 만나뵈었다지

깨어나니 꿈이어서 그게 아쉬워

날도 밝기전에 일터로 달려나온

효녀의 뜨거운 마음을 잔다

너의 그 천발엔 다 있다

옷매무시 비쳐보는 네 포래 처녀들

거울속에 타오르는 두볼의 흥조도

눈발 들썩쳐 지새는 초소의 밤

온몸 따스한 군복깃속에

창끝같이 버려안는 병사의 긴장도...

그것을 잔다, 이 땅의 기쁨과 행복

《봉쇄》로도 《압력》으로도 결코 질식시킬수 없는

혼연일체의 줄기찬 호흡을,

자기의 생활과 생명을 지키는

수호자의 의무와 무한대한 희열을

그래서 너는 아름다운 처녀

나이는 어려도

어찌보면 만누이같기도 한

너의 그 웃음에

거리와 마을이 더 밝아지고

날마다 명절같은 아침이 온다

오, 그렇게 너는 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안겨주신

경공업제일주의 번개치는 북바디로

인민의 영원한 세상을 잔다

우리 식 사회주의 승리를 잔다

튼튼하게!... 아름답게!...

명가사에 대한 소감

장흥덕

리동무! 얼마전에 동무는 어떻게 하면 항구적으로 부를수 있는 매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는 명가사를 창작할수 있겠는지 그에 대한 《처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답으로 가사창작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이야기해줄수도 있을것이며 창작경험을 소개할수도 있겠지만 동무의 창작실천상 고심을 참작하여 한편의 명가사를 선택하고 그 사상예술적성과를 분석하고 해명하는것으로 회답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가사는 시문학의 한 분야로서 자기의 독자적인 사상예술적풍격을 완벽하게 갖추고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가사는 웅당 완벽한 사상예술적풍격을 갖추어야 인민들이 두고두고 부를수 있는 견인력과 매력을 가질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불의에 맞받아 정의에 살며 온 육신을 통일애국의 한길에 바쳐온 시인-혁명가의 인생총화가 절절히 토로된 세련의 송가, 가사들이 널리 불리워지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상에 이름없던 자신을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내세워주신 친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에 대한 보답으로 삼가 드린 리인모동지의 헌시에 기초하여 나온 가요 《신념과 의지의 찬가》는 인민들이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시대의 성과작으로 되고있습니다.

이 가사에는 주체형의 혁명전사의 백절불굴의 투지와 고결한 녀의 근본바탕에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위대한 강철의 인간 **김정일**장군님이 《영원한 하늘》로 드팀없이 자리잡고있다는 사상이 예술적으로 힘있게 천명되어있습니다.

사람들의 심혼을 틀어잡고 끝없이 울려주면서 삶과 인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이 가사의 매력과 정서적견인력은 어디에 있는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령도자에 대한 흠모와 충성의 열정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정서가 가사전편에 관통되어있는 송가라는데 있습니다. 가사는 령도자의 위대성에 대한 흠모의 노래이며 령도자를 받드는 충성의 노래입니다.

가사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이 자기에게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심어준 영생의 은인이신 친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정, 그이의 위대성에 완전히 매혹된데 기초하여 터치는 흠모와 칭송, 찬양의 감정이 정열적인 토로로 분절

의 전후반부에서 밀착됨으로써 흠모의 감정이 비상히 앙양되고 칭송의 열정은 높이 받들어 충성다하는 열정과 융합되어 더욱 웅심깊이 울려나오고있습니다.

죽어도 정녕 못버릴 나의 신념 그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신것입니다
당신은 강하십니다 언제나 이기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늘 신념의 화신입니다

숨쳐도 꺾이지 않을 나의 의지 그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신것입니다
당신은 강하십니다 언제나 이기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늘 의지의 화신입니다

이 가사는 첫 시행에 이어 가사전편에 령도자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의 사상감정으로 관통시켜나감으로써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언제나 이기시는 무적의 장군으로, 운명의 전부인 《나의 하늘》로 확신하는 높은 경지에로 시적열정을 승화시키고있습니다.

가사의 흠모와 충성의 열정은 감정의 색깔과 열도에서 볼 때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습니다.

그것은 후반부에서만 보아도 우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당신》으로 우러르는 친근한 정서와 《나의 하늘》로 굳게 확신하는 숭고한 정서의 유기적인 결합속에 이루어지는 매우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있다는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동지에 대한 흠모와 칭송이 진정으로 가식이 없고 실생활체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랑스러운 사상감정이라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친근하면서도 숭고한 감정으로 승화되어 무한히 강의하고 숭엄한 감을 주면서도 그지없이 절절하게 안겨오는 이 가사의 독특한 정서적 색깔은 가사의 기본열정의 바탕으로 되고있습니다.

가사에서 흠모와 충성의 열정은 또한 감정의 순도와 열도에서도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는바 그것은 죽어도 버릴수 없고 숨쳐도 꺾이지 않을 끝없이 순결한 서정적주인공의 정서이며 친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격조높이 레찬한 가장 열렬한 정서라는데 있습니다. 순도와 농도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지고있는 정서라는데 흠모와 충성으로 일관된 이 작품이 가지는 또하나의 특징이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동지에 대한 흠모와 충성이 위대한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그이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충성

다하는 가장 순결하고 열렬한 사상감정이라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순결성이 강렬성을 동반하며 강렬성이 순결성에 의해 확고히 담보되는 그러한 호상관계에서 흠모와 충성의 열정이 솟구치며 펼쳐지는 여기에 이 가사열정의 근본특징이 있습니다.

친근성과 숭고성의 통일, 순결성과 강렬성의 통일로 특출한 이 송가의 흠모와 충성의 열정은 가사의 사상적높이와 형상의 깊이를 확고히 보장하는 근원적인 핵으로 작용하고있습니다.

이 가사의 견인력과 매력의 다른 하나는 그 시적 일반화의 철학적깊이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사문학이 산 인간의 감정세계를 심오하게 표현하면서 사람들의 심금을 한결같이 울리고 그들의 사상정서생활을 참답게 이끌어어나가는 높은 견인력을 가지려면 생활감정이 철학적깊이로 안겨와야 하며 생활철학이 풍부한 정서로 풍겨야 합니다.

이 가사는 가사형상전반에서 생활의 심오한 진리를 피력하며 전개하는 유형의 가사로서 생활과 철학의 유기적인 통일속에서 시적일반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생활의 진리를 집약한 철학적인 종자를 구체적인 생활이 느껴지도록 전개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고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보통 철학적양상의 가사창작에서 생활이 느껴지지않는 도식적인 생경한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 가사는 감흥이 없어지고 따분하여 부르는 시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되기때문입니다.

가사는 생활의 철학을 밝히는 논리의 전개를 서정적주인공의 개성적이고 웅심깊은 생활적감정과 결합시킴으로써 시적일반화의 심도를 보장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사는 강하여 언제나 이기시는 **김정일**장군님을 《죽어도 정녕 못버릴》 철석의 신념과 《숨져도 꺾이지 않을》 불굴의 의지를 안겨주신 참된 《신념의 화신》, 《의지의 화신》 이시라는것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습니다.

리인도몽지가 천만자루의 장검과도 같은 시대의 성과작을 내놓을수 있었던것은 재능에 앞서 남녘땅에서 열혈단신으로 형언할수 없는 옥중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였으며 그이를 《하늘》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투쟁과 생활의 철리를 뼈에 사무치게 통감한 그 사상정신적밀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작이란 손끝으로 하는 잔재간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창조적인 사업이며 당과 조국과 인민에게 이바지하는 성과작을 내놓으려면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시대를 안고 몸부림칠수 있는 높은 사상정신적안광과 자세를 가진 참다운 인간,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가사문학이 서정적주인공의 내면세계를 통해 인간생활의 가장 보편적이고 심원한 진리를 웅심깊이

파고들자면 생활반영의 본질을 담은 폭있고 깊이 있는 문제점을 다루어야 하며 운명적인 절박성을 가진 심각한 정황을 조성하는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것입니다.

가사에서는 숨이 지는것과 같은 운명적인 절박성을 띤 시적계기와 생활세부를 포착하고 조형하는데로 사상감정을 지향시키고 가사의 정형적인 구조에 고유한 연속적인 반복과 대조수법으로 생활감정의 정수를 밝혀내고있습니다.

가사에서 보는바와 같이 1절에서 시작된 시문장의 반복과 대조는 단일한 반복과 대조의 경지를 넘어 연속성으로 특징적인 반복과 대조이며 그것은 다음분절을 거듭하여 그대로 꼭같이 계속되고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연속성에 생활감정의 정수에로 더욱 깊이 뚫고들어가는 일반화의 위력이 깃들어있다는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속적인 반복과 대조는 자유시와는 달리 이 가사의 분절과 논리적인 구조에 튼튼히 의거하여 진행되는 가사형상에 고유한 연속성이라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송가는 절가형식의 정형적인 구조형식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는 연속적인 심화과정을 치밀하게 조직함으로써 가사형상에서 연속성이 가지는 효과성, 우월성을 남김없이 시위하고있습니다. 경험은 가사의 정형적인 구조형식이 가지는 특징과 우점을 옳바로 파악하고 시적일반화에 가장 효과적인 형상 수단과 수법들을 적극 활용할수있게 준비하는것이 명가사창작을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습니다.

가사 《신념과 의지의 찬가》는 일반가사들과 다른 일련의 구조적특징을 가지고있습니다. 그것은 가요화할수 있는 가사의 두개 분절에 이어 사랑송을 전제로 한 자유로운 시구(가사에 대비하여)를 주고 다시 가사의 결구로 마무리하는 독특한 형식을 취한것입니다.

가사에 사랑송을 전제로 한 시구를 결합한것은 새로운 형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문제점은 형식 그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사랑송을 전제로 한 자유로운 시구가 이 가사에서 땀배야 땀수 없는 사상감정의 유기적인 부분을 이루고있다는것입니다.

저를 신념의 화신이라 하셨습니다
제 어찌 신념의 화신이겠습니까
저를 의지의 화신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의지의 화신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념이라 함은
세상에서 가장 굳센 의지라 함은

그것은 위대한 강철의 인간

김정일, 당신의것이읍니다

당신은 강하십니다

강하여 언제나 이기십니다

당신은 강하십니다 언제나 이기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늘 영원한 하늘입니다

보는것처럼 가사의 정형적인 서정구조와 판이한 이 부분은 송가창작의 계기를 소박한 심정으로 펼쳐주면서 가사에서 양양된 사상감정의 폭과 깊이를 보장하고 절정으로 승화시킨 다음 결구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서정적주인공을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내세워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함께 명실공히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념과 가장 굳센 의지는 다름아닌 《위대한 강철의 인간》이신 **《김정일, 당신의것》**이라고 력점을 찍어 격조높이 노래함으로써 이 부분은 가사의 사상적핵을 완벽하게 밝혀내고있으며 신념과 의지에 대한 열렬한 레찬으로, 축복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가사의 견인력과 매력은 또한 절의 서정구조와 운물에 의해서도 확고히 담보되고있습니다.

작품은 4행절가로서 기승전결이 명백하며 생활을 보다 폭있고 여유있게 반영할수 있는 합리적인 서정구조형식을 가지고있습니다.

절가는 동일한 정형을 가진 여러개의 절을 하나로 이어 서정적형상을 펼쳐나가는 시가형식으로서 그 최소의 형상단위는 시행으로 됩니다.

시행은 보통 하나의 시문장 또는 복합된 시문장의 한 단락으로 이루어지면서 독자적인 사상정서적 내용을 담게 됩니다.

절가의 시행을 어떠한 문장구조로 엮으며 어떠한 흐름새로 어떻게 이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절가의 형태상특성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절가는 매개 절이 어떤 서정구조를 가지며 그것들을 호상 어떻게 이어나가는가 하는것과 함께 시행의 음악적인 시문장형식 즉 운물을 잘 살리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시가의 작시법상특성으로 보아 시행은 운물조성의 기본단위로 되고있습니다. 우리 민족시가에서는 음악적인 룰조가 시행이라는 시문장의 한 계안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이 시행과 시행, 련과 련의 호상관계속에서 하나의 완전한 흐름새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행의 구조분석에서는 결국 운물형식의 특성에 관한 해명을 기본으로 삼지 않을수 없게 됩니다.

이 가사에서는 한 시행이 기본적으로 8, 7조의 음절형식으로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있는바 대조적인 반복으로 조화로운 룰조가 생기며 나머지행들도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새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8, 7조의 반복에 따라 생겨나는 음절의 장단과 강약에 의하여 룰조가 평면적으로가 아니라 굴곡과 파동을 일으킴으로써 진취적이면서도 견결한 음조가 생겨나고 가사가 요구하는 강의하고 승엄하면서도 친근한 시적정서를 돋구는데로 운물이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실로 자식이 부모에게 속삭이는 듯한 친근한 정으로 혁명전사가 령도자에게 자기의 꾸밈없는 진실한 감정을 아뢰이는 서정적주인공의 내면심리세계를 방불하게 표현할수 있었습니다.

실로 가사는 절절하면서도 가식이 없이 자연스러우며 유순하고 은근한것으로 하여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워지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사의 언어표현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가사는 한번 들으면 내용이 인차 리해될수 있게 뜻이 깊으면서도 쉬운 말을 써야 대중에게 친근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인민성, 통속성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가사 《신념과 의지의 찬가》는 이런 면에서도 본받을 점이 많다고 봅니다.

《강하십니다》, 《나의 하늘》, 《이기십니다》, 《당신》을 비롯하여 가사에 쓰인 모든 표현들은 거의 다 고유어들이기때문에 평범하면서도 깊은 뜻을 담고있습니다.

여기서 동무는 한편의 정교한 시와 같은 가사에서도 쉬운 말로 얼마든지 심오한 생활철학을 표현할수 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표현을 쓴다는것이 결코 험치 않다는것을, 더구나 글자수를 극히 절제해야 할 가사창작에서 그것은 매우 심중한 문제라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창작실천은 운물담구의 능수, 어휘활용의 능수가 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한마디 더 부언하고 싶습니다. 이 가사에서는 우리 시단에서 처음으로 칭송대상을 《나의 하늘》로 표현한 점입니다. 가사는 이렇게 하나의 표현을 써도 발견이 있고 시단에 기여하려는 그런 진지한 자세와 립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가사 《신념과 의지의 찬가》는 힘모와 충성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서정의 높이와 열정에 있어서, 시적일반화의 철학적심도와 운물창조, 언어구사에 있어서 참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상예술적풍격을 갖춘 국보적인 작품이라고 확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가사를 창작하겠는가에 대한 동무의 물음에 이상으로 대답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동무의 가사창작에서 성과를 바랍니다.

평양에서

시대에 대한 시인의 뜨거운 정서적체험과 시적운물

김순림

위대하고 장엄한 시대는 위대한 문학을 낳는다. 오늘 우리 혁명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위업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지금 온 세계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나아가고있는 우리 인민을 끝없는 경탄속에 바라보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에서 인류의 찬란한 미래를 확신성있게 전망하고있다.

우리의 이 위대한 현실이야말로 아름다운 시를 낳게 하는 모태이며 전제인것이다.

지금 우리 독자들은 류레없이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찬 금세기 마지막년대에 불멸의 성공탑으로 높이 솟아 시대의 지향을 안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사회현실의 힘찬 맥박을 시대의 리듬을 통하여 보여줄것을 우리 시인들에게 바라고있다.

영웅적이고 격동적인 우리 시대와 현실은 시인들에게 그에 적중한 시적표현을 요구하고있을뿐아니라 형식에서도 그에 상응한 면모를 창조할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시대와 현실이 우리 시인들에게 부과한 영예로운 과업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놓고볼 때 시의 형식에 대한 탐구는 결국 우리 식 사회주의의 벽찬 현실을 어떻게 하면 그 위대한 현실의 내용에 맞게 표현하겠는가 하는 시인의 불타는 창조적사색에 의하여 그 성과가 좌우된다고 말할수 있다.

시에서 형식에 대한 탐구는 바로 운물에 대한 탐구이다.

아름다운 시형식, 시대의 맥박을 진실하고 뜨겁게 구현하는 운물을 낳게 하는것은 위대한 현실이며 시대에 대한 시인의 뜨거운 정서적체험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에서는 정제된 아름다운 운물을 타고 서정이 흘러가며 시어와 시구가 음악적 리듬과 박자에 맞게 맞물려진다. 음악적인 풍만한 정서와 아름다운 음향, 치밀하게 다듬어진 리듬미로 하여 시는 그대로 글로 씌여진 음악으로 된다.》

음악이 생활의 노래라면 시도 생활의 노래이다.

음악에 풍만한 정서와 함께 시대에 대한 아름다운 음향이 있다면 시에도 노래와 같이 시대의 리듬과 박자가 있어야 하며 치밀하게 다듬어진 리듬미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가 명실공히 글로 씌여진 음악, 생활의 노래로 될수 있다.

시문학의 기본특성이며 생명인 서정은 시대와 인간, 현실에 대한 시인의 뜨거운 정서적체험에 의하여서만 옹게 살아날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문학의 서정을 나타내는 기본형식으로서의 운물도 생활에 대한 시인의 뜨거운 정서적체험이 있어야 옹게 살릴수 있다.

시대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로서 시인은 가슴에 늘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며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야 한다. 이런 시인만이 시대에 어울리는 기백있고 고상하며 발랄한 새로운 운물을 끊임없이 창조해낼수 있다.

물론 운물을 살리는데서 시어의 소리마디와 시줄의 길이를 조절하는것이 작시법의 중요한 요구로 나서는것이다. 소리마디의 수량과 색깔을 고려하여 시어를 선택배렬하고 호흡에 맞게 시줄의 길이를 조절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는 생활에 대한 시인의 정서적체험이 뜨겁고 시의 정서적내용이 고도로 양양되어있어야 한다.

우리 시대와 현실에 대한 뜨거운 애정, 여기로부터 우리나라의 시대에 대한 시인의 공감, 이것이 양양되면 양양될수록 시인의 심장은 더욱 높뛰며 흥분할것이며 호흡과 맥박이 고도로 양양되게 된다.

그리하면 현시기 시대와 현실에 대한 시인의 뜨거운 정서적체험은 어디에 기초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주체위업제승의 빛나는 태양이시며 우리 인민의 운명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시대와 혁명 앞에 이룩하여놓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뜨거운 공감에 그 정서적바탕을 두어야 한다.

오, 우리의 6월은

그이 쌓으신 불멸의 위업으로 푸르려라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 가슴에 소중해지며

이 땅우에 더욱 푸르려라

6월은 푸르다

그 6월은

주체의 씨앗을 자래우고 가꾸신

무성한 숲으로 푸르고

존엄높이 받들어올린

내 조국의 하늘로 푸르고

만년대계의 창조물

저 서해갑문의 물결로 푸르다

(시 《6월은 푸르다》 리종덕 《문학신문》 1994년 6월 24일)

이 시를 읊으면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0년전의 6월과 함께 만물이 푸르려지는 6월의 모습이 영원히 푸르려 약동하는 조국의 모습과 함께 가슴 찢릿하게 안겨온다.

여기에 바로 시대의 서정이 있고 시대의 운률이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위업에 대한 뜨거운 레찬, 그이를 모심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그 언제나 영원히 푸르른 청춘의 모습으로 존엄높이 빛나는 그 기개, 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얼마나 활력있는 리듬과 맥박으로 감수되는가.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인 저 서해갑문의 푸르른 물결이 얼마나 시대의 장엄한 설레이임으로 안겨오는가.

내 조국에 영원한 젊음을 준

그 푸르름

혁명의 역센 날개 미래로 나래치는

그 푸르름

오, 6월은 영원히 푸르려라

오늘도 래일도 먼먼 미래도

마중오는 무궁한 세월의 축복속에

길이길이 빛나리라!

시 《6월은 푸르다》의 마지막결구이다.

우리는 이 시의 마지막 시행을 읊으며 영원한 젊음으로 세기의 하늘높이 날으는 내 조국의 역센인 퍼덕임소리를 들으며 청춘송가의 교향악을 느낀다.

그리고 그 장쾌한 교향악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모신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우리의 심장을 더욱 설레이게 한다.

우리 독자들이 시를 읊지만 거기에서 음악을 느끼며 그 음악소리를 들으며 시인과 함께 공감할때 그 시는 시대에 적응한 운률을 체현했다고 말할수 있다.

이렇게 놓고보면 시의 운률은 결코 글자수나 맞추고 시줄을 적당히 끊어놓는것으로 살릴수 없다.

시의 서정도 고도로 양양된것이라야 운률과 자연스럽게 어울릴수 있다. 메마른 정서적체험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글자수를 맞추고 시줄을 조절하여도 운률이 아니라 기계적인 반복밖에 나올것이 없다.

최근 일부 시작품들을 보면 이러한 폐단을 그대로 되풀이하고있다.

지금 일부 시들이 서정이 살아나지 않고 시의 본도에서 빛나가고있으며 산문화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시인이 시대와 현실에 대한 뜨거운 정서적체험이 부족한데 있다.

시대와 생활에 대한 뜨거운 정서적체험이 없이 서정은 파지 않고 무엇인가 자꾸 설명하려고 할 때에는 서술식문장이 람발되고 그에 따라 운률이 파괴된다.

운률은 결코 손재간이나 글자맞춤이 아니다.

운률은 시에서 말소리의 음악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음악적인 흐름이 정서의 양양에 의해서 이루어진 음악의 곡조가 흐름새와 박자로 이루어지듯이 시의 운률도 흐름새와 박자의 유기적인 련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우리 시인들은 시의 운률을 살리는 문제가 우리 시문학의 형상을 높이는데서 근본고리의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를 창작실천에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할것이다.